



11

주 체 86 (1997)

문 학 예 술 종 합 출 판 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주체86(1987)년 제11호

(루계 제 601 호)



◆◆◆◆◆◆◆◆◆◆

차 례

◆◆◆◆◆◆◆◆◆◆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총서를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자	4
이 기쁜날에도	6
인민의 념원우에	7
이날을 안고가리	7
행복한 저녁에	8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9
《아. 장군님!》	10
인민의 가슴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심어주시여	11
환희로운 10월에	13
조선의 흐름	14
태양이 빛나는 나라	15
더욱 밝아진 하늘아래서	15
검덕은 쉬지 않았다	16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작가, 예술인 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	17
김일성 동지를 회고하여	21
아혼아홉가지 축시법	22
우리 당의 붉은기	23
잠 못 드신 그밤에	24
가을의 연백벌	27
이날을 기억하라	28
금꿀의 환호	29
영원한 우리의 스승	29

불멸의 충성이여	30
풍요한 이 가을	31
노들섬	32
이해의 가을풍경을 두고... ..	39
문학예술의 대중화실현의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	41
승리산 (외1편)	44
용해장	44
탈곡장의 설참에	45
예술적화폭속에 시대가 안겨옵니다	46
군민의 정 (외1편)	48
가을이면 열매들이 말해주리라	48
성스러운 언덕에서	49
아, 내 조국이여	51
태양과 해바라기	52
《연선마을》	53
승리의 봄언덕을 향해가는 사람들	54
그 순간 그자리에	58
반월가	59
내 고향이 아름다울 때	66
낫	67
고난의 행군길에 노래가 있었네	75
분렬의 아픔을 두고	76
고려	77
고향의 축복 (외1편)	78
산에 정들어	78
성삼문	79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총서를 문학작품창작에 철저히 구현하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국해방 52돐에 즈음하여 주체 86(1997)년 8월 4일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였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를 안고 그이의 력사적로작을 민족공동의 기치, 애국애족의 통일대강으로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에 용약 펼쳐나 조국통일념원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을 관통하고있는 기본사상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온 민족이 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였고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애국애족의 성전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서야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과 과업,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은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집대성하고 온 겨레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통일유훈관철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힌 조국통일대강, 불멸의 총서로 되는것으로 하여 온 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열렬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의 가슴가슴은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신심과 환희로 끓어오르고있으며 조국통일총서를 친히 발표하시여 민족자주, 조국통일

위업완성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불타 오르고있다. 그리고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할 결의에 넘쳐 창작적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대강을 받아안던 그날의 그 열정과 감흥을 안고 아버지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문학작품을 활발히 창작해야 할 시대적임무가 더욱 절박하게 나서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를 형상으로 깊이 있게 확인하는 문학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

고전적로작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에서 중요한것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조국통일령도업적을 만대에 빛내일수 있게 하는 숭고한 도덕의리와 충효심의 결정체, 정화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의 길에서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종합체계화하시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론증하심으로써 수령님의 조국통일령도업적이 명실공히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 완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서 고귀한 정신적유산으로, 튼튼한 밑천으로 빛날수 있게 하시였다.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시고 칭송하신것은 그이께서 지니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충효심의 발현이다. 거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도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 사상과 로선, 방침을 변함없이 고수하시고 철저히 관철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같은 의지가 담겨져있다.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선대 수령의 사상과 로선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그대로 계승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투철한 신념과 도덕의리에 탄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바로 시대의 뜨거운 박동에서 감흥을 받아야 하며 창작에 실천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민족의 고귀한 유산으로, 조국통일위업완성의 튼튼한 밑천으로 정립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

리와 충효심을 불멸의 형상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여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의 장편소설 《푸른 하늘》은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 사상과 로선, 방침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끝까지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감동깊게 형상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미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을 문학의 모든 형태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적극 창작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형상함에 있어서 우리는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펼쳐보여주기 위한데 특별한 창작적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수령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펼쳐보여주어야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뜨겁게 형상할 수 있으며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품모를 생동하게 드러내보여줄수 있다.

우리는 불후의 고전적로작이 담고있는 리론실천적의의를 형상으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형상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로작이 가지는 리론실천적의의를 형상으로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이 로작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진로를 밝힌 새로운 조국통일대강이라는것을 드높이 구가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은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있다. 이 력사의 새 시대는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있는 분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삼천리강토우에 통일된 강성대국을 일떠세우며 **김일성**민족의 위용과 기상을 만방에 떨치게 될 위대한 시대이다. 이 격동적인 시대는 해내외의 통일애국세력이 조국통일의 3대 현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로 이러한 시대적요구를 헤아리시고 이번 로작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현장을 통일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통일위업을 완성할 실 위대한 경륜과 의지를 전면적으로 밝히신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통일을 그 본질과 성격에 맞게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 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나갈데 대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제시하시었

다.

그리고 통일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민족자주의 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사대주의와 외세의존 사상을 철저히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애와 민족애,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대단결의 사상적기초로 삼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며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단결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신것이다.

우리는 조국통일진로를 밝힌 새로운 조국통일대강이라는 고전적로작의 리론실천적의의를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투쟁하고있는 북, 남, 해외 동포들의 다양한 생활을 시대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잘 형상하여야 한다.

지난 기간 우리 문학은 조국통일주체의 작품창작에서 일련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서정시 《삼각산이 보인다》는 삼각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곳에서 남녘동포들을 애뜻이 생각하는 서정적주인공의 절절한 체험세계를 통하여 조국통일열망을 뜨겁게 토로하고있다. 서정시 《청계전에 부치여》, 가사 《통일렬차 달린다》, 서정시 《복수자의 선언》, 가사 《조선은 하나다》 등 많은 시가작품들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시대의 의지와 민족의 숙원을 감동깊은 시형상으로 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만사람의 심장을 격동시키며 조국통일실현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추동하고있다.

장편소설들인 《동틀무렵》, 《불타는 항구》, 영화문학들인 《사회주의조국을 찾은 영수와 영옥이》, 《금희와 은희의 운명》 등 많은 작품들은 민족의 분렬이 가져다주는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민족최대의 념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을 반대하여 과감히 투쟁하고있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의 생활을 다양하고 생동하게 반영하고있다.

풍자시들인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 《증오의 불길로써》, 《월가의 관병식》 등을 비롯하여 많은 작품들은 통일의 원수인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면서 놈들의 침략적본성과 야수적만행을 예리하게 폭로하고있다.

더우기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1,2,3,4부)이 창작되어 당과 수령의 조국통일사상과 방침의 진리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파시한것은 특기할 사변이다.

우리는 지난 기간 당과 수령의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다양한 형식의 작품창작에서 이룩된 성과들을 토대로 하여 이번 로작에서 밝혀준 조국통일대강을 정면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품들을 더욱 활발히 창작하여야 한다. 특히 통일의 주체인 인민대중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

저히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데 대한 사상을 반영한 작품창작에
특별한 주목을 돌려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 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창작에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또한 북과 남의 관
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정상화하여 조국통일의 평화적환경을 마
련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강령적지침이 명시
되는데 대하여 그 진리성을 형상적으로 잘 보여주
는것이다. 그리하여 로작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사상과 로선, 방침은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애
국애족의 통일강령이며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
면 그 누구나 다 받아들일수 있는 지극히 공명정
대한 통일의 대헌장이라는것을 문학형상을 통하
여 힘있게 확증하여야 한다.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문학작품창
작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는 다
음으로 작품의 형상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종자를 새롭게
잡으며 착상을 기발하게 하고 사상을 명백하게
하는것이다.

최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떤 문학예술에
서나 창작가들이 종자를 잘 골라잡고 착상을 기
발하게 하면 당의 사상을 형상의 생리에 맞게 홀

륭하게 구현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
시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문학의
형태적특성에 맞지 않게 억지로 생경한 논리를
주입하는 현상, 일부 작품들에서 구호나 웨치는
현상, 조국통일주제의 작품에서 생활을 탐구하지
않고 해외동포들의 생활만을 취급하고있는 안일
한 창작태도 등 낡고 구태의연한 창작태도를 철
저히 없애고 이 분야의 주제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력사적문헌,
불멸의 조국통일총서를 받아안음으로써 우리민족
은 보다 뚜렷한 목표와 방향, 강령을 가지고 조
국통일대행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되였
다.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유훈대로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민족
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자애로운 어
버이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경도를 일편단심 받
들어 민족자주위업,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겨 이룩
하려는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의 의지는 확고부동
하다.

모든 작가들은 신심과 락관에 넘쳐 경애하는
장군님의 조국통일대강을 높이 받들고 민족자주
위업, 조국통일위업 완성을 위한 거족적투쟁에
문학으로 적극 이바지해나가야 할것이다.

이 기쁜날에도

한춘실

환희로 뛴어넘치는 이 시각
내 날듯한 기쁨에
청높이 노래하며 춤판에 뛰어들었어도
왜 그런지 뜨거운 눈물
두볼을 적시는구려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추대한 환희
활화산처럼 분출한 이런 날에
너무 기뻐 세상에 대고
내 목청껏 만세를 웨치건만
하늘땅 공간가득 차고넘친 환호성에
내 목소리 찾을길 없구려

대원수님 생각에
안겨주신 행운에
영원한 그 사랑에 목매여 목매여
위대한 태양을 모신 행복에
노래속에서조차 못감추는 눈물
나도 몰래 샘솟는 감격의 눈물

이 기쁜날에도 눈물이
삶의 행복을 말하는구려
우리 세월 좋아
영원한 세월 밝아
태양만을 따르는 그 마음
그 진정이 솟구치는구려

그 기쁨에 그 행복에
노래도 웃음도 절로
춤도 절로
온 하루 춤판에 돌아가도
땀발먼저 행복의 눈물

탓하지 마오
이 기쁜날 눈물을 보인다고
티없이 순결하게 모시리라
마음의 벽을 깨끗이 씻어주며
이 마음의 충성이 방울져내린다오
보답의 맹세가 심장에서 젖어나온다오

인민의 념원우에

송명근

문득 마음의 문을 열어제낀
충동의 분출이 아니여라
그것은 이미 우리 심장속에 이글이글 끓던
용암의 분화구와도 같은것

아니여라 새삼스러운것이
진실만을 받아들여온
인민의 의사가
그렇게밖에는 달리 할수 없었던
그것은 신념의 웨침이여라

오오 **김정일**동지!
그이를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있는 그대로 다 말기고
믿어
마음 폭 놓이는
그런 위인, 그런 령도자는
우리에게 오직 **김정일**동지밖에 안계시여라

우리는 다 알고있여라
이미 그이의 품에 안기여 우리 살았고
이미 그이의 령도를 따라
시련의 길도 영광의 길도 우리 헤쳐넘었기에
오로지 그이만이
운명을 맡기고싶은 품!

수령님의 가장 충실한 전사인
김정일동지 아닌 그 누가
온 사회 주체사상화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그이의것이 아닌 그 어떤 기발이
우리 혁명을
주체위업의 최후종점까지 이끌어갈수 있으랴

천만대적을 한주먹에 후려치시고
민족을 구원하신 강철의 령장
그이의 담력이 아닌 그 무슨 힘이
대기념비의 숲으로 행복의 락원을 펼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그이의 예지가 아닌 그 어떤 기적이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우리를 안아올릴수 있으
랴

민족을 구원하신 강철의 령장
그이의 담력이 아닌 그 무슨 힘이
대기념비의 숲으로 행복의 락원을 펼치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
그이의 예지가 아닌 그 어떤 기적이
가장 존엄높은 인민으로 우리를 안아올릴수 있으
랴

불같은 인간애로
광복의 정치로
한 나라를 대가정의 지붕아래 세워주신 어버이
그이 아닌 그 어떤 품이
영원한 혼연일체의 구심점으로 될수 있으랴
인민의 마음은
돈으로 살수 없고
달콤한 약속과
권력으로 모을수 없는것

우리 당과 인민앞에 헌신으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우에
공지와 행복으로 우리 심장에 새겨진
세월과 세월우에
가슴타도록 바라고 바라던
인민의 념원우에
김정일동지이시여! 당신은 지금 높이
받들린것입니다

오, 우리 민족의 운명을 맡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영광, 영광을!
찬란한 내 나라 내 조국의 대변영과
맞이하고 또 맞이할 승리에 대한 확신이
오늘의 환호로 터져 지구를 뒤흔드는것이여라!

이날을 안고가리

량덕모

만세를 웨치며
환호를 터치며
기쁨에 젖는 우리 마음
태양의 모습으로 빛발쳐오는
그이의 영상 우러러

끝없는 걱정 활화산처럼 분출하여라

아, 하늘땅에 차넘치는
오늘의 이 환희여!
우리의 미래 얼마나 아름다와지랴

내 사는 땅은 얼마나 풍요해지고
내 집 창가엔 또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 깃들라

만민이 하늘처럼 믿고사는
위인중의 위인
우리의 심장에 태양으로 새겨진
오직 한분 인민의 수령
그이를 우리 당의 총비서로 추대한것은
달리 될수 없는
우리의 신념이며 랑심
우리의 행운이며 자랑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할 일을 다하고 환히 웃으시는
수령님과 같으신 그 모습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모신
행복의 날이여! 영광의 날이여!

이날은
천세만세 그이를 받들어갈
우리의 충효가 하늘끝에 닿은 날
그이 위해 한몸 총폭탄이 될
붉은기정신 붉은기맹세

가슴가슴에 용암처럼 끓어넘치는 날

이날은 이날은
마주오는 세월
21세기와 새 세기들에
영원한 승리의 빛발을 엮어주는
력사의 날

이날의 기쁨안고
인류의 리상이 꽃피날
사회주의락원을 펼쳐가리
천만산악이 막아서도
이날의 맹세안고
넘고넘으리

오,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천만리 또 천만리
주체의 한길을
통일의 광장에 이으며
자주세계의 최후승리에 이으며
언제나 이날을 안고가리!
이날을 우리 안고가리!

행복한 저녁에

주명옥

얼마나 좋은 저녁이나
얼마나 기쁜 저녁이나
우리의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이 저녁은

딸아 너도 이 기쁨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한테 먼저 들린게 아니냐
좋아라 웃음 방실 날리며
재롱도 많은게 아니냐

너의 예쁜 재롱에 보내는
이 엄마의 미소도 부드러워만지누나
너와 손잡고 그냥 걷고싶은
이 엄마의 마음도 즐겁기만 하구나

타고난 복처럼
우리 받는 수령복
정녕 그 복이 없었더라면
찬비 뿌리는 그 어느 거리에서 너와 나 락엽처럼
깃났혔을지 어이 알라
그래서 이 저녁 딸아야
수학문제 잘 풀어 5점을 맞았다고
뽕튀기에서 백을 넘겼다고
응석으로 하는 네 말조차 정답구나

엄마도 또한
천진한 네앞에서
자랑하고싶구나
새 상품을 마련한 일이며
새집들이 가정에 주문상품 날라다준 사연이며...

이 저녁은 어두워져도
저 가로등 불빛처럼
저 층높은 창가의 불빛처럼
너와 나의 마음은 밝아만지는구나

마음놓고 어서 가자 딸아
이제 우리의 친근하신 장군님
수령님 오셨던 너의 교실에도 오시여
글씨 곱게 쓴 네 숙제장도 보여주시리
이 엄마 일하는 상점매대에도 들리시여
인민을 위해 일 많이 하라고
나의 손도 다정히 잡아주시리

얼마나 좋은 저녁이나
우리의 창창한 미래를 약속하여주시는
아버지장군님 계시여
너와 나의 마음은 끝없이 밝아만지누나
우리의 삶은 영원히 행복하리라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언제나 자신은 수령님의 전사일뿐이라고 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꾼들이 오직 수령님 한분만을 알고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따르도록 이끌어주신 참된 충신, 효자의 귀감이시다.

어느날 한 일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사업보고를 드리는 기회에 조국에 체류중인 한 해외인사의 청을 말씀드리게 되었다.

《그는 이제 머지 않아 조국을 떠나게 되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꼭 만나뵙고야 떠나가겠다고 간절히 청원하였습니다. 너무도 간절히 청원하는데 그의 소원을 좀 풀어주실수 없겠습니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었다.

일군은 이번에는 아마 그를 만나주시려는가보다하고 그이의 말씀을 기다렸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은 어조로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가 나를 만나겠다는 심정을 알만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시면서 의미있는 눈길로 일군을 마주보시었다.

일군은 미처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헤아릴수 없어 어리둥절해하였다.

(이처럼 굳이 거절하시는것을 보면 그 어떤 깊은 사연이 있겠는데 나는 그이의 뜻을 모르고 일하고있지 않는가?)

불현듯 자책의 마음이 갈마들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굴려해보아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아직은 헤아릴수 없었다.

난감한 기색으로 앉아있는 그 일군을 눈여겨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러시고는 따뜻한 정이 흐르는 목소리로 이렇게 깨우쳐주시었다.

《나도 그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동무는 얼마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지 않았습니까.》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 인상이 그의 끝수에 영원히 새겨져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를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의 처지에 비추어 하늘에 하나의 태양이 있듯이 이 세상에 오직 수령님 한분만이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면 그만입니다.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를 내가 열렬히 축하한다고 전달해주시오.》

세차게 가슴을 치는, 숭고한 충정에 불타는 말솜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에게 거듭 그 인사를 잘 리해시키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누를길 없는 감동을 안고 그이의 방에서 나온 일군은 즉시로 그 해외인사를 만났다. 그리고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전했다.

그러자 인사는 너무도 뜻밖에 큰 충격을 받은 듯 말도 못하고 한참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이윽고 그 인사는 두눈에 감동의 이슬을 담고 갈린 목소리로 말하였다.

《저는 백골이 진토되어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그 영광을 잊지 않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은 그 행운의 시각을 저의 끝수에 영원히 새겨주시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을 뵈온 감격과 함께 위대한 후계자를 모신 행복과 흥분을 동시에 안고 길을 떠납니다.

하늘에 태양이 있듯이 이 세상에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신다는것을 저는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해외인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엄숙히 가르쳐주시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비록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지는 못했지만 직접 가까이서 만나뵈온 것처럼 후련한 마음을 안고 길을 떠나겠다고 목메여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간절한 소원을 남기는데 이다음에 평양에 다시 오게 되면 그때는 꼭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게 해달라고 뜨겁게 말하였다.

하늘에 하나의 태양이 있듯이 이 세상에 오직 수령님 한분만이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철석같은 신조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러한 신조를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다음에도 우리 인민들이 마음속에 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도록 해주시려고 추대행사도 뒤로 미루도록 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생전에 사업하시던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는 사업을 몸소 발기하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정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숭고한 충정을 지니신 충신중의 충신, 효자중의 효자이다.

《아. 장군님!》

홍민식

눈시울이 젖어들어
차마 입을수가 없구나
서해의 결사옹위전사들이
최후에 남긴
그 눈물겨운 편지를

산악같은 파도
광란하는 태풍속의 망망대해
뜻밖에 들이닥친 최악의 조난상태에서
장군님의 초상화를 결사옹위하고
마지막으로 목메여 우리러부른
그 심장의 목소리 가슴을 치누나

—최후의 순간까지
장군님의 노래를 부르며
평양하늘을 우리러 싸웠다
《아, 장군님!》

하고싶은 말 그 얼마였고
찾고부르고싶은이 그 얼마였으랴만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그 존함
《아, 장군님!》

죽어서도 떨어질수 없는 그 품
사무치는 그리움에 목메이는
그 부름은
정다운 고향집어머니
사랑으로 뜨거운 다정한 사람들
손저어 바래주던 정든 포구...
그 소중한 모든것을 찾고부르는
이 세상 그리움의 전부였고

그 부름은
밤이 가면 새벽이 오고
검은 구름이 걷히면
태양이 누리를 밝히듯
죽어도 기어이 그 품에 안길
신념이고 의지이고 희망이었나니

울부짖는 태풍속에 사라졌던가
노호하는 파도속에 묻히었던가
망망대해에서
목메여 부르던 그 목소리
온 넋으로 웨친 그 목소리

아, 장군님의 그 사랑이
눈이 되고 귀가 되어
아픈 마음으로
하늘을 누비고 바다를 누벼
끝내 그 목소리를 찾아
자애로운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

수령결사옹위의 그 숭고한 모범을
조국이 알고
인민이 알고
온 세상이 알도록
충신효자로, 영웅으로 높이 내세워주셨나니

《아, 장군님!》
심장과 심장이 터친 그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남기고간 유언이 아닌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기며
목메여 부르르고부른
삶의 노래, 영생의 노래여라!



인민의 가슴속에 혁명적수령관을 심어주시어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영원히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혁명의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지난날 세계지도우에서 빛마져 없었던 우리 조국은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으로 그 이름 찬연히 빛내일수 있었고 우리 인민은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자랑떨치게 되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로정을 되새길 때마다 우리들은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뚜렷이 밝혀주시고 우리모두를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선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로 키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군한다.

사상리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일찍부터 혁명투쟁에서 수령문제가 기본핵이라는 가장 심오한 수령중심론을 창시하시고 우리 모두가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충성다하도록 따랐이 이끌어주시었다.

수령중심의 사상을 혁명의 철리로 새겨주시던 30여년전의 못잇을 봄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준다.

주체54(1965)년 4월하순 어느날이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그날부터 수령에 대한 가장 과학적이고 명철한 해명을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 혁명의 근본원리에 대한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한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동무들은 수령님의 위대성을 외면하려는 반당분자들의 해독행위를 두고 가만있었는가고 엄하게 지적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질책하시는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날 그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종합적으로 수록된 전기를 쓸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선전에 그늘을 지어보려는 나쁜놈들의 책동으로 이 사업은 제대

로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그놈들의 음흉한 책동을 누구보다 예리하게 간파하신분은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직권에 눌러 수령님의 전기집필을 결단성있게 내밀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의 사업태도가 안타까우시여 그 일군을 책망하시게 된것이였다.

심한 자책감에 잠겨있는 그 일군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는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한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자신의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채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었다.

한동안 묵묵히 거니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혁명투쟁에서 수령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수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에서 승리의 결정적요인이라고 밝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대중과 수령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우리 시대 혁명의 중심에는 수령이 서있고 인민대중의 최고뇌수인 수령은 혁명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밝혀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력사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며 력사발전의 추동력도 인민대중이지만 력사의 주체로서 자기의 지위를 차지하게 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하도록 인민대중을 이끄는 힘은 수령의 령도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시대의 혁명이란 수령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항상 혁명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수령중심론에 관한 탁월한 사상을 새롭게 천명하시었다.

실로 놀라운 예지의 론술이였다.

그 누구도 혁명의 중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였던것이다.

혁명에서의 수령중심론이 얼마나 심오한 혁명의 철리인가.

돌이켜보면 장구한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탁월한 수령의 령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진리로 새겨놓았다.

참다운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는 투쟁은 하늘중천에서 피곳 빛과 함께 퇴성을 터치고 사라지는 퇴우와 같고 세찬 격랑의 물줄기를 일으켰다가 암초에 부딪쳐 산산이 퍼져버리는 물갈기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의 창조자로 나선 인민대중의 투쟁은 반드시 올바른 수령을 모실 때에만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

혁명에서 수령 중심에 관한 문제는 천재적인 안목을 지니시고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체현하고 계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내놓으실 수 있는 위대한 사상이었다.

불멸할 사상을 받아안고 뛴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 일군에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에서 수령문제가 기본책이라고, 인민대중은 욕망 하나로 혁명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사상을 주고 전략전술을 주는 사상리론의 뇌수, 단결의 중심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 뇌수, 그 중심이 수령이라고 설득력있게 깨우쳐주시었다.

백전백승할 수 있는 혁명의 원리, 투쟁과 승리 에 대한 과학적원리가 집대성된 귀중한 말씀이었다.

심오한 철학성과 정연한 논리, 풍부한 형상으로 결합된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심취된 일군은 경건한 심정으로 그이를 우러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을 바라보시며 잠시 생각에 잠기시다가 이 세상에 우리 수령님 같은 분이 또 어데 있겠는가고 하시며 세계인민들은 모두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은 세계가 처음 알고있는 절출한 철학가이시고 사상가이시고 리론가이시며 탁월한 령도자, 인자한 아버지, 위대한 인간이시라고, 수령님은 천재중의 천재,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의 위대성과 그이께서 쌓으신 만고의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는 귀중한 가르치심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모두가 주체의 수령관을 똑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성을 알아야 절대성이 나온다고, 그러자면 수령님의 전기를 내놓아야 한다고 힘있는 어조로 이리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수령님의 전기를 내놓았어야 했다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수령님의 전기를 신물하지 못한것이 매우 가슴아프다고 하시는데 것이었다. 그러시고는 당이 언제나 동무들의 뒤에 서있으니 용기를 내어 전기를 만들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깊은 관심속에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수록된 전기는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인민들은 투쟁과 생활의 지침, 고귀한 혁명의 양식을 가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모두를 혁명적수령관이 튼튼히 선 혁명의 주체로 키우시기 위하여 바쳐오신 로고에 대한 이야기는 정녕 끝이 없다.

혁명의 수령에 대한 심오한 사상을 밝힌 수많은 고전적로작들을 집필하시며 사색과 탐구의 낮과 밤을 보내시던 그 나날이며 혁명적수령관에 대한 학습을 하고있는 한 일군을 찾으시여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로서의 수령의 위대성을 드림없는 신조로 간직하게 해주신 그런 날들은 얼마나 많은 전설같은 사실들을 전해주고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따뜻한 손길아래서 우리 인민은 오로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한마음 바쳐 충성해가는 충신, 효자로 자라났다.

당과 수령의 믿음과 사랑을 최고의 행복, 최대의 영예로 간직하고 자기 수령과 자기 령도자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고 충성의 한길로만 가고있는것이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감정으로 되고있다.

절해고도에 떨어저도, 실사 원썬들의 무리속에 들어도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에 대한 변심없는 믿음과 신뢰를 안고 수령과 령도자의 사상을 옹위하여 굴함없이 싸운 혁명전사들.

사회주의요람을 허물어보려고 날뛰는 천만대적의 공세를 맞받아 《고난의 행군》길을 승리의 진군길로 열어나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

아무리 정세가 어렵고 불리해도 우리 인민은 수령과 령도자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심을 안고 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지키는 성새, 방패가 되고있다.

참으로 수령을 중심으로 당과 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친 우리의 통일단결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지난 수십년간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난관이 겹쌓인 전인미답의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 혁명은 키를 잃지 않고 승리의 길로 곧바로 전진해왔으며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 빛나는 승리의 비결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혁명의 수령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결출한 령도자로 높이 모셨기때문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아버지수령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더욱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승리만을 이룩해갈것이다.

본사기자 로창일

환희로운 10월에

박창민

우러러 모시는 마음, 언제나 따르는 마음들이
축원의 꽃을 피우며 기다리고 기다려온 10월이
다.

이 강산 그 어디에나 축원의 무대 펼쳐지고 환
희의 파도 세차게 설레이는 10월, 경축의 10월!

해마다 맞는 10월이지만 역사적사변들과 사연
들이 너무도 많아 이해의 10월은 참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산에 들에 단풍도 일찌기 붉게 타고 강
산이 춤추는 환희의 계절, 환영의 계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총비서
로 높이 추대한 경사스러운 10월, 기다림의 대하
에 태양이 솟은 역사적사변의 10월!

이 땅에 흘러가는 세월의 날과 날을 태양의 존
함과 하나로 결부시켜 부르며 태양의 역사를 엮
어가는 세계는 영광의 새 시대를 장엄히 선언하
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한 민족의 대사변, 인류대경사의 날에
터져오르던 환호성 이 가슴 세차게 울려주고있
다.

하늘이 열리고 지구가 흔들리는 조선의 환호성,
세계의 환희에 이 땅과 온 행성이 위대한 령사의
격파를 일쿠었다.

텔레비죤과 라디오, 고성기 앞에서 격동의 파
도에 휩싸여 터뜨린 《만세!》의 환호성이 감격의
분수령을 이루었다.

위대한 새 시대를 알리는 령사의 선언이 환호
의 퇴성으로 울려 퍼졌다.

력사적인 추대의 날 나는 텔레비죤앞에서 감격
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세월을 넘어 메아리쳐오는 환호성을 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태양의 존함으로 부
르며 민족의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추대하며 터
뜨린 우리 혁명의 1세들의 환호성, 해방의 봄을
안고 조국에 개신하신 수령님을 우리 당과 국가
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하며 터뜨린 우리 혁명
의 2세들의 환호성, 그것이 오늘도 우리 혁명의
길에서 위대한 승리의 노래로 메아리쳐오고있다.

세차게 높뛰는 나의 심장에서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가는

력사의 대사변, 인류의 대경사를 맞이한 오늘 세
기의 령마루에 거언히 서시여 인류의 앞길을 휘
황히 밝혀주시는 세계의 탁월한 수령을 맞이하여
인류는 래일을 락관하고있다!)

금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거언히 드
신 손길아래 끊어졌던 강토가 이어진 삼천리강산
의 모습이 안겨오고 7천만이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신 그이를 우러러 터뜨리는 민족의 대환호성이
메아리쳐오는것만 같다.

나의 가슴속 깊은곳에서는 저도 모르게 걱정의
환호성이 터져오른다.

희세의 위인, 천하제일장군을 모시여 평범한
전사인 나도 금시 거인이 되고 금시 무적의 장수
가 되어 천만대적도 발밑에 굽어보는 담력과 배
짱을 가지게 된다.

생각할수록 감회깊은 가을, 격동적인 계절이
다.

사상과 령도에서 최고이시고 신념과 담력에서
최고이실뿐아니라 료리도덕에서도 최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얼마나 고매한 도덕의리
로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며 혁명적료리도덕의
빛나는 장을 아로새겨오셨던가.

전민, 전군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열렬한 축하
의 꽃다발우에 높이 추대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그이의 위대한 손길따라 령사는 흐를것이다.
력사의 라침판은 우리 장군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이의 손길은 온 세계의 자주화의 시간표,
김정일동지의 존함으로 빛나는 미래세기의 종소
리로 인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환희의 꽃바다 설레는 10월의 이 아침, 해빛
이 류달리도 눈부시다.

희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의 크나큰 궁지로 설
레는 이 강산에 아침노을이 불란다.

위대한 장군님의 권위로 존엄높고 그이의 기상
으로 약동하고 그이의 리상으로 위대한 현실이
펼쳐지는 우리 민족의 행운, 무궁창창한 미래를
축복하여 눈부신 해빛이 누리를 비친다.

아, 찬란한 빛을 뿌린다.

조선의 흐름

로종익

주체 86년 10월 8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추대!

전과도 신문도 방송도 텔레비존도 만사를 제쳐놓고 오직 이 한가지 소식을 전했다.

지구의 40억년 력사에서 일어난 사변중에서도 가장 격동적으로 가장 열렬하게 가장 진폭이 넓고 중심이 깊게 울린 만세 환호성이 태양의 나라 조선에서 활화산처럼 분출된것이다.

이 환호성은 우연이나 기적이 아니였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확고한 신념으로 다져지고 굳어진 기쁨이며 자랑이며 념원의 응결체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루를 허물어뜨리려고 위협과 공갈, 와해와 질식의 몽둥이를 든 원수들과 혁명의 배신자들이 시시각각으로 도발을 걸어왔으나 사회주의기치를 억세게 지켜내신 우리 장군님.

뜻하지 않는 자연재해까지 겹치었는데 비렬하게도 쌀이 흘러드는 통로까지 막아버린 광신자들이 이 나라에 봉쇄의 울타리를 겹겹이 둘러치였으나 《고난의 행군》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솟는 길도 걸으시고 눈비도 맞으시고 인민들과 같은 식탁에서 죽물로 끼니를 에우시며 시련의 어덕을 넘으시는 우리 장군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 불면불휴의 헌지지도의 길에 받들리어 조선은 더 강한 모습으로 일떠섰다.

하여 우리 인민들은 목이 쉬도록 환호성을 터치였고 설레이는 환희로움을 부여안은채 간밤에 전등을 끄지 않고 어버이수령님을 받들어모신 행복했던 나날들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광휘로운 21세기를 넘어설 결의로 긴긴 밤이 지새는줄 몰랐다.

나역시 간밤에 눈한번 붙이지 못한채 장군님을 따르는 이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핀 사람들의 흐름은 출근길을 그 어느때보다 이채롭게 장식했다.

나는 출근길에서 도송배전부 급전사령 박동문을 만났다. 우리는 동갑이다. 전쟁시기 한낱한

시에 전공이 된 막연한 지구였다. 박동문은 예수를 넘긴 로인이 되었으나 아직도 초소를 떠나지 않고 전류의 흐름을 이어주고있다. 그의 얼굴은 재롱스러운 어린애처럼 싱글벙글했다.

나는 슬쩍 건드려보았다.

《자네는 유치원으로 가는 어린애같구만.》

《어린애같은게 아니라 어린애가 됐지, 어디 나쁜인가? 온 나라 인민이 다 어린애가 됐지. 자네도 로인티를 내지 말고 어린애로 돌아가게. 하긴 작가는 사색형이니까 젊어도 늙은 티를 낼테지. 하지만 마음은 어린애겠지?》

《내가 손자들을 거느린 할아버지인데두?》

《하긴 나도 할아버지가 됐지. 하지만 오늘아침부터 나는 어린애일세. 해방직후 어버이수령님을 당과 국가의 수위에 모셨을 때 우리는 어린애였지. 수령님품속에 안기여 아무런 근심걱정 모르고 예수를 넘겼지. 내가 보내는 변하지 않고 변할줄 모르는 전류가 순간의 쉽도 없이 흐르듯이 나도 또다시 어린애가 되어 충성을 수놓으며 먼 먼 길을 걸고싶네. 그러니 나도 오늘을 생일로 두번째 생의 걸음마를 떼 셈이지. 안그런가?》

박동문은 등교길에 오른 지나가던 어린애의 손목을 잡고 가벼운 걸음을 옮기였다. 마치도 《나와 너는 동갑이야.》 하고 속삭이는것 같았다.

전류의 흐름처럼 인생의 《퇴근》이란 있을수 없다며 어제도 장군님을 따라왔고 래일도 변함없이 장군님을 따라 값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박동문이었다.

나는 그의 모습에서 일심단결된 조선의 젊음을 보았고 기약된 미래의 행복을 한껏 느꼈다. 그 모습은 어린애로 태어나 장군님품에 안긴 우리 인민 모두의 모습이였다.

그렇다!

시계는 멈출수 있어도 시간을 멈출수 없듯이, 이 땅덩어리에 수억만톤의 총포탄을 터뜨려도 지구의 공전을 멈출수 없듯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로 전진할 태양의 나라 **김일성**조국의 흐름은 조금도 변함없이 한치도 탈선없이 사회주의기치를 추켜들고 오직 정보로만 가고 또 같것이다.

태양이 빛나는 나라

김재원

유구한 이 나라 력사여
가슴을 헤치고 오늘을 새기라
달력과 일력에
이날을 금문자로 기록하라

세상앞에 다 말해주는 오늘이 아니냐
어떤 신념, 어떤 의지가 있어
그렇듯 크나큰 상실앞에서도
조선로동당, 조선인민이
그날에 땅을 차고
백두산악같이 일떠섰던가를

눈물자국 마르지 않던 아이들 얼굴에
꽃같이 빨강게 웃음이 피어나는 오늘이다
비애의 통곡소리 짝 찼던 저 하늘이
나의 목소리도 뜨겁게 합쳐진
그 만세의 함성으로 맑게 개여지는 오늘이다

조국땅 방방곡곡
공장의 기대는 기대들마다
속도높이 더 기운차게 돌아가고
대지의 포전은 포전들마다
풍년이삭으로 가슴 부풀어지는 오늘이다

향도의 그 나날에 벌써
타고나신 그 천품
태양같은 그 인덕
비범하신 그 예지에
스스로 매혹된 우리 인민의 마음

순결한 첫 고백과도 같이

깨끗한 순정을 터쳐
아름다운 노래속에
환희넘친 만세속에
그 존함 태양으로 모셨던분

아, **김정일**동지
백두의 귀틀집에 탄생하신 인민의 아들
위대한 그이를
력과 시대의 손길로 높이 받들어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우러러모신
민족대경륜의 날이여

오늘이 있어 력사는 찬란해라
오늘속에 우리 떨쳐온
위대한 승리의 어제가 다 담겨 빛발치고
오늘속에 우리 달려갈
휘황찬란한 미래가 다 비껴 일떠서거늘

김정일동지
그이는 양양한 우리 당
그이는 창창한 우리 조국
그이는 가없이 펼쳐진 조선의 미래

만세를 웨쳐라 축포를 터쳐라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모시여
영원히 태양이 빛나는 나라!
그 빛발 찬란히 앞길 밝히여
천대만대 무궁번영하리라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여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조국이여!

더욱 밝아진 하늘아래서

양치성

더욱 밝아진 하늘아래서
기쁨에 못이겨
가슴헤쳐 웨치노라
우리 당의 총비서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영광의 환호를!

해빛은 누리에
줄줄이 무지개무늬를 짜고
산천은 우쭈우쭈 킨 솟구어라
강물도 바다로

환희에 설레여라

거리엔 만세의 환호성
사람마다 희망찬 얼굴들
낮모른들 어떠리 아무나 붙들고
오늘의 이 경사를 두고
점도록 이야기를 나누고싶구나

솟구쳐 분출하는
심장의 환호

기쁨우에 기쁨이
영광우에 영광이 덧쌓이니
하늘땅을 진감하는 인민의 환호

김일성민족의 이름을 지녀
슬기롭고 위대한 인민
주체의 사회주의 존엄으로
그 이름도 위대한 내 나라
위대한 장군님을 총비서로 높이 모시여
더더욱 위대해진 우리 당이다
우리 사회주의조국
우리 인민이다

우리 당을 이끄시는
그 위대한 손길 우리르면
한낮에도 꿈이 아롱지여라
천지개벽으로 기적같은 승리로
사회주의를 빛내여갈 내 조국
통일의 그날도
가닿아야 할 공산주의도
금시 눈앞에 어려와라

부러워하라 세상사람들이여
온 누리를 다 준대도 아니 바꿀
우리의 이 행복을
놈들의 고립압살책동도
끓어솟는 이 힘으로 짓부시리라
지구를 휩쓰는 모진 역풍도
차넘치는 이 용기로 휘뿌려던지리라

아,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하늘땅 가득히 해빛으로 가득찬 이 땅
걸출한 지략과 무비의 담력으로
손길 높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 우리러
심장은 쿵쿵 맹세로 뿔뿔나니

영광에 찬 나의 한생
행복이 약속된 나의 가정
승리로 빛나는 내 조국의 미래를 확신하며
목청껏 목청껏 웨치노라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노라!

검덕은 쉬지 않았다

백영수

쉬지 않았다
이날따라
높이 고동치는 착암기소리
천길 지심을 들었다놓는
우렁찬 발파소리

여기 막장에서
환호성 올라가는 이 강산의 환희를
가슴가슴에 겨웁도록 안아보며
검덕은 쉬지 않았다

광부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는분
몸소 인차에 오르시여
막장속 그 마지막광부까지
다 만나주시던분
아, 친근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받들어 모셨거니

이미 그렇게 모시고 살아온 나날
이미 그렇게 받들어온 나날이었어도
이날따라
더 높이 고동치는 심장의 고동소리
가슴속 벽을 툭툭 치는 걱정의 그 맥박소리

우리 얼마나 더 크게 발파소리 올리면
이 기쁨 다 터칠수 있으랴
얼마나 더 많은 광석을 캐고캐면
오늘의 이 행복을 다 안아볼수 있으랴

검덕은 쉬지 않았다
북대천은 춤추며 흘러가도
광부는 깊이 더 깊이 막장으로, 막장으로
그렇게 하는것이
장군님을 높이 더 높이 받들어 모시는것이기에

오, 조국이여
천길지심을 들었다놓는 발파소리
우리의 우렁찬 환호소리로 들어주시라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영원히 모셔갈 우리의 맹세
신념의 노래로 들어주시라

한발과 올리면
금은보화 쏟아지듯
검덕은 빈말을 하지 않는다
우렁찬 이 땅의 메아리
검덕은 발파소리로 대답하였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작가, 예술인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

박춘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는 지금 우리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고전적로작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수행의 근본원칙으로 된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히시고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던 이 혁명로선의 정당성을 승승장구하는 우리 혁명과 복잡한 세계혁명운동의 현실태를 통하여 뚜렷이 확증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확고히 고수하여온 우리 당과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 력사와 성과, 고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우리를 《민족주의》니, 《고립주의》니 하면서 헐뜯던 대국주의자들의 비방이 얼마나 허황한것이였는가를 확증하시였다.

실로 이번 로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길, 민족자주의 길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천명한 대정치헌장이며 세계혁명운동의 앞길을 휘황히 밝힌 등대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사상리론을 문학예술작품창작실천에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오늘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몫을 담당수행해나가고있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 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이다.》

문학예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한다는것은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비위에 맞게 민족자주정신이 나래치는 형상을 창조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바로 그것이 민족문학예술의 생명이며 문학예술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창조되고 발전되는것과 관련된다.

주체성과 민족성은 민족문학예술의 생명이다.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예술은 주체성과 민족성에 의하여 빛을 뿌리게 되고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그것은 자기 나라 인민의 자주정신을 반영하

는가 못하는가, 자기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그 나라 문학예술의 운명이 결정되기때문이다. 민족의 자주정신, 민족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 자기 인민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미감에 맞게 형상을 창조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창조발전시키며 참다운 주체의 인간학으로 만들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매개 나라의 문학예술은 자기 인민의 민족자주정신과 념원을 반영한 예술적정화이다. 만약 문학예술이 인민의 자주정신과 념원을 외면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가치없는 《창조물》로 될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떠나 민족문학예술의 존재발전에 대하여 논할수 없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은 자기나라 현실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되고 건설되며 자기 인민의 민족자주정신과 념원을 옹호 반영하여 민족의 고유한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형상을 창조하여야 자체의 생명력을 발휘하게 된다.

문학예술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창조발전된다.

이러한 조건은 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 민족의 고유한 독자성을 깊이있게 보여줄것을 요구한다.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민족문학예술이 존재하고있다. 그것은 매개 나라의 민족문학예술이 다 자기 인민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반영하고있는 것과 관련된다. 문학예술은 매개 나라 인민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의 형상적반영으로서 자기나라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창조되며 그것을 창조발전시키는 사업은 나라별로 진행된다.

력사발전의 현단계에서 혁명과 건설은 민족국가로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으며 나라들마다 처해있는 사회력사적 환경과 조건들이 서로 다르다. 매개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일반적인 합법칙성을 띠고있으면서도 그 나라의 민족적 특성과 구체적현실에 의하여 규정되는 독자성을 가지고있다.

이로부터 민족의 고유한 생활에 토대하여 창조되는 문학예술은 자기의 고유한 독자성과 민족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매개 나라의 문학예술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기 민족의 고유한 독자성과 민족성을 살려 형상을 창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다.

문학예술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여 민족의 고유한 독자성과 특성을 깊이있게 반영하여야 민족적특색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을 위하여 참답게 복무할수 있다.

또한 매개 나라 문학예술이 자체의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문학예술의 보물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옳바른 길도 오직 민족자주정신을 반영하여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 그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된 민족문학예술이 민족의 고유한 생활을 떠나 있을수 없듯이 민족문학예술을 떠난 세계문학예술도 있을수 없기때문이다.

결국 매개 나라 문학예술의 운명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어떻게 구현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문학예술의 생명으로 되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강화할 때 문학예술은 인민을 위하여 적극 복무하는 주체의 인간학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는것은 또한 제국주의, 지배주의 세력의 사상문화적공세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어지는 현실태와도 관련된다.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저들의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들은 저들의 더러운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는데서 사상문화적침투에 힘을 넣어 문학예술에서부터 주체성과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온갖 반동리론과 퇴폐적인 문예작품들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문학예술의 사상적내용과 인식교양적기능을 부정하고 그 형식자체마저 기형화하는 포스터모더니즘을 비롯한 잡다한 부르조아적퇴폐주의 문예사조들과 반동적작품들을 통하여 신비주의와 극단의 리기주의를 설교하며 죽음과 공포, 고독과 절망, 허무와 방탕 등을 찬미하면서 사람들을 사상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사상문화적침투를 배격하고 자기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참다운 문학예술을 창조하려면 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해야 한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공세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의 파괴를 가져온 일부 나라들의 현실은 심각한 교훈을 주고있다. 지난날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적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창작가, 리론가들이 제국주의의 반동리론에 오염되어 문학예술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이 마치도 국제주의와 배치되는것처럼 여기면서 이른바 《세계주의》를 제창하였으며 민족문학예술의 독자성과 민족성을 거부하였다. 이들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장단에 발을 맞추어 문학예술의 《전인류적 가치》에 대하여 부르짖으며 사람들에게 계급협조,

계급타협을 설교하고 전인류적인 예술작품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예술》인것처럼 여기었다. 결국 이전 쏘련을 비롯한 여러 동유럽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이 파괴되고 부르조아문학예술이 복귀되었으며 퇴폐적인 문예작품들이 범람하는 문학예술의 《오물장》으로 전락되었다.

력사적경험은 문학예술에서 주체성을 확고히 고수하고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지 않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을 건설할수 없으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반동적인 부르조아문학예술에 용해시켜버리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점차 혁명과 건설도 망쳐먹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여 민족의 운명개척에 이바지하는 참다운 문학예술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작품창작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대하며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똑바로 가져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 목적은 작품이 자기 나라 혁명에 더 잘 복무하도록 하자는데 있다. 문학예술은 자기 나라 혁명에 이바지할 때에만 생명력을 가진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문학예술을 자기 나라 혁명에 적극 이바지하는 참다운 주체형의 문학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작품창작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현실에 맞게 풀어나가는 관점과 태도를 가진다는것은 결국은 당의 주체적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문학예술창작과정에서 나서는 제반문제들을 해결해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의 문예로선과 정책에는 문학예술에 대한 우리 인민의 자주적인 요구와 지향이 집대성되어있으며 문학예술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이 주어져있다. 우리당의 문예로선과 정책에는 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확립할데 대한 문제, 민족문화유산에 비판적으로 계승하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발전시키는 문제를 비롯하여 문학예술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게 창조발전시키는데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문제들이 전면적으로 뚜렷이 밝혀져있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작품은 당의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창조되어야 창작과정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혁명을 중심에 놓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풀어나갈수있다.

문학예술작품이 당의 문예로선과 문예정책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 혁명의 리익의 견지에서 자

기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창작되려면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거기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에 한생을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일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할데 대한 문제,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문제 등 사회주의위업 수행과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데서 제기되는 심오한 문제들을 사상주체적과제로 삼고 옳은 예술적해답을 줄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작가들은 응당 이러한 문제들을 작품창작의 사상주체적과제로 내세우고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옳은 해답을 주어야 한다.

여기서 특히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민족으로 되게 하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날 일제에게 나라를 잃고 갇은 민족적 천대와 착취를 받으며 값없이 살아오던 우리 인민에게 조국을 찾아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시었으며 미제를 쳐부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여 이 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와 민족이 둘로 갈라진 민족분단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제일 가슴아프게 여기시고 애국애족의 숭고한 사상을 꽃피워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기 위한데 자신의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인민에게 단군민족의 념을 찾아주시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민으로,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인민으로 내세워주시었다. 정녕 우리 수령님은 7천만 겨레의 자애로운 어버이시였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였으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위대한 령수이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은 이처럼 만대에 길이 빛날 수령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형상하여야 사람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여온 최대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주체혁명위업수행에 힘있게 복무하도록 고무할수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빛나게 형상하는것과 함께 민족자주정신,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작품창작에 반영하는것이 또한 중요하다.

민족자주정신은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으로 되는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려는 지향이며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민족,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이다. 작품에서는 민족자주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있게 그

려내야 사람들이 조선민족 된 궁지와 자부심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확신성있게 전진시키며 민족의 념과 정기를 빛내어나가도록 할수 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사람들속에서 이처럼 즐겨불리우고있는것은 노래에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이 잘 반영된데 있다.

가요는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의 꽃보다는 곱지 못했고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는 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사상을 예술적으로 잘 노래하였다. 민족의 궁지와 자부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새로운 생활형상속에서 감명깊으면서도 소리높이 자랑한 바로 여기에 가요가 시대의 명작으로 된 중요한 비결이 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상으로 하여 창작완성되고있는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도 민족의 운명문제를 예술적으로 잘 밝혀냄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깊이있게 반영한 우리 시대의 성과작이다.

영화는 제판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참된 애국애족의 길을 찾지 못하고 파란많은 인생길을 방황하다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진정한 삶의 궤도를 찾고 반공으로부터 련공으로의 인생전환을 가져오는 최현덕과 차흥기, 윤상민, 림은정, 진응산, 리찬을 비롯한 주인공들의 곡절많은 운명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이 자 개인의 운명이며 민족의 생명속에 개인의 생명도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그러면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참된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주인공들의 형상속에서 세상에는 위인이 많고많아도 우리 수령님이 제일 이시고 세상에는 나라와 민족이 많고많지만 내 사는 내 나라,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의 궁지와 자부심을 잘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영화는 오늘 조선의 념과 기상, 조선의 향취를 집중적으로 체현한 조선영화의 얼굴로, 주체문학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한 총화작으로, 세계적인 대 걸작으로서 해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속에서 커다란 심금을 울리고있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훌륭하게 형상하여야 한다.

민족의 우수성을 훌륭히 형상하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문학예술은 자기 나라 인민의 심리와 정서, 생활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의 고유한 우수성을 잘 형상하여야 인민의 지향과 요구, 그들의 미적감정에 맞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민족의 우수성은 주인공의 성격창조에서 집중적으로 구현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격에는 그 나라, 그 민족의 우수한 민족적특성들이 집약적으로 체현되어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단일민족이다. 슬기롭고 용감하며 불의를 미워하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며 도덕의리를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다 우리 민족이 지닌 고유한 우수성이다. 문학예술작품은 이러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성격형상에 적극 구현하여야 인민의 대표자, 민족의 대표자로서의 주인공의 형상을 훌륭히 창조할 수 있다.

오늘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시대 **김일성**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성격형상에 적극 구현하는 것이다.

김일성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수령님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지금 세상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고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김일성** 민족의 우수성으로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 민족의 민족성에서 핵을 이루는 것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이다. 수령에 대한 충효심은 **김일성** 민족의 훌륭한 민족성의 최고표현으로 되고 있으며 **김일성** 민족의 모든 새로운 우수성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한 뜻으로 뭉치는 높은 단결정신, 주체의 사회주의에 대한 혁명적신념, 조국과 혁명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과 혁명적락관주의,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를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정신도덕적우수성은 위대한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원천을 두고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높이 발현되고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들에서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책, 최현 그리고 장편소설 《철의 신념》, 《축원》, 《환희》의 주인공들인 로장섭, 한중녀, 리충현과 같은 전형들의 형상을 통하여 우리는 수령에 대한 충효야말로 **김일성** 민족의 제일생명이며 새로운 우수성이라는 것을 가슴뜨거이 느끼게 된다.

그중 장편소설 《축원》은 이 나라의 한 평범한 어머니가 자기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서 지니고 있는가를 감명깊게 그려낸 작품이다. 수령님 다녀가실 새벽길에 티하나 있을세라 쓸고 또 쓰는 어머니의 형상 그리고 선겨날에 오매에도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겹쌍인 로고로 축가신 수령님을 우러르며 종파놈들이 뭐라고 하든 수령님 한분만을 지지하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말씀올리는 어머니의 형상은 그가 지닌 충효심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한중녀어머니는 자나깨나 수령님만을 그리고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모시고 따르려는 참된 인간전형이다. 문학예술작품은 한중녀어머니의 형상에서와 같이 수령에 대한 충효심을 깊이 있게 그려내야 민족의 새로운 우수성을 지닌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빛나게 창조할 수 있다.

주체형의 인간전형을 창조하는데서 수령에 대한 충효심과 함께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을 성격형상에 적극 구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누구보다도 민족자주정신이 강하고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시대 주체형의 인간전형들이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삶의 터전으로, 행복의 보금자리로 여기고 열렬히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독립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데서 인생의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참된 인간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들의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을 심도있게 반영하여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들이야말로 계급에 충실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에 충실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도 충실하며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에서 민족의 우수성은 주인공의 성격에서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인민의 생활양식과 언어, 관습, 세태풍속같은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그런것만큼 작품창작에서 민족의 우수성을 훌륭하게 형상하여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려면 우리 인민의 생활양식과 아름다운 미풍량속, 언어, 관습 등 생활의 다양한 계기에서 표현되는 우수한 민족성을 깊이 있게 반영하여 작품에 민족적 정서와 향취가 차고넘치게 하여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키며 낡은 사상조류들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옹계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민족문화유산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을 창조발전시키는 데서 디딤돌로 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은 결코 빈터우에서 생겨날 수 없으며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 기초우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될 수 있다.

민족문화유산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속에서 창조된 혁명적문화유산도 있고 그 이전시기 선조들이 이룩한 고전문화유산도 있다.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은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의 원형이며 그 명맥을 이어주는 피줄기이다. 그러므로 작품창작에서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의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주체적인 민족문학예술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

이와 함께 오랜 력사적기간에 걸쳐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민족고전문화유산은 문학예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귀중한 재부로, 튼튼한 밑천으로 된다. 따라서 민족고전문화유산을 주체적인 립장에서 바로 평가하며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을 혁명하는 시대와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비

관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것은 민족문학예술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철저히 구현되게 창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된다. 그러므로 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에서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려면 민족문화유산을 귀중히 여기고 옹호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는 민족문학예술의 주체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위험한 사상독소이다. 작품창작에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받아들이면 민족문학예술의 성과적발전을 이룩할수 없다. 이로부터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민족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와 함께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낡고 이색적인 사상조류들은 다 문학예술의 혁명적이며 민족적인 성격을 마비시키는 반동적인 사상독소이다.

원래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은 곧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런것만큼 작품창작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배격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응당한 요구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성을 가려보지 못하고 그들이 퍼뜨리는 이색적인 사상과 퇴폐적이며 색

정적인 문학예술에 환상을 가지는것보다 어리석고 위험한것은 없다.

작품창작에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사상조류를 제때에 극복청산하지 않을 때 사회주의문학예술은 민족의 넋과 자주정신을 잃게 되며 국적불명의 잡탕문화로 변질하게 된다. 그러므로 작가, 예술인들은 사대주의, 교조주의, 민족허무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온갖 부르조아적이며 퇴폐적인 문예사조들을 철저히 반대하고 작품창작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주체문학예술건설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상과 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한 세계적인 명작들이 수많은 창작완성되는 자랑스런 성과가 이룩되어 주체문학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마련되었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오늘의 이 자랑스런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문학예술을 참답게 창조발전시키기 위한 만능의 보검으로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며 조국통일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

김일성동지를 회고하여

알베르도 느게마 온도오보노

오늘도 거리에 나서면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 헤아리시며
건고걸으신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그 자욱
이 가슴에 안겨오고
인민들과 고락을 나누시며
인민위해 바치신
그 풍모, 그 력사 눈앞에 펼쳐지여라

설레이는 군중의 환호
이내 심장 그 환호에 실려
저 멀리 산마루로 날아오르노라
내 눈길을 들어
평양의 밤거리 바라보노라면
그이께서 주신 밝은 빛
평양의 거리거리 밝게 비치여라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잡은 굳은 신념
그것은 오직 하나

항기 그윽한 대지에 뿌리박고
그이를 못잊어하는 평양과 더불어
영원히 그이를 숭배하고 따르는것

그 누가 알았으랴
그이 창조하신 모든것
고스란히 남겨놓으시고
그리도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실줄을

하나 그이는 인민의 영원한 태양
고려민족의 찬란한 희망이거니
그이의 빛발아래 자라난 수천만의 심장들
그이의 령전에 피눈물을 뿌리며 다진 맹세
저 푸른 대동강의 흐름과 더불어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필자는 적도기네시인임)

아혼아홉가지 축시법

항일무장투쟁시기 위대한 **김일성** 장군님께서 쓰시었다는 축시법은 땅을 주름잡는 술법을 이르는 말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천품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세월을 주름잡는 술법인 축시법을 쓰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많이 전해지고있다.

축시법이라 하면 시간을 줄인다는 뜻이니 일반적으로 세월을 앞당기는 술법이다. 그러나 우리의 장군님께서 쓰시는 축시법은 세월을 주름잡을 뿐아니라 시간을 늘구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려세우는가 하면 시간이 흐르지 않게 그자리에 멈춰 세우기도 하여 참으로 못부리는 조화가 없다고 한다. 그래 항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시던 아혼아홉가지 축시법전설과 함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쓰시는 아혼아홉가지 축시법에 대한 전설이 많이 나돌고있다.

그 가운데서 몇가지 전설을 소개한다.

금시계

시간은 언제나 한쪽방향으로만 흐른다. 시작과 끝이 없는 시간은 멈춰세울수 없으며 되돌려세울수도 없고 빠르게도 뜨게도 할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시간의 법칙이다.

흘러간 시간은 되돌려세울수 없는것이기에 사람들은 시간의 귀중함을 흔히 금에 비긴다.

《시간은 금이다.》

그러나 시간은 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것이다.

이런 시간을 마음대로 부리는 축시법은 술법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술법이라 아니할수 없다.

바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런 축시법을 지니고계신다는 이야기가 우리 인민들속에서 널리 전해지고있다.

금시계에 대한 이야기도 이런 전설들중의 하나이다.

어느해 봄, 경애하는 장군님을 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한 일군은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어떻게 하면 그이를 더 잘 보좌해드릴수 있을가?)

아무리 일해도 일자리가 나지 않아 일군은 안타까와하였다.

당과 국가의 사업을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산더미처럼 쌓인 문건도 순식간에 보시고 명백한 결론을 주고계시는데 자신은 앉아

뭉개고만 있으니 그는 날로 커지는 죄책감에서 헤어나날수가 없었다. 그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일하였다. 얼마나 일에 열중하였던지 화분에 물을 주는것마저 잊어버렸다.

장군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에게 그렇게 밤을 새워 일하면 며칠을 하겠는가고 타이르시며 퇴근도 일찍 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였다.

어느날, 일군은 장군님의 집무실로 찾아갔다. 장군님께서 그때 한옆에 록음기를 틀어놓으신채 무슨 문건인가 심하게 읽고계시였는데 때때로 전화도 받고계시였다. 몹시 바쁘신것만 같아 그 일군이 방을 나서려는데 그이께서는 그를 멈춰세우시고 일을 하시던채로 보고를 하나하나 들어주시신 다음 그자리에서 결론을 주시였다. 이때 돌아가던 록음기의 테프가 다 풀리자 그이께서는 곧 전화로 누구인가를 찾으시여 방금전에 들으신 노래 가사의 1절부터 3절까지 일일이 상기하시며 의견을 주시였다. 일군은 그자리에 서서 모든 광경을 직접 목격하며 놀라운 심정을 억제할길 없어했다.

여러건의 문건 검토와 비준, 장거리전화. 긴급 파업집행정형청취와 새 파업 지시...

(한꺼번에 열가지, 백가지 일을 해체끼시는 이것이 바로 축시법이구나. 그이께서는 축시법을 쓰시는구나.)

집무실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아안은 일군은 그이의 축시법을 언제면 자기도 배울수 있을가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였다. 그는 축시법을 배우려고 무진 애를 썼다.

어느날 그 일군을 부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을 잘했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면서 뜻밖에도 자신께서 차시던 금시계를 선물로 주시였다.

정말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최상의 영광이고 평가였다. 그의 가슴은 한없는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그는 또다시 일에 달라붙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일군은 일숨씨가 완전히 달라졌다. 하루는 실히 걸리던 일들이 한시간도 지나지 않아 다 수행되는가 하면 수십가지 일이 체기되어도 하루에 척척 즉석에서 처리되곤하였다. 항상 모자라서 찢찢매던 시간이 남아돌아가게 되였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는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혹시 나도 그이의 축시법을 체현한게 아닐가?)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갔다. 장군님께서

는 본때있게 일을 해제끼는 그 일군이 대견하시여 그가 휴식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일군은 집무실에서 나오며 여느때없이 크게 울리는 손목시계의 초침소리에 귀를 강구었다. 순간 그는 장군님께서 차시던 금시계가 자기에게

촉시법을 체현하게 한것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초한초를 천금보다 더 귀중히 여기라는 장군님의 뜻이 담겨있는 금시계는 그에게 촉시법을 체현하게 한것이였다. 아니 그이의 뜨거운 사랑이 그에게 촉시법을 지니게 한것이였다.

우리 당의 붉은기

오피천

말해주는구나
력사의 자욱을 승리로 아로새기며
시대의 하늘가에 높이 날리는
우리 당의 붉은기가

위대한 수령을 모시여
공산주의운동의 새 시대를 펼쳐온
대통운의 력사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영광의 나날이
네 기폭에 다 어려있어라

지난날
나라를 빼앗기고
진정한 당이 없어
짓밟히우고 쫓기우던
우리 인민이였다

문노니
그 누가 이 땅우에
세계를 움직이는
강철의 당을 세워주시고
자주의 삶이 만발하는
사회주의락원을 꽃피워주셨는가

오, 우리 당의 붉은기여
《ㄷ. ㄷ》의 밝은 해불로
우리 당의 강령을 새겨
위대한 수령님 높이 드신 기발이여
주체의 새 시대를 개척해오신

빛나는 한생이 어려있는 붉은기여

오늘은 그 붉은 기발의 퍼덕임으로
모진 시련과 광풍을 헤가르며
일심단결의 성새우에 높이 휘날려
주체의 붉은노을 지구우에 뿌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아, 우리 살아온 가장 큰 기쁨
우리 누려온 가장 큰 행복
인민이 력사의 주인임을
자주의 한길우에 진리로 떨치며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긴
우리 당의 붉은기여

《ㄷ. ㄷ》의 억년초석우에 마련된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새 세계의 선봉대
영광과 존엄으로 빛나는 강철의 당이 있어
인민의 만복이 꽃핀 행운의 세월을
기폭이여 네가 다 말해주누나

아, 네가 말해주는구나
우리 당의 붉은기
승리와 영광, 존엄의 기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여
영원한 세기에 백승을 떨쳐갈
조선로동당기여

잠 못 드신 그밤에

상강과 립동이 서로 맞잡은 절기여서 바람이 건듯 불어도 우수수 락엽이 진다.

찬공기를 헤가르며 문수-토성행 궤도전차는 경쾌한 동음속에 통일거리로 씩없이 달린다.

차창밖에서 불어오는 서늘하고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밖을 내다보니 어느덧 락랑다리가 물러가고 웅장한 통일거리의 전경이 눈앞에 흘러온다.

넓디넓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량편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현대식 고층살림집들, 조화롭게 어울려 거리의 풍치를 웅장하고 이채롭게 해주는 아가자기한 조각상들이 우리를 마중온다.

고구려의 무사를 련상시키는 말타는 사람을 형상한 조각이며 풀먹는 염소를 잡아끄느라 싱갱이 질하는 아이, 뿔싸움하는 황소, 공을 가지고 재주를 부리는 코끼리, 반가운듯 서로 코를 맞잡고 《악수》를 하는 두 코끼리, 공을 타고 위엄을 부리는 호랑이를 비롯하여 제나름의 재롱을 피우는 다양한 형상의 조각들이 비쳐들어 마치 자연동물원을 지나는 기분이기도하다.

그것들을 보며 동심이 되살아나는듯 사람들은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움에 잠겨있었다.

그러던 전차안의 공기는 순간에 잦아들었다.

《통일광장》에 들어서는 차창밖에서 조각 《통일의 합수》, 《통일의 열망》이 또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갔기때문이라.

하늘을 자유로이 훨훨 날으는 비둘기인양 분단의 끊어진 철조망을 넘어 분렬의 고통을 안고있는 북과 남의 두 소녀가 치마폭을 날리며 량팔을 쭉 벌리고 얼싸안을듯 마주 달려오는 모습.

그것은 예로부터 하나의 지맥으로 잇닿은 땅이 외세에 의해 둘로 동강난 그때로부터 어린 반세기, 그 기나긴 나날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에 쌓이고 맺혀 용암마냥 이글거리는 통일의 열망, 통일조국의 래일에 대한 희망과 락판을 안겨준다.

우리 온 겨레가 그토록 바라고바라는 통일!

무심히 스쳐보낼수 없는 이 조각을 보는 순간 이 땅에 통일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기 위하여 잠 못 드시던 아버지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안겨와 눈시울이 젖어든다.

조국을 해방하는것이 지난날에는 나의 당면과업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조국을 통일하는것이 자신의 당면과업이라 하시며 통일위업에 모든 정력을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

우리의 생활이 날로 흥성이고 윤택해질수록 우리 수령님의 마음속엔 언제나 분렬의 고통을 겪

고 있을 남조선인민들의 가공한 모습이 가슴아프게 새겨져있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 창밖에서 찬바람이 불어도, 눈이 오고 비가 와도 남녘동포들부터 걱정하시며 구재물자도 보내주시었고 화려한 설맞이공연무대를 보시면서는 굶주림과 병마에 시달리는 남녘의 어린이들을 두고 마음쓰시지 않았던가. 그리고 새로운 저수지의 건설장을 찾으실 때면 가물에 울 호남벌농민들을 생각하시었고 부흥할 조국의 설계도를 구상하시고 하나의 공장을 세우시어도 남녘인민들을 위하시는 마음으로 더 훌륭하고 더 웅장하게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우도록 하신 수령님.

쉽없이 이어지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분렬의 아픔을 향시 안고있는 사람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아픈 마음을 가셔주시고 반드시 오고야말 통일의 그날을 위해 우리 더 많은 일을 하자고 고무해주신 우리 수령님.

이 땅에 흐르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통일된 하나의 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 어느 한 밤도 편히 쉬신적 없으시었다.

잠도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때로는 끼니마저 건넬시며 우리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가시었다.

오늘도 우리 가슴 뜨겁게 울려준다. 주체 63(1974)년 어느 여름밤에 있던 이야기.

해별에서 온종일 울어대던 풀매미들도 지친듯 조용히 잠들어버린 깊은 한밤중이었다.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 생각이 더 나 가슴이 미여지게 아프다시며 그밤도 우리 수령님께서 사람들은 단잠에 깊이 들었건만 조국통일의 새 방책을 무르익히시느라 집무에 여념없이였다.

자정도 훨씬 지나 동이 터울무렵,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일군을 전화로 찾으시었다.

전화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새벽4시를 가리키고있는 시계를 보며 그 일군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이 새벽에 어떻게 수령님께서 쉬지 못하시고 전화로 나를 찾는것인가.

그 일군은 아버지수령님께 정중히 인사의 말씀을 올리였다.

《동무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동무도 피곤한 모양이군. 조국통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지...》

수화기에서 울려오는 그이의 음성은 분명 피로에 젖어있었다.

그 얼마나 로고가 겹쌍였으면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목소리가 저렇게까지 변하시었을가 하고 생각하니 그의 가슴은 무거운 중압에 눌려운듯 답답해졌다.

그때 그가 수령님께 왜 아직 주무시지 않으시는가고, 새날이 밝아오는데 1시간만이라도 쉬여달라고 간절히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어쩐지 잠이 오지 않아. ... 백두산에서 싸울 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지금 나라를 통일시키지 못했으니 더 못자고있소. 나도 통일된 다음 밀렸던 잠을 한번 꼭 자보고싶소.》

잠이 그리우시면서도 분렬된 조국을 두고 잠이 오지 않으신다는 그이의 말씀이 전류를 타고 그의 가슴에 뜨겁게 흘러들었다.

순간 그는 그이를 받드는 전사의 한사람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해 말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새벽녘 한때의 안녕마저 지켜드리지 못한 자책감에 몸부림쳤다.

그는 수령님께 년세가 한해두해 자꾸 높아가는데 통일문제때문에 밤에도 잠 못드시니 정말 안타깝다고 말씀올리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한참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나도 환갑이 지났으니 늙었고 동무들도 늙어가고있소. 우리는 할 일을 다 못했소. 우리는 꼭 우리 손으로 조국을 통일해야 하오. 조국통일문제때문에 나는 늙소. 통일만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같소.》

외세의 강요로 하나가 둘로 분렬된 그때부터 수십년세월 통일문제로 그 얼마나 심려하시였으면 그이의 머리에 흰서리가 내리었고 오죽했으면 통일이 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 같다고, 통일은 꼭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고 또다시 절절히 말씀하시는것인가.

수령님의 통일의지에 감복되어 밤하늘의 무심한 별들도 걱정예 목매여 더 반짝이는듯싶었다.

어둠속에서 새날이 밝아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그이께서 통일위업에 바치신 이런 로고의 밤들이 있어 통일의 지름길은 밝혀지게 되었다.

우리 수령님께서 지어 자신의 탄생일 밤마저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심혈을 바쳐오시였으며 때로는 달리는 렬차안에서 현지지도길우에 쌓이고 쌓인 피로를 푸실사이도 없이 애국애족의 열정을 담아 조국통일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한조항한조항 다듬어나가시었다.

이러한 불멸할 로고의 나날이 있어 해방직후 가장 복잡했던 시기 남북련석회의장에서 애국의 통일선언이 장엄히 울리게 되었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

이며 적극적인 통일방안들이 세상에 태여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민족의 통일념원을 담아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헌장!

여기에는 하나의 조선, 하나의 민족에 대한 그이의 위대한 사랑이 뜨겁게 굽어치고있다. 그것은 민족분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조국을 후대들에게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크나큰 뜻과 불굴의 의지가 담겨진 통일의 대헌장이다.

하나의 조선! 이것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심혼이 깃들어있는 사랑의 전부였고 희망이고 미래였으며 평생의 숙원이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 일제에게 짓밟혀 수난당하던 조국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며 어리신 나이에 제일먼저 익히신 말은 **《조선독립》**이였고 항일혁명시기 10대의 그 나이에 처음으로 지으신 노래도 **《조선의 노래》**가 아니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내 나라, 내 조국을 찾기 위해 백두령봉에서, 만주광야에서 불바다를 넘고 피바다를 헤치시여 강도 일제를 쳐부실 때 그이의 가슴속에 간직된것은 삼천리 금수강산 하나의 조선이었다.

실로 그이께서 바라신 조선은 분렬된 조선이 아니라 백두산천지로부터 한나산의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련연히 이어진 하나의 조국이였고 5천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 온 겨레가 한강토에서 단란하게 사는 통일독립되고 부강번영하는 조선이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은 우리 인민에게 삶의 보금자리인 통일조국을 가장 큰 선물로 안겨주시기 위해 헌신하신 위대한 로고의 력사였다.

언젠가 통일의 애국인사를 만난 자리에서 **《나의 근심걱정은 오직 하나, 아직 조국을 통일하지 못한것입니다.》**

나는 자나깨나 그 언제나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눈을 감을것 같아 걱정하고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우리 수령님이시다. 그래서 그이께선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업적을 쌓으시고도 이제는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만민의 념원을 마다하시고 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려 위대한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초진장상태에서 일하시였던것이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통일의 대사변을 맞이하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80고령의 년로하신 몸으로 주체83(1994)년 6월말과 7월초사이에만도 북남최고위급회담준비와 관련하여 매일같이 수십차례에 걸치는 간곡한 가르치심과 10여건의 친필교시를 주시면서 더욱더 정력에 넘쳐 일해오신 수령님.

생의 마지막날도 온밤 통일문건을 보아주시는 그이께서는 심신에 닥쳐온 아픔도 강인히 애써 누

르시고 통일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길 그날을 그리시며 활달한 필체로 《김일성 1994. 7. 7》이라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존함을 새겨주셨다.

이렇듯 민족분렬의 력사와 더불어 흘러온 장구한 나날은 민족의 통일숙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우리 수령님께서 통일에 대한 사색으로 지새우신 밤들의 련속, 위대한 로고의 나날이었다.

오늘도 그 모든 날들의 밤과 새벽은 그이께서 밝히신 통일의 지름길로 이어지고있다.

주체83(1994)년 새해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시며 장시간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께서 전화로 나누신 말씀도 통일에 대한 문제였고 생의 마지막날밤에 주고받으신 전화도 통일문제였으니 통일조국을 마련해가시는 길에 바쳐진 전설같은 이야기 세월이 흐른다한들 조국은 잊지 못하며 하나의 강토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은 대를 두고 길이길이 그 업적 전해갈것이다.

우리 수령님의 조국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 강직한 통일의지를 그대로 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그이께서는 어린시절에 벌써 분렬의 아픔을 안으시고 가슴아파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어서 커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 수령님께 기쁨 드릴 결심을 굳히시였고 남으로 뻗은 끊어진 고압철탄선을 보시고 그것을 이으실 자신의 사명감을 더욱 절감하시였다.

그러한 우리 장군님이시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우리는 아침에 깨어나도, 잠들 때에도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조국통일을 수령님대에 기어이 이룩해야 한다고, 조국통일은 반드시 경애하는 수령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해야 한대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다 걸머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서시여 겹쌓이는 혁명의 모든 난국을 단신으로 헤쳐오시였다.

그 나날에 우리 장군님 겪으신 슬픔은 얼마나 컸으며 우리 장군님 지새우신 밤과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맞으신 새벽들은 그 얼마였던가.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자옥을 따라 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시며 이 나라 수천수만여리에 달하는 최전연의 전선길들을 쪽잡과 꿰기밥, 죽물로 끼니를 에우시며 씹없이 주름잡아 달리시였다. 그 길은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어린 사회주의조국의 운명, 인민의 안녕을 지켜주시기 위한 길이였으며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영광에 찬 로정이었으니.

오늘도 그날의 산천초목들은 전선시찰의 길우에 수놓아진 전설같은 이야기 우리의 뇌리에 생동한 화폭으로 펼쳐준다.

평범히 흘러가던 날들중의 즐거운 어느 일요일 이른새벽, 우리의 장군님께서 인민을 행복의 단잠에 재우시고 적진이 한눈에 안겨오는 최전연 초소—관문점에 나오시였다.

이 나라에 한분밖에 안계시는 절세의 위인을 분계선초소에 맞아서인가 하늘도 신비경을 펼쳐놓았다.

장군님의 신변안전을 위해 그이께서 초소에 도착하시자 갑자기 적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적진을 뚫고 안개속에 묻어놓았다.

안개속에 잠긴, 50여년동안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아픈 못으로 새겨진 원한의 분계선 넘어 적진을 노려보시는 그이의 안광에선 백두의 호랑이와 같은 노기가 번쩍이었고 그이의 얼굴엔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시교야말 백두위인의 기상이 어려있었다.

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오신 수령님의 로고가 가슴뜨거이 안겨와 수령님생전에 통일을 이루지못한것이 가슴에 맺히시여 언제나 통일에 대한 사색으로 낮과 밤을 이으신 우리 장군님.

위대한 사색과 로고로 력사적으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신분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다.

하기에 인류는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을 숭고한 높이에서 받들실 통일의 구성은 오직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한분뿐이시라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는것이다.

남녘의 한 동포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누구보다 걱정하시며 통일을 위해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로작을 받고보니 그분이야말로 조국을 통일하실 통일의 장군이시라고 자기의 격정을 터치였다.

그렇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은 빛나게 실현될것이다.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몰아오신 통일렬차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따라 변함없는 자기의 궤도를 타고 줄기차게 달려나갈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 온 겨레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모신 통일잔치상에 둘러앉아 반세기이상 쌓이고쌓인 가슴속울분을 통일의 축배잔으로 씻어내고 그리움에 얼싸안으며 통일의 춤을 출 그날을 그려본다.

그러면 통일거리로 달리는 우리의 귀전에 들려오는듯하다. 그날의 통일광장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통일조국의 령수로 모신 궁지에 넘쳐 7천만 겨레가 높이 부르는 만세의 환호성이.

그때가 되면 저 통일군상으로 서있는 북과 남의 두 소녀도 오늘의 미래가 아니라 현실속의 산

인간으로 되어 통일의 광장에서 화목한 친형제로
되어 힘껏 포옹할것이다.

통일의 축포가 오르는 그날 끊어졌던 철길을
다시 잇고 통일열차가 북남의 겨레들을 모두 싣
고 평양에서 서울로, 한나에서 백두로 자유로이

오가며 삼천리 이 강산을 주름잡아 달릴 통일의
그날은 꼭 오고야말리라!

본사기자 신경애

가을의 연백벌

최병원

연백벌에 가을이 왔다
푸르른 하늘아래
끝없이 설레며 속삭이는
이삭의 물결 이삭의 물결...

다투어 이 가슴에
어리광치듯 안겨드는
나락에 묻혀 이랑에 묻혀
나는 듣는다 벌의 속삭임을

벌이여 설레며 속삭이는 벌이여
누렇게 익어가는 이삭의 물결
그 어느 이랑이랑우에
수령님 그날의 환하신 미소를 실었느냐
그 어느 포전 어느 논머리에서
그이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 들려주는것이나

붉은기 더 높이 추켜들고
백배로 일떠선 연백벌사람들

처창즈의 그 피어린 발이랑에
마음들을 얹어놓고
구슬땀으로 벌을 덥히고
더운 숨결로 벌을 뽀이며
난알을 익혀온 이 가을

너는 속삭인다
못잊을 그날 아버지앞에 아뢰인
우리의 맹세
-수령님 마음 놓으십시오

장군님 더 잘 받들고
농사를 잘 짓겠으니
다시는 이 험한 두렁길을 걷지 마십시오!-

뼈에 새기고 심장에 새긴 그 맹세
벌이 안고
가을의 하늘아래
설레는 이삭의 물결에 실어
끝없이 속삭이며 되뇌이나니

듣는가 하늘이여 땅이여
온 나라가 귀기울여 듣는
연백벌의 설레임소리
그것은 그 어떤 광풍이 불어와도
세상이 다 듣는 신념의 말
세월의 눈비에도 지워지지 않을
영원한 말
더 부강해질 내 조국의 래일이 이어들을
희망의 말
장군님 어깨우에 무거운 짐이 덜어질
기쁨의 말

아, 하늘땅에 차고넘친 그 속삭임
뜨거운 대지의 말이여
천년이 가고 만년이 가도
그 말은 노래처럼 울려가리
연백벌은 푸르른 하늘아래
억만이삭의 속삭임을 안고
영원히 영원히 설레이리라

이날을 기억하라

리성애

10월

설레이는 가로수들도
붉게만 타는 잎 흔들며
이날의 열정을 더해주누나

위대한 장군님 우러리
만세의 환호성 강산을 떨칠 때
나는 보았다
젊은 엄마품에 안겨
까만 눈 반짝이는 귀여운 아기를

목이 터져라 만세 부르는 엄마를
영문몰라 바라만보는 아기가
너는 이제 알게다
네 엄마의 얼굴에
왜 기쁨에 찬 눈물이 흘렀는지

네 얼굴너머로
수풀처럼 솟았던 손들은
어찌하여
그렇듯 환희로이 설레었던가를

눈빛 총총한 귀여운 아기가
너는 이제 걸음마를 떼겠지
너의 통통한 두발을 안아줄
우리 공원의 저 푸른 잔디를 보아라
그 잔디 언제나 푸르러 너를 반기듯
너의 인생도 그렇듯 푸르고 창창하리라

너는 이제
그 어깨에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겠지
땅이 꺼져라고 뛰어다닐
해빛밝은 인민학교
저 넓은 운동장을 보아라

그리고
동심의 고운 나래 펼치며
네가 춤추고 노래 부를
저 소년궁전
숫아 번쩍이는 지붕을 보아라

아기야
너는 이제 21세기에 살게 될
미래의 공민
너는 언제 한번

구걸로 내밀지 않을 존엄높은 그 손에
자랑스런 우리의 공민증을 쥐게 될게다

보아라
너의 어린 꿈을 싣고
하얀 연이 날을 저 푸른 하늘을
보아라
알뜰한 학습장에 네가 그려넣을
저 푸른 강과 산들을
기쁨에 넘친 우리의 거리들을

아 넓고넓은 들판이
너를 위해 더 풍만한 오곡을 자래우고
우리의 밝은 태양이
너를 위해 더 밝게 빛날
무궁한 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리라

위대한 김정일동지
그이를 높이 모신 오늘이 있어
너의 행복 길이 지켜줄
우리 땅이 영원하고
너 21세기의 밝은 앞길을
존엄높은 사회주의조선의 공민으로
활기에 넘쳐 걸어가려니

아기야, 너 오늘을 기억하라
환희의 꽃보라
소리높이 터져올라 내릴줄 모르는 오늘을
더 붉어진 우리의 당기발이
10월의 푸른 하늘을
노을처럼 물들이는 오늘을

네 맑은 눈동자에 길이 간직하거라
저 근엄한 장령의 얼굴에
소리없이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네 작은 가슴에 길이 새겨두거라
이 행성 끝까지
멀리멀리 메아리쳐가는 환호성을

너 태어난날 기억하듯
이날을 기억하라
너 어머니 얼굴 기억하듯
기억하라
너희들 미래에 보내는 저 축복의 메아리
그것은 영원한 세월을 내다보는
이 시대 사람들의 신념의 메아리이다

금골의 환호

최광조

경사로운 밤이다
발과공들아
금골이 들썩하게 발과소리 울리자
우리의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셨으니
축포를 터치듯 발과환호 터치자

감격에 설레이는 이날
그 얼마나 크나큰 경사인가
해종일 금산을 들었다놓던
환호의 메아리는 사라졌어도
가슴에 고괘치는 걱정외 파도
이 한밤 지새도록 잠재울수 없구나

저봐라
김정일장군님 만세 높이 부르며
이제는 목이 쉰 동발공 운전공들
평양하늘 우리러 감격에 눈물지으며
춤추며 노래하던 전차공 부선공들
금골이 온통 그대로는 잠들수 없어
저렇게 막장으로 달려오지 않았느냐

이런편
발과공이 한몫해야지
웨쳐도 웨쳐도 못다웨친 그 환호
터쳐도 터쳐도 못다터친 그 걱정
천만마디 환호와 맹세의 말을
열렬하고 진함없는 금골의 목소리를

발과의 퇴성으로 높이높이 울려야지

그러면
그이께서도 들어주시리
금골의 목소리가 힘이 난다고
쇠소리가 난다고 기뻐하시리

아무렴
그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 마음 잘 아시는
우리 당의 총비서

언제나 우리 당은 금골을 믿는다고
나라일 첫자리에 세워주시고
《고난의 행군》길에 추켜든 붉은기도
마천령 산정높이 휘날리게 하신분
오늘도 금골의 발과소리를
장군님의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검덕의 맥박으로 헤아리고계시려니

울려라 더 크게 신념의 메아리로
말로는, 만세로는 못다웨칠 이 경사
눈부신 금돌을 산뿌리채 안아내는
장쾌한 대발과의 환호성으로
이 세상 끝까지 전해가자
이 기쁨 이 영광
길이 길이 펼쳐가자

영원한 우리의 스승

최정용

불같이 산 그 한생애
언제 한번 교단에 서신 일 없었어도
경건히 우리 부르는 그 이름
김형권선생님!

못잊어
오늘도 찾아온 선생님의 동상
이글거리는 눈동자며 굳게 다문 입술

불굴의 기상어린 그 모습 우리러
이 가슴 뜨거움에 젖어든다

붓이 아니라
불뿔은 권총 손에 잡으신 선생님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사무친 인민의 원한을 담아
침략자를 단호히 징벌한

그날의 그 총성으로

벽에 걸린 칠판앞에서 흰백묵으로가 아니라
두손 두발에 족쇄를 채운 감방에서
진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던가
서슬푸른 못판을 맨발로 걸어
점점이 물들여간 그 붉은 피로

결코 굶힐수도 꺾일수도 없는
그 기상 그 정신 앞에서
원썩들은 전를했거니
말과 글로가 아니라
한몸 불태워
강철보다 굳센 혁명정신
목숨보다 귀중한 혁명가의 절개를

우리 심장에 심어준
아, 김형권선생님이시여!

조선혁명의 첫 새벽길을 헤치며
길지 않은 한생은 그 시절에 끝났어도
오늘도 천만심장에 타는 불로
선생님의 모습은 빛나고있거니

아, 함께 가고있어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 따르는
우리 혁명의 앞장에서
고결한 삶의 진리로 우리 가슴 불태워주며
영원한 혁명전사들의 스승이 되시여
오늘도 우리 함께 가고있어라

불멸의 총성이여

리금녀

후지령의 매운 바람
그날의 총소리 되새겨주는가
불같은 자욱이 여기 있어
파발천기슭의 서리꽃
그리도 정갈하게 피어나는가

가난에 시달려
망국의 설움에 묻혀
세월의 흐름속에 사라져가던
두메산촌에 울린 총성
그것은 힘이였고
그것은 희망이었다

아 파발리
수령님 추켜드신 항일의 기치아래
조선혁명군 소조원이 되시여
력사의 고장에
김형권동지 올리신
첫 총성이여

반일애국의 더운 피 가슴에 끓이며
일제야수를 단방에 처단한
그 총성
침략의 무리들을 전를케 했거니

그 총성엔 있었다

추녀낮은 동기와집
배고파 우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화전민마을
고달픈 인생살이를
해방의 봄으로 감싸주는 빛발이

거기엔 다 있었다
강토 삼천리를 구원하고
온 겨레가 화목하게 살아갈 래일이
반만년 유구한 력사를
피로써 찾아야 할 투쟁의 철리가

철쇄로도 묶지 못하고
단두대로도 꺾지 못하는
조선의 신념
민족의 의지를 다 담은
파발리의 총소리

아, 우리 혁명의 진군길을
피로써 열어간
불굴의 투사 김형권동지
그날에 올리신 불멸의 총성은
투쟁과 승리의 메아리되어
오늘도 래일도 세월을 넘어
우뢰처럼 이 땅을 진감하여라

풍요한 이 가을

김광춘

마치 그대들의 걸음에 실려온
풍요한 가을만 같다
이 아침도 금물결 설레는
두렁길을 못떠나는
미더운 우리 병사들

온 한해
그대들은 누구보다 멀리 걸었다
넓고넓은 이 벌을
더 넓게 밟고밟으며

두엄퍼던 들판으로
랭상모 파릇파릇 새 잎을 여는
모판길로
결전의 고지마냥 뛰고 달리던 그 자욱
장군님 명령을 심장에 안고
가슴가슴 불태우던 자욱자욱

두렁과 두렁
마음과 마음 하나로 합쳐
아버이 그 유혼 받드는 길에
모내는 벌뿐이라
김매는 들뿐이라
군민의 힘찬 노래 울려퍼진곳은

이삭도 이해의 이삭은
더 무거워야 한다고
손수 연장틀고 땀을 흘릴 때
달빛이 내려고이던 그 자욱

별빛이 따라 흐르던 그 자욱

스쳐버린 한대의 돌피를 두고
강냉이밭 몇그루 충하를 두고서도
스스로 구김살간 병사의 량심을 비쳐보며
마음속의 돌피도 충하도 함께 없애버리며
벌을 뜨지 못하던 그대들

두렁길이 끝나도 이어진 길
포전길이 끝나도 이어진 걸음
장군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려는 병사의 길
백리라 천리라

그대들의 자욱우에
실한 이삭들 무겁게도 떠실렸거니
별은 그 벌이여도 더 넓어만진듯!

오, 황금물결 설레이는 이 가을을 향해
그대들 걸은 멀고먼 그 길은
정녕 영원한 태양으로 우러러모신
수령님의 그 해빛으로 함께 가꿔온
군민일치의 열매익은 이해의 길이었거니

정말 잘 익었다
쭉정이 하나 없이 이 가을이
이 가을을 안아
장군님 뜻을 받드는 그 마음이
아, 풍요한 이 가을
군민의 힘이 무르익었구나

노들섬

리영환

1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매지구름이 떠가는 하늘에서는 이따금 번개불이 번쩍이고 저 멀리에서 천둥소리가 울려오곤 하였다. 비발은 가늘었지만 바람은 세차게 불었다.

리병원 앞마당에 서있는 늙은 버드나무는 산산이 가지를 풀어헤치고 태질하듯 몸부림쳤다.

지금 병원앞마당에는 비를 흠뻑 맞은 농장원들이 저저마다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병원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안달아했다. 무슨 일인지 병사들이 문앞에 버티고서서 그들을 들어놓지 않았다.

습하고 더운 비바람에 섞여 열에 뜬 농장원들의 목소리가 병원문을 두드렸다.

《군대가 부상당했다고 병사들만 피를 뽑는 법이 어디 있소. 우리 농장원들의 피도 받아주소.》

《내 피는 0 형이란말이요. 어서 들어가게 해주소.》

《여기가 도대체 농장병원이요, 군의소요. 왜 못들어간다는거요.》

대위의령장을 단 군의가 비물인지 눈물인지 땀인지 얼굴에 내뿜은 물방울을 손으로 훔치며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농장원들을 설복시켰다.

《여러분, 조용들 하십시오. 인젠 수혈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 아시고 돌아가주십시오.》

그 소리가 끝나기도 바쁘게 불만스러운 비난들이 물방으로 터져올랐다.

《거짓말이요.》

《우릴 속이자는게요. 우릴 들여놔주시오.》

농장원들은 들어가겠다거니 병사들은 못들어간다거니 하며 한참동안 싱갱이질이 벌어졌다.

이때 관리위원장 주병섭이 나타났다. 키가 구척 같고 얼굴에 수염터가 거뭇거뭇한 그는 척 보기에 위엄스러워보였다.

농장원들이 기대어린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길을 비켜주었다.

두눈섭이 짙고 건뚱 들린 턱으로 하여 역세여 보이는 주병섭은 곧장 문앞에 서있는 병사앞으로 다가갔다.

《내 관리위원장이요.》

《압니다. 그래도 못들어갑니다, 이젠 명령입니다.》

병사는 명령을 집행할 의무만 있다는듯 깔끔하게 눈시울을 내리깔았다.

병섭은 리의 호주가 병원에 들어갈수 없다는 것이 어이없었다. 그렇다고 성을 낼수도 없고 완력 행사를 할수도 없어 듣기 좋게 사정하였다.

《상등병, 부상당한 최진학대대장은 나의 옛전우요. 딱친구란말이요. 아마 내가 왔다면 그 사람이 인차 정신을 차릴게요. 응, 상등병.》

상등병은 존경어린 눈길로 주병섭을 바라보며 생각을 굴리더니 진심을 읽은듯 문을 열어주는 것이었다.

병섭은 사람들이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입원실로 향하였다.

입원실에는 머리에 붕대를 동인 최진학대대장이 자는듯 누워있었다. 뽀족한 코, 빠른 턱, 가뜩이나 칼칼한 그의 얼굴이 피기까지 없어 석고상처럼 싸늘해보인다. 머리맡에는 방금 수혈을 끝낸듯 점적대가 놓여 있다.

병섭은 요긴한 때 쓰려고 구해놓았던 혈장을 군의에게 넘겨주며 환자의 머리맡에 주저앉았다.

최진학은 이따금 타들타들 말라터진 입술을 감뻘며 괴롭게 미간을 찌프리군하였다.

고통속에 모대기는 진학을 바라보는 병섭의 마음은 그뚱지 않게 아팠다.

최진학과 주병섭은 펠레야 펠수 없는 연고관계를 가진 오랜 옛 전우이다. 그들은 새 군복을 입고 군인선서를 하던 신대원때부터 제대될 때까지 전연초소에서 함께 군사복무를 한 사이이다. 훈련도 같이 하였고 초소군무도 같이 나가군하였다.

지금도 제대될 때의 일이 눈앞에 선히 떠오른다.

병섭은 농업대학에 추천받았고 진학은 군관학교로 가게 되었다. 그들은 초소가 바라보이는 링마루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서로 눈물이 글썽한 채 그러진 손을 놓지 못했다.

《진학이, 자넨 체육대학에 가려고 했지. 아마 평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서운해할거야. 앞으로 후회하지 않겠어?》

《아니... 병섭이, 우린 헤어지지만 언제나 함께 있다고 생각하자. 넌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전신을 지키고 난 여전히 초소를 지키고...》

《그래그래, 편지나 자주 해라. 내 이다음 돼지랑 수박이랑 한차 싣고 자네가 있는 초소에 찾아가게.》

《그래주면 우리 병사들도 좋아할게야. 우린 초소는 서로 다르지만 사회주의를 지키는 한 전선에 서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자구.》

이렇게 헤어졌던 그들은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다. 군대가 농업전신을 지원할데 대한 당의 뜻을 안고 올해 봄 최진학이 부대와 함께

주병섭이네 농장마을이 있는 노들섬으로 농사를 도우러 왔던것이다. 그날 그들은 짝 잉켜붙어 떨어질줄 몰랐다. 진학은 관리위원장이 된 병섭을 바라보며 가슴을 쿡쿡 쥐여박았고 병섭은 대대장이 된 진학을 얼싸안고 상봉의 환희를 어떻게 터뜨렸으면 좋을지 몰라 빙빙 돌기만 했다.

그날부터 그들은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억척같이 농사일을 해제겼다. 병사들은 농장의 크고작은 일을 도맡아나섰다. 오히려 그들이 농장의 주인이 된듯싶었다. 적어도 노들섬에서만은 논벼는 정당 8톤, 강냉이는 7톤 내야 한다고 욕속 하며 100프로 령상모를 하고 100프로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찍어 읍겼다. 제철에 강냉이영양단지를 한타에 벌써 강냉이들은 통통 여물고 수염이 마르기 시작하였다. 올해 강냉이농사는 확고하게 정당 7톤을 내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어제저녁 적지 않은 무더기비가 쏟아져 내려 노들섬에 위험이 닥쳐왔다. 대홍강의 물이 건잡을수 없이 불어나 사뭇치며 흘렀다. 황토물은 야금야금 제방을 갈아먹더니 석축을 무너뜨렸다.

제방이 뚫리고 물이 밀려들면 한해 농사가 헛수고로 되고만다.

하여 군대와 농장원들이 떨쳐나 제방막이전투를 벌렸다. 여기저기 해불이 타고르고 서로서로 어깨걸고 《적기가》를 부르며 제방앞에 버티어섰다.

그런데 물우로 떠내려오던 통나무가 최진학의 정쟁이를 후려쳤다.

진학은 정쟁이에서 피가 흘렀지만 날이 밝을 때까지 견디어냈다.

새벽이 되어 비는 잠잠해지고 제방은 구원되었다.

하지만 진학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오게 된것이다.

이 모든것을 돌이켜보니 병섭은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오르는것이였다. 정녕 군대들이 아니였다면 제방이 어떻게 뚫렸는가? 농장원들의 힘만으로는 제방을 지켜내기 어려웠을것이다.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다. 먹장구름이 낮추 떠서 빠르게 흘러간다. 번개가 지끈하고 버드나무우에서 터지더니 우뢰소리가 지진처럼 땅바닥을 울린다.

점점 비발이 굵어진다.

주병섭은 저으기 마음이 무거워오는것을 느꼈다. 그도 그럴것이, 방송에서는 비가 계속 내릴것이 예견된다고 거듭거듭 보도했기때문이다.

노들섬이라고 레외로는 될수 없다. 어제밤 제방을 막느라고 가마니며 마대며 바줄따위를 다내다췄다. 이런 형편에서 더 큰 비가 내린다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제방을 막아야 하겠는지 막연하기만 하다.

최진학이와 토의하면 무슨 방도가 나지겠는데 그는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 힘이 되고 의지가 되던 최진학이 없는것으로 하여 주병섭은 가슴한귀통이가 무너져내린듯 허전하기만 하였다. 이런때 기적이 일어나서 최진학이 깨어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애오라지 전우의 소생을 바라는 그마음이 극진했던지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다.

최진학이 눈을 뜬것이다.

간호원이 기쁨에 젖어 가볍게 흐느꼈다.

진학은 한동안 천정만 멍청히 바라보더니 이어 정신을 가다듬은듯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는것이였다. 그의 눈길은 병섭의 얼굴에 와서 멎어섰다.

그는 수심에 잠긴 병섭의 얼굴에서 고민의 흔적을 보았는지 괴롭게 미간을 찌푸렸다.

다시금 천둥이 드르릉 울렸다. 세찬 비발이 창문을 두드린다. 밖에서 웅성이는 사람들의 열띤 목소리도 들려왔다.

최진학은 일어나앉으려고 모지름을 썼다. 군의가 다가와 어깨를 눌렀으나 그는 입술을 강물고 일어나앉았다. 그의 눈빛은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되지요. 내가 누워있으면 농장원들이 비를 맞으며 그냥 서있을게란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야지요.》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그 눈빛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군의는 뒤걸음치며 중얼거렸다.

《정신이 들었군요.》

최진학은 마치 한잠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혼연히 대꾸하는것이였다.

《내가 오래 누워있었는가요?》

누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후드득 후드득 비떨어지는 소리만이 방안을 울린다.

최진학은 비내리는 창밖을 오래도록 내다보았다. 그러더니 이어 누구에게라없이 서운한 소리를 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여기에 모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후더운것을 삼키며 움직일념을 안했다.

최진학은 안간힘을 쓰며 침대에서 내려섰다. 그리고는 상의를 찾아입는것이였다. 그는 아프지 않는척 하려 했지만 두손과 두다리는 떨리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돌아났다. 군의가 급기야 자기의 의무를 깨달은듯 팽정하게 잘라 말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대대장동진 후송돼야 합니다.》

순간 최진학의 눈빛이 섬광처럼 번쩍했다. 그는 설레설레 머리를 저었다.

《나를 생각해주는건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기를 떠날수 없습니다. 현훈증이 일어나 좀 누워있었으니 아무일 없을것입니다.》

최진학은 애써 웃음을 지어보였다. 웃는다는것

이 도리어 얼굴이 이지러졌다. 그는 주병섭에게 담배 한대를 좀 달라고 했다.

《관리위원장, 옛정을 생각해서 날 좀 도와주구려. 관리위원장이나 나나 다같이 최고사령관동지 앞에 올해 농사를 책임지지 않았다. 그런데 물에 잠기게 된 노들섬을 보면서 떠난다는게 말이 되오.》

주병섭은 진학이 깨어나기를 그토록 바랬으나 지금은 도리어 그가 정신차린것이 후회되었다. 물불을 모르는 저 사람이 또다시 무리하여 쓰러지면 어떻게 하랴. 농사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뜨거운 심정에 머리가 숙여진다.

《관리위원장, 병사시절 강행군하던 일이 생각나오. 내가 힘들어하면 동무가 뒤에서 밀어주고 동무가 목말라하면 내 물통의 물을 주곤했지. 그때처럼 날 좀 도와달란 말이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고 누가 할 소릴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 주병섭은 그대로 있으면 눈물을 보일것 같아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에익! 사람두!》

그리고는 방을 나와버렸다. 최진학이 일단 결심하면 그 고집을 누구도 꺾지 못한다는것을 잘 알기때문이다.

병섭은 밖으로 나왔다. 세찬 비발이 그의 몸을 휩쌌다. 농장원들이 대대장의 병세가 어떤가고 이 구동성으로 물었다. 주병섭은 얼굴을 들어 비물과 함께 찢절한것을 표시며 대답을 못했다.

잠시후 문이 열리고 최진학이 나왔다.

농장원들이 달려와 우르르 그를 둘러쌌다.

최진학은 그들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내며 웃어 보였다.

《여러분, 어서 돌아가주십시오. 지금 누구하나의 신상때문에 모여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비를 보십시오. 우린 어떻게 하나 저 비를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가책을 받는듯했으나 선뜻 움직이지는 않았다.

최진학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갔다. 약간 비칠거리군 할 때마다 군의가 부촉하였다. 병사들이 달려와 그의 어깨우에, 머리우에 천막을 씌워 주었다. 병사들에게 웅위된 최진학은 병실쪽을 향하여 곳곳이 걸어갔다. 그는 주병섭을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눈길을 보냈다.

《관리위원장은동무, 큰물피해를 어떻게 막겠는가 농장원들과 한번 의논해보오. 난 병사들과 토론해 보겠소.》

주병섭은 비바람을 헤쳐나가는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못박힌듯 서있었다. 군대들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에 흘러든다. 저들은 군대들이기에 앞서 성실한 농사군이다. 저들과 함께라면 두려울것이 없을것 같았다. 불어나는 강물로부터 제방

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겠는지 아직은 이렇다할 방도가 없지만 막연하던 생각은 사라져버린다.

2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관리위원회회의실에서는 농장초급일군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사람들은 외양간의 기둥을 뿔아다 박든, 쌀자루를 털어다 모래를 채워 쌓든, 빨래줄을 걸어쓰는 한이 있더라도 제방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한결같이 말했다. 제방을 지켜내는가 못지키는가 하는 문제는 올해 노들섬농사를 제대로 짓는가 망치는가 하는 운명적인 문제였다. 《고난의 행군》을 결속하려는 올해에 농사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머리를 들고 저 벌을 바라볼수 있으랴. 주병섭은 토론을 다 듣고나서 작업반장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농장일만 농장일이라고 하지 말고 군대동무들 생각도 좀 해야겠습니다. 군대동무들이 어제밤 꼬박비속에서 새웠는데 뭔가 후방사업을 해야지요.》

관리위원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반장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일어났다.

《그건 공연한 걱정입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벌써 뜨근뜨근한 우유를 다 덥혀왔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풋강냉이를 삶아왔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저... 탁배기를 담귀웠는데... 일 없겠는지요.》

사람들이 와그르르 폭소를 터뜨렸다.

주병섭이 책상을 탕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왜 하필 탁배기요. 이왕이면 맑은술을 한동 내오. 추운데 한모금씩 마신다고 무슨 큰일 나겠소.》

《그러면 제 딸년 잔치때 쓰려고 장만한 <동양술>이 있는데 그걸 내겠시다.》

무슨 단고기국이며 두부탕이며 콩나물북음이며 꿀물이며 와작 떠들어대는데 통신원처녀가 뛰어 들어왔다. 비에 흠뻑 젖은 처녀는 먼길을 달려온듯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관리위원장아저씨, 저... 저...》

사람들의 시선이 일시에 처녀에게 쏠렸다.

한동안이 지나 처녀는 기여드는 소리를 했다.

《군대동무들이... 군대동무들이... 떠난대요.》

주병섭과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듯 놀라며 뛰어 일어났다.

《떠나다니?!》

실로 청천벽력같은 소리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처녀는 그것이 안타까운모양 발을 동동 굴렀다.

《군대들이 줄을 서서 나루터로 가는걸... 제눈으로 봤어요... 관리위원장아저씨, 빨리...빨리 가

보지요.》

주병섭은 최면술에 걸린 사람처럼 멍하니 굳어져버렸다. 이런 때 군대들이 떠나다니… 다음 정신이 든듯 소리쳤다.

《뿔들 하고있소. 사실이든 아니든 빨리 나루터로 가봅시다.》

그는 성급히 책상우에 퍼놓았던 책을 치우며 뒷달아 댔다.

《거 작업반마다 음식장만한걸 다 가지고 나오시오.》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뿔뿔이 흩어져갔다.

사무실에 돌아온 주병섭은 비웃을 대충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폭우가 쏟아진다. 발밑에서 침범침범 소리가 난다. 그는 물을 걷어차며 정신없이 걸었다. 지금 이 시각도 군대들이 떠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군대들이 하는 일이니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급하게 떠날리아 있는가.

저 멀리 뽀얀 비발속에 움직여가는 행군대오가 보인다.

정말 가는가? 일시에 맥이 탁 풀리며 온몸이 나른해진다. 그는 길옆에 서있는 백양나무밑으로 들어가 기대여섰다.

최진학에 대한 야속한 감정이 차오른다. 아무리 군대가 하는 일로서거니 귀찮이라도 하고 떠나면 안된단 말인가. 그래가지고도 옛 전우라고… 최진학을 만나 한바탕 화풀이라도 하고싶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불안스럽고 어깨가 무거워진다. 군대들이 없는 제방전투를 생각하니 눈앞이 아득해졌다. 밀려드는 홍수, 쓰러지는 버머강냉이들…그는 환각을 몰리치듯 두손을 허우적거렸다. 잘못하면 한해 농사가 거덜이 나는 판이다. 그렇게 되면 이 주병섭은 뭐가 되는가? 올해에 들어 군적으로 제일 일잘하는 관리위원장으로 회의때마다 칭찬을 받아왔다. 얼마전에는 신문기자가 사전을 찍어갔고 생산경기에서 1등을 하여 순회우승기를 탔다. 이 모든 명예의 밑바닥에는 농사를 성실히 도와준 군인들의 땀이 스며있다.

이랬든저랬든 짧은 관리위원장이 일을 잘한다는 평판이 도에까지 뜨르르하게 퍼졌다.

하지만 이제 큰물피해를 막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영예와 우승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것이다. 더우기는 그토록 품을 들인 이해 농사가 녹아난다. 그것은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이다. 대학졸업, 농장기술지도원으로 2년, 농장기사장으로 3년, 이어 관리위원장… 순조롭게 내달리던 인생이 이 순간에는 무의미하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주병섭은 누군가 뛰여오는 소리에 생각에서 깨여났다. 물창을 걷어차며 달려온 사람은 뜻밖에도 최진학이었다.

병섭은 그를 만나면 노여움을 터뜨릴듯싶었으

나 정작 마주서고보니 반가움과 기쁨이 솟구치는 것이었다.

《아니, 성한 몸도 아닌데 어딜 그렇게 뛰여가나?》

진학은 턱으로 흘리내리는 비물을 손으로 뿌려던졌다.

《자네른 찾아가는 길일세. 급히 토론할 일이 있어서…》

주병섭은 가라앉았던 고까움이 차오르는것을 느꼈다. 부대를 철수시켜놓고 간다는 인사나 하자고 오겠지. 그는 섭섭한 푸념을 늘어놓았다.

《너무하구만. 그래도 간다면 간다고 미리 말해주면 못쓴다던가. 그렇게 훌 떠나버리면 우리 농장원들이 얼마나 서운해하겠나.》

최진학은 병섭이 무언가 오해하고있다는것을 알았다.

《가다니? 그건 무슨 말인가?》

주병섭은 짙은 눈섭을 사납게 치뜨며 저 멀리 가물거리는 행군대오를 가리켰다.

《뭘 눈감고 아웅하나. 정 이럴대인가?》

최진학은 별안간 폭소를 터뜨렸다.

《이 사람아, 우린 가는게 아닐세.》

주병섭은 진짜로 성이 나서 대들었다.

《그럼 저 군대들은 어디로 간단말인가?》

《그들은 지금 대홍산으로 가는 길일세.》

《대홍산?!…》

대홍산이란 대홍강을 거슬러 100여리 올라가있다. 그 옛날에는 대낮에도 범이 어슬렁거렸다는 험산이다.

주병섭은 무슨 영문인지 알수 없어 머리를 긁거렸다. 군대들이 갑자기 거기에는 왜 가는가?

최진학이 말했다.

《자네와 미리 토의하지 못해서 미안하게 됐네. 비는 계속 내리지, 그러니 뭘로 제방을 막겠나. 그래서 우리 병사들이 대홍산에 나무를 찍으러 가자고 결의해나선거네. 나무를 찍어 내려오자는 결세.》

주병섭은 가슴이 쿵 울리는것을 느꼈다. 그래서였구나. 그런것도 모르고 자기는 군대들이 떠난다고 얼마나 실망해 했던가. 하지만 대홍산의 나무를 찍어온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강을 건너 100리 가파로운 평길을 뚫아올라야 한다.

최진학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길옆에 있는 강냉이밭으로 뛰여갔다. 그는 강냉이 두이삭을 뜯어가지고 왔다. 오사리를 벗기고 그것을 주병섭이 앞에 내민다.

《어떤가? 이젠 강냉이들이 다 여물지 않았나》

통통 영글은 강냉이알들이 촘촘이 박혀있다. 이제는 익을대로 다 익었다. 만약 이번의 비만 아니라면 며칠 더 있다가 가을해도 그만일것이였다.

최진학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신나게 설명하였다.

《우리 병사들은 이 강냉이를 앞당겨 수확하고자 하네. 벌판에 세워놓고 말리우나 뜯어서 말리우나 이젠 말리우는 일만이 남지 않았다. 그럴바에는 이번통에 아예 이것도 따들이자는걸세.》

머리우에서 터지는 우뢰소리가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잠시후 진학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강냉이들은 따들이고 강낭대들은 멍석을 엮잔 말일세. 이제 나무를 찍어다 말뚝을 박고 강낭짚 멍석에 흙을 채워 제방을 쌓으면 이번 비는 건디여낼거야. 어떻게 하든 저 버들이랑 곡식들을 지켜내야 할게 아닌가.》

주병섭은 은연중 가슴이 부풀어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럴듯하다. 나무로 말뚝을 박고 강냉이망태기를 쌓는다. 그 무슨 발견을 한듯 환희로운 감정이 차오른다. 이 훌륭한 착상을 병사들이 했다는것이 실로 대견스럽고 놀랍기만 하다. 농장원들은 고작 집울타리 말짱을 뽑아낼 생각이나했지 이렇듯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은 상상도 못했다. 군대들의 결심을 실천만 하게 되면 강냉이수확은 강냉이수확대로 앞당겨지고 큰물피해는 큰물피해대로 막을수 있다.

《관리위원장, 어땠가? 뭉측하지. 우린 이번에 아예 화를 복으로 전환시켜보세 그러자면 빨리 강냉이를 따들여야 하네. 이거야말로 전투일세.》

주병섭은 저도 모르게 최진학의 두손을 짚고 러쥐었다. 웬일인지 이 순간에 병사시절에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언젠가 그들 둘은 런대선수로 뽑히어 마라손경기에 나간적이 있다. 그들은 맨앞에서 나란히 달렸다. 그런데 마감고비를 앞두고 주병섭이 자꾸 뒤떨어졌다. 최진학이 뒤에서 등을 밀어주며 속삭였다. 《주저앉으면 안돼. 조금만 더 힘을 내게.》 주병섭은 안간힘을 쓰며 사정하였다. 《더는 못뛰겠어. 동무만이라도 1등을 하게. 그러다들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나. 나를 내버려두고 빨리 뛰라구.》 진학은 못들은척 하며 계속 등을 밀었다. 《그렇게는 안돼. 나혼자 1등을 해서는 뭘하나. 우린 런대선수야. 런대의 명예를 생각해야지.》 최진학은 끝까지 병섭을 이끌고 달렸으며 결승선에 이르러서는 주병섭을 먼저 결승선으로 떠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날 경기에서는 주병섭이 도리어 1등을 하게 되었다.

최진학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 자기의 명예에 앞서 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동지를 먼저 생각하는 진짜배기 인간이다.

최진학은 바로 그때처럼 주병섭을 이끌고 달리고있다. 이제 가을에 가서 풍년이 들면 누가 표창을 받겠는가. 모든 명예와 축하의 꽃다발은 주병섭을 향하여 날아들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주병섭은 한순간이나마 전우

를 오해한 자신이 야속스럽게 생각되었다. 아울러 이런 전우, 이런 군대들이 곁에 있는 한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심이 차오른다.

주병섭은 최진학의 팔을 잡아끌었다.

《정말 군대들의 일본새가 달라. 여보게, 빨리 나루터에 가보세. 떠나는 군대들에게 인사라도 해야지.》

《인사는 무슨 인사. 급선무는 강냉이전투를 서두르는걸세.》

두 전우는 흠족하여 마주보며 나루터를 향해 걸어갔다.

나루터에는 벌써 대홍산으로 가는 군대들이 배에 올라타고 떠날 준비를 하고있었다.

어느새 달려나온 농장원처녀들이 김이 문문 나는 우유를 권하는가 하면 가다가 먹으라며 삶은 꽃강냉이가 든 보자기를 넘겨주기도 했다.

병사들과 처녀들은 비속에서도 웃고 떠들어댔다.

《처녀동무들, 이제 비가 몇으면 우리 군민무도회를 한번 본때있게 해봅시다.》

《어마나. 왜 무도회뿐이에요. 체육경기도 하지요.》

《좋습니다. 노래경연이면 노래경연, 료리경기면 료리경기 이 노들섬이 들썩하도록 한바탕 즐겨봅시다.》

1중대장이 최진학을 발견하고 달려와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진학은 단 한마디만을 했을뿐이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동무들을 지켜보고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떠나시오.》

농장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세척의 배가 미끄러져갔다.

최진학은 오래오래 손을 흔들며 병사들을 바랬다.

주병섭은 점점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며 뜨거운것을 삼켰다. 우리 병사들! 이제 저들은 머나먼 100리길을 강행군할것이다. 그리고는 설짚도 없이 나무를 찍을것이다. 캄캄한 밤에 메아리치는 수림속의 도끼질소리가 급시 귀가에 들리는듯싶다. 그다음 때목을 타고 사뭇치는 강물을 흘러내릴것이다. 군대들이 아니고야 이 일을 어떻게 해내랴. 이 모든 간고한 투쟁은 오로지 농사라는 그 하나의 일때문에 진행되는 전투일따름이다.

농사를 위해 바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이 바라누는것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주병섭은 자신도 군사복무를 한 제대군인이지만 오늘 병사들의 심정을 다 알것 같지 못했다.

병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살며 싸우는가?

사회주의 제일선은 누가 지켜섰는가?

3

무서운 폭우가 쏟아져내렸다.

하늘을 찢어갈것 같은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하늘땅이 무너지는듯한 굉음이 울리곤했다.

온 천지가 물속에 뽀얗게 잠겼다.

노들섬은 무섭게 범람하는 대홍강물에 떠밀려 급시 떠내려갈듯 위태롭게 몸부림쳤다.

최진학은 강상류쪽 제방에 천막을 치고 지휘부를 옮겼다. 그는 상부와 무선결속을 하고 수시로 정황을 보고하곤하였다.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간밤 농장원들과 군인들은 치열한 철야전투를 벌렸다. 한쪽에서는 강냉이를 따들이고 한쪽에서는 강냉이를 베어놓히고 한쪽에서는 강낭짚을 엮어나갔다. 어둠과 비바람속에서 군민은 한덩어리가 되어 완강히 고난을 뚫고나갔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데다가 예상치 않게 바다쪽에서 해일까지 밀려올라와 노들섬 제방은 찰랑찰랑 물이 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어지간히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아올무렵 주병섭이 야전지휘부 천막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때 최진학은 대공전화기로 상부에서 온 전화를 받고있었다.

주병섭은 방금 제방을 돌아본 상태를 급급히 설명했다.

《대대장동무, 큰일났소. 물이 넘어나기 시작했소.》

최진학은 조용하라고 손짓하며 정중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숨엄하고 절절한 표정이 어렸다. 한동안이 지나 전화기를 놓은 그는 감동은 젖은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관리위원장동무, 지금 여기 서해안지역에는 전례없는 해일이 밀려와 방조제들을 무너뜨리고 있소.》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부대들에 비상동원령을 내리어 패해막이 전투를 벌리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소.

그리하여 지금 수많은 군인들과 비행기들까지 동원되어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를 벌리고 있소.》

최진학은 눈물이 글썽하여 말을 잊지 못하였다. 그의 얼굴에는 자기들이 일을 잘못하여 최고사령관동지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죄스러움이 진하게 어려있었다. 그는 비탈치는 허공을 바라보며 갈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부대에서는 우리에게 수륙량용전차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순간 주병섭은 가슴이 확 열리는듯싶었다. 수륙량용전차들까지 동원되어 제방을 막아주면 노들섬은 끄떡없을것이다.

최진학은 주병섭의 손을 잡아 흔들며 안타까이 부르짖었다.

《관리위원장동무 생각엔 어떻소? 우리가 꼭 수륙량용전차를 받아써야 하겠소?》

주병섭은 아연해졌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한단말인가. 한초한초가 새로운 때다. 그는 남의 말을 하듯 중얼거렸다.

《지금 제방은 위험한 처지에 있네. 나무를 찍으러 간 군대들도 아직은 돌아오지 않았네. 이런 상태에서...》

최진학은 실레실레 머리를 저었다. 그라고 수륙량용전차를 받아쓰면 좋다는것을 왜 모르랴. 그는 이미 모든것을 각오한듯 단호하게 잘라 말하였다.

《아니요. 수륙량용차는 우리보다 해일피해를 막는 전투장에 돌려야 하오.》

그는 대공전화기를 들고 차렷자세를 취하며 간 단명료하게 보고하였다.

《련대장동지, 노들섬은 저희들의 힘만으로도 지켜낼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위원장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수륙량용전차를 다른데 돌려주시시오.》

주병섭은 최진학의 행동이 돌보이면서도 어딘가 서운한 생각도 없지 않았다. 벌써 물은 넘어나기 시작했는데 나무를 찍으러 간 전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앉아있을 수 없어 농장원들이 울타리말짚이라도 뽑을라고 하면 군대들이 성나서 말리곤하였다. 이런진대 어떻게 하면 중단말인가?

최진학이 비웃을 걸치며 말했다.

《나는 우리 전사들을 믿소. 우리 전사들은 인차 돌아올게요. 관리위원장동무, 강냉이수확은 다 끝냈소?》

《다 끝냈소.》

《새벽에 한번 제방을 돌아봤는데 쌍바위쪽이 무너질 위험이 있더군요. 그쪽에 한번 가보지요.》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비발이 얼굴을 후렷했지만 말없이 걸었다. 발밑에서 철버덕철버덕 물소리가 났다. 여기도 저기도 물천지다. 최진학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말을 건넨다.

《이렇게 물창길을 건노라니 병사때 잠복근무를 서던 일이 생각나누만. 생각나나? 우리가 간첩을 잡던 일을 말이요.》

주병섭은 심드렁히 머리를 끄덕이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마당에서 그때 일을 상기시키는것인가.

비내리는 밤이었다. 그들은 검푸른 물결이 유유히 흐르는 강가의 초소에서 근무를 섰다. 밤은 깊어가고 강물은 불어나면서 그들이 은폐한 좌지로 물이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물은 가슴노리에 까지 차올랐다. 온 주위가 물바다에 잠기기 시작하였다.

주병섭은 신호끈을 당기여 최진학에게 철수하자고 하였다. 비오는 이 깊은밤 강기슭에 있는 산밑으로 옮겨간다고 무슨 큰일이 나겠는가.

하지만 최진학은 고집스럽게 떠나서는 안된다

고 하였다. 결국 그들은 물속에서 하루밤을 꼬박 밟혔다. 새벽이 되어울무렵 그들은 강물우에 떠오른 《머구리》를 발견하였다. 최진학이 날쌔게 사격하였다. 하여 그들은 짝꿍같이 기여드는 간첩놈을 잡았다.

그날 주병섭은 얼마나 심심히 자기를 뉘우쳤던가. 자기의 말대로 산기슭으로 이동했다면 적간첩을 놓쳤을것이다. 임무수행에서 한치의 예누리도 없는 최진학의 높은 책임성앞에 깊이 머리를 수그리었다. 이것은 주병섭의 생활에서 심각한 교훈으로 남아있었다.

최진학은 그때처럼 오늘도 혁명임무수행에서 한치의 드림도 없다. 땀방울이 제대로 자라지 않으면 숨웃이며 요포를 내다 씹워 버모를 자래웠으며 가물이 들어 곡식이 마를 때에는 밤을 패면서 물지게로 물을 길어다 부었다. 그의 뒤를 따라 병사들도 하나같이 그렇게 했다. 그들은 오직 명령관철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정신밖에 몰랐다.

주병섭의 생각은 점점 깊어갔다. 그런데 나는 이들처럼 살고있는가? 병사시절의 그 심장을 그대로 간직하고있는가? 농사를 잘 지어야 명예가 빛나게 된다고 자기만을 생각해온 어제날이 되새겨지며 부끄러워진다. 어딘가 모르게 달라진 자기의 정신을 들여다보고 최진학이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초소근무이야기를 예둘러 한것 같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문득 제방쪽에서 처녀들의 탄성이 터져올랐다.

주병섭은 그쪽을 바라보았다. 처녀들이 두손을 흔들며 바라보는 저 멀리에서 넘실거리는 황토물에 실려 폐목이 떠내려오고있다. 폐목우에 서있는 병사들이 들쭉뭉음을 흔들어댄다.

아! 왔구나!

주병섭은 서둘러 제방가로 달려나갔다.

하나 둘... 폐목들이 기슭에 와닿기 시작한다.

맨먼저 뛰여내린 병사가 소담한 머루송이를 두손으로 움켜쥐고 처녀들에게 내어민다.

《처녀동무들! 병사들의 선물이요!》

먹음직스러운 머루송이들이 처녀들의 손에 손을 거쳐 주병섭의 손에까지 와닿았다.

주병섭은 입안에 신물이 스프르 도는것과 동시에 두눈에 물기가 핑 도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병사들이 왔다. 이렇게 오는것을 나는 왜 믿지 못했던가.

최진학은 그것을 확고하게 믿었으며 차례진 수륙량용전차를 다른데로 돌렸다. 그것은 자기 힘

을 믿고 자기의 힘으로 모든것을 뚫고나가려는 자력갱생의 정신이 투철하기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제힘을 믿지 못하고 남을 바라보는 의존심에 매달려있지 않았던가. 바로 여기에 최진학과 자기의 정신적차이가 있는것이다.

병사들은 구체적인 작업지시가 없었지만 벌써 자기가 할바를 찾아했다. 한쪽에서는 도끼로 폐목을 찍어내고 한쪽에서는 톱으로 자르고 한쪽에서는 말뚝을 박아나갔다. 그뒤로 강낭짚명석을 퍼고 처녀들이 질통으로 흙을 날라다 넣었다. 그것을 망태기처럼 둘둘 말아서 제방을 쌓아나갔다. 서있는 사람이 없었다. 누구나 뛰여다녔다. 최진학이도 질통을 지고 뛰고있었다. 후송되어야 할 몸이건만 아랑곳없이 달리고 또 달린다. 여기는 말그대로 총포성 없는 결전장이다.

주병섭은 온몸이 뜨거운 열풍에 휘말려 떠오르는듯싶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병섭은 1211고지의 가렬한 전투를 눈앞에 보는듯싶었다.

이제는 제방이 구원될것이 불보듯 뻔하다. 눈앞으로 황금물결 설레이는 노들섬이 환영처럼 스쳐지나간다. 이 땅에 풍년이 올것이다. 그 풍년 열매는 우리 군대들의 희생정신에 떠받들려 무르익은 충성의 열매일것이다.

주병섭은 오늘에야 비로소 군대들의 마음을 다 아는듯싶었다. 그들은 결코 농사일만을 도와주려 온것이 아니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실천해야 하는가를 산 모범으로 보여주려 왔다. 이러한 군대이기에 우리 농장원들은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이다. 정녕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될 때 못해낼 일이 무엇이라.

주병섭은 이 철의 대오에서 떨어질가봐 겁이났다. 그는 질통을 지고 최진학의 곁으로 다가갔다. 비웃도 웃동도 다 벗어제긴 최진학은 흙사람 같았다. 그는 주병섭의 두눈에서 새로운 결심을 읽은듯 빙그레 웃었다.

《병섭이, 우리 병사시절처럼 뽕내기를 해보지 않겠소?》

그 말은 주병섭의 가슴속에 큰 메아리를 일으켰다.

주병섭은 뽕곤을 추슬러올리며 혼연히 대꾸했다.

《좋네, 그러나 다시는 결승선에 나를 밀어던질 생각은 말게.》

두 전우는 마주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리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제날 병사시절처럼...

이해의 가을풍경을 두고...

박미선

올해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의 제일선, 오늘의 《1211고지》인 농업전선에서 군대와 인민이 함께 이룩한 자랑스런 성과를 취재하기 위해 나선 나는 여기 명천리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붉은기 휘날리는 벌에서는 농장원들과 인민군 군인들이 한데 어울려 즐겁게 웃고 떠들며 가을걷이를 다그치고있었다.

젼싼 숨씨로 벼포기들을 베습히며 서로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하듯 일손을 다그치는 농장원들과 군인들... 그야말로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치는 농장벌이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결에 좌- 좌- 설레이며 황금파도를 일으키는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갯바다, 온 들판을 진동하며 가슴빠근하게 풍겨오는 흐뭇한 낱알향기...

볼수록 장관인 그 광경에 취해 한참이나 넋을 잃고 바라보던 나는 저도 모르게 논두렁길을 따라 논벌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알알이 영글어 무겁게 드리운 벼이삭들이 나를 반겨맞듯 나의 발에 척척 와 감긴다.

나는 잘 여문 벼이삭 하나를 골라 뽑아들었다.

총알처럼 여물어 하나같이 충실한 벼알들을 하나하나 세여보느라니 나의 가슴은 찌르르해났다.

어딜 가나 흔히 볼수 있는 벼이삭이고 해마다 보아오는 가을풍경이지만 이해의 가을풍경은 왜 이다지도 우리를 격정에 목메이게 하는것인가.

얼마나 사연많은 올해의 농사작황이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켜주는 이해의 가을풍경인가.

올해의 날씨는 초봄부터 번덕스러워 농사짓기에는 더없이 불리했다. 번덕스러운 날씨와 60년래의 왕가물로 봄에는 팽상모들이 얼어들고 여름에는 피타게 자래운 곡식들이 말라들었다. 거기에다 또 해일피해까지 겹쳐들었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으로 하여 영농자재와 비료 등 모든것이 부족하였다.

이렇듯 류레없는 악조건속에서 마련한 작황이기에 결코 무심히는 바라볼수 없는것이다.

하다면 이처럼 간고한 조건과 혹심한 자연피해속에서 이렇게 착실한 작황을 마련한 힘은 과연 무엇인가.

벌에서 만난 분조장 박동무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인민군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처럼 알찬 결실을 이룩할수 없었을것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고 밤새 강행군을 하여 농장에 도착한 군인들, 그들은 배낭을 벗어놓고 바쁘게 벌에 달려나와 벌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장군님의 명령대로 올해에 기어이 만풍년의 가을을 안아오기 위하여 시련도 고난도 농장원들과 함께 겪으며 농장원들의 앞장에서 혁신의 구슬땀을 흘리었다. 그 과정에는 정말 감동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지난 7월중순이었다.

근 한달째나 계속되는 왕가물로 논바닥에는 왕금이 가기 시작하고 강하천들과 샘물들도 말라들었다. 봄부터 군민이 힘을 합쳐 가꾸어온 곡식들이 초들초들 말라들었다. 그런데도 하늘에는 구름 한조각 보이지 않고 찌는듯한 피약벌만이 따갑게 내리지졌다.

가물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대책들이 세워졌다. 허나 농장이 의거하고있는 기본 물원천인 명천강이 가물로 수위가 낮아져 양수기들에 만부하를 걸수가 없었다. 그러다나니 모든 포전들에 물을 제대로 대줄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해결방도를 찾기 위해 모색하며 안타까와하고있을 때 인민군군인들이 명천강을 막치고 제기해나섰다.

명천강을 막다니...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명천강을 어떻게 막는단말인가. 사람들은 고개를 기웃거렸다.

하지만 인민군군인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강이 아니라 바다라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병사들의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이렇게 떨쳐나선 군인들은 그길로 명천강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의 뒤를 따라 온 리, 온 농장이 떨쳐나섰다.

명천강을 막기 위한 치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전투장에는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힘있게 울려 퍼지고 구호들이 나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신명령을 철저히 관철하자!》

《병사여, 명천강을 막기전에는 조국의 마른 땅

을 밟지 말자!》

무거운 흙가마니를 메고 달리는 전사들, 터지는 물구멍을 몸으로 막아나서는 전사들… 전투장은 그야말로 전화의 그날 가렬처절했던 1211고지격전장을 방불케 했다.

그리하여 단 사흘만에 명천강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양수기들이 기운찬 동음을 울리며 돌아갔고 포전마다에는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흘러들었다. 말라 들던 곡식들이 푸르싱싱하게 되살아났다.

포기마다에 생기를 주며 흘러드는 맑은 물,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군군인들과 농장원들이 내려쫓이는 피약벌밑에서 심장을 달구며 흘리고흘린 무수한 충성의 땀방울들이 모인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정화수였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고많았다.

주체농법은 장군님의 명령이라며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애쓴 이야기,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기 위해 밤새워가며 한 전사가 10파상씩의 모를 뺐다는 이야기, 날이 저물어서도 포전을 떠나지 않는 전사들을 설복하다 못해 분조장이 지휘관에게 어서 철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사정했다는 이야기, 농장사람들이 포전에 나가는 시간을 아무리 앞당긴다 해도 병사들을 따를수 없었다는 이야기…

분조장동무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이라면 산도 떠옮기고 사품치는 물결도 몸으로 막아나서는 우리 인민군군인들, 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육탄정신이 그대로 알찬 이삭이 되어 대지에 무겁게 드리운것이 아니겠는가.

분조장동무는 이렇게 자기 말을 끝맺었다.

《우리 마을에 처음 군인동무들이 왔을 때 우리는 인민군대를 농업전선에 파견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뜻을 미처 다는 몰랐습니다. 그저 일을 제끼는 힘있는 군대가 왔으니 이제 혁신이 일어날것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날이 감에 따라 우리는 군대를 농촌에 파견해주신 우리 장군님의 그 뜻의 원대함과 깊이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해 군인동무들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혁명적군인정신이 어떤것인가를 실체험으로 깨닫게 되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우리 군인동무들처럼 심장으로 접수하고 육탄으로 관철해 나갈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 명령이 내려 그들이 떠나간다 해도 그들이 남긴 정신과 기풍, 일본새는 우리의 심장속에, 생활속에 영원히 남아있을것입니다. 이것을 어찌 몇톤의 낱알에 비기겠습니까.》

정말 사무치는 걱정 없이는 들을수 없는 말이였다.

군대와 인민이 한전선에서 어깨결고 고난도 시련도 함께 이겨내면서 인민은 군대의 정신과 기풍, 일본새를 따라배우고 군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을 더 튼튼히 키우게 하며 농업전선에서부터 《고난의 행군》 최후승리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시려는것이 바로 장군님의 뜻이였다.

그 참 뜻을 우리는 농업전선을 지키는 올해와 간고하고도 영웅적인 투쟁속에서 가슴벅차게 체험하였다.

그 뜻에 따라 사람들의 정신도 자랐고 곡식도 알찬 열매를 맺었다.

이 한해 간고한 투쟁속에서 사람들은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며 그 어떤 고난속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적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실생활을 통해 체득하였다.

이 필승의 정신을 안고 우리는 올해 《고난의 행군》 최후돌격전에서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따라 승리해나갈것이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을 타고 벼이삭 설레이는 소리마냥 물결치며 파도치며 하늘땅을 쨍쨍 울리고 가슴을 광광 울리는 소리,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이 함께 부르는 승리의 만세 소리, 희망찬 미래를 띠고하며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발걸음맞춰 나아가는 총진군의 힘찬 함성소리였다.

정말 무심히는 바라볼수 없는 가을풍경이였다.

이 한해는 길이길이 새겨두고 추억할만한 사연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신념의 해, 승리의 해이다.

문학예술의 대중화실현의 앞길을 밝혀준 불멸의 대강

리기백

오늘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높이 추대한 커다란 기쁨과 감격을 안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우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자》** 발표 15돐을 뜻깊게 맞이하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71(1982)년 11월 15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이 보다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국문학통신원열성자회의를 마련하시고 회의참가자들에게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었다.

주체70년대에 들어와 우리 문학예술앞에는 당 제6차대회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이 중요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서는 바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과학적인 방도를 뚜렷이 밝히심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로 하여금 명실공히 자주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현실에 맞는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참다운 문학예술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하여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하여서는 전문 작가, 예술인들의 역할을 높이는 동시에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한다는것은 노동자, 농민, 병사들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널리 참가시켜 대중적인 지혜와 힘으로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한다는것을 말합니다.》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

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이며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문학예술을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노동자, 농민, 병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을 문학예술활동에 참가시켜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문학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나아가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도록 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광범한 근로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그들의 지혜가 발동되어야만 문학예술을 사회주의 현실의 요구에 맞게 빨리 발전시켜나갈수 있으며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생활을 생동하게 반영한 참신하고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의 정신문화적재부의 창조자로서 무궁무진한 예술적지혜와 창조적능력을 소유하고있다. 특히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파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과학기술이 비상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인민의 지성세계가 날을 따라 끊임없이 높아지고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을 문화예술창조사업에 광범히 인입시키고 그들의 지혜와 재능이 마음껏 발휘될수 있도록 조건을 잘 지어주고 전문지식을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면 군중문학예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문학예술을 대중화하는 사업의 높은 목표로서 온 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웅대한 전망을 펼쳐주시었다.

온 나라의 예술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맞는 높은 문화적소양과 예술적자질을 갖추며 모든 인민이 문학예술의 향유자로 될뿐아니라 그 참다운 창조자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다.

사회에 모든 성원들이 문학예술활동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누구나 다 글도 짓고 그림도 그리며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며 악기도 다루고 복도 칠줄 알게 하는것이 바로 온 나

라 예술화방침의 혁명적진수이며 기본요구이다.

온 나라의 예술화가 실현되면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의 향유자로 될뿐아니라 참다운 창조자로 될것이며 문학예술은 그야말로 광범한 인민대중의 참가밑에 더욱 활짝 꽃피어나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온 나라의 예술화를 성과적으론 실현하려면 문학예술사업에서 광범한 인민대중모두가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야 한다.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여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 상응한 높은 사상의식과 문화적소양, 예술적자질을 소유한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튼튼히 키우는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헌에서 문학예술의 대중화,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을뿐아니라 그 수행에서 문학통신원들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구체적인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지위와 역할을 밝혀주시면서 그들이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며 온 나라를 예술화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문학통신원들은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자기의 본신과업을 수행하면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신인으로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고 온나라를 예술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선구자들이며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이다.

그러므로 문학통신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창작사업에 투신할 때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게 된다.

문학통신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과학적으로 정식화됨으로써 지난 시기 분산적으로 진행되던 군중문학창작사업이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활발히 벌어지게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다음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기 위한 문학통신원들의 과업과 그 수행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로작에서 밝혀진바와 같이 오늘 우리 문학예술앞에 나선 기본임무는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 인테리화 하는데서 나서는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새 시대의 참다운 인간전형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문학통신원들이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당정책적요구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의 본질

과 그 의의를 옳게 형상해내야 한다.

문학은 작가의 사상의 반영이며 작가는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생활을 형상한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절실한 문제를 체현하고 있는 종자도, 새로운 사상미학적문제설정도 그리고 작품에 구현된 모든 형상요소들도 다 창작가의 높은 정치적식견과 안목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높이는것은 문학통신원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요구이다. 문학통신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우리당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우리 시대 인간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옳바로 파악하고 훌륭하게 그려낼수 있는 정치적식견과 안목을 가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문학통신원들이 높은 정치적식견과 함께 예술적기량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성격과 생활의 본질을 예술적으로 일반화하는 형상성은 문학의 생명이며 이것은 예술적기량이 높은 창작가들에 의해서만이 보장될수 있다. 인간과 그의 생활을 구체적이며 감성적인 형상을 통하여 생동하고 뜻깊게 그려내는 높은 예술적기량을 소유하여야 인간생활과 사회현실을 현실에서와 같이 생동하고 진실하게 그려낼수 있으며 작품의 고상한 예술성을 보장할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로작에서 문학창작은 말그대로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인간과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하고 자기 식으로 참신하게 그리는 옳바른 창작자세를 가질데 대하여서와 문학통신원들은 본신임무수행의 여가에 창작을 하는것만큼 시대와 인민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리상을 가지고 열정에 불타 긴장하게 창작한다면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해낼수 있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헌에서 이밖에도 군중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그 수행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주시으로써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온 나라 예술화 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힘있는 리론실천적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실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로작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문학예술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문학예술발전의 지름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으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 불후의 고전적로작은 우리의 주체적인 문학예술건설과 군중문학예술발전의 찬란한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속에서도 문학예술을 대

중화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최근시기에만 하여도 조선인민군 제671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와 조선인민군 해군잠수함 8003호 해병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비롯한 여러 인민군부대들의 사업과 예술소조활동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그들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소조활동의 성과와 경험을 온 사회에 일반화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군중문학예술활동이 활발히 벌어져 전체 인민이 문학예술을 마음껏 향유하고있으며 광범한 군중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데서 이룩된 가장 커다란 성과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군군인들속에서 군중문학예술활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것이다.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직접적인 현지지도를 받으며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원수들이 달려든다면 단매에 족쳐부시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견결히 수호할 멸적의 투지와 전투적기상, 자기들의 보람찬 군무생활을 진실하고 생동하게 노래할줄 아는 문학예술의 진정한 창조자, 향유자로 자라나게 되었다.

오늘 우리 인민군군인들처럼 전투적기백이 차 넘치고 혁명적량만으로 들끓으며 문화적정서가 풍부한 군인들은 이 세상에 없다.

혁명군대가 창조한 선진적인 사상과 도덕, 문화가 온 사회를 지배하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 요구이다.

가장 견결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총폭탄정신으로 일관되어있으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혁명적관주의를 지니고있는 우리 인민군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둥이며 사상정신적 풍모에 있어서나 투쟁기풍과 생활방식에 있어서 우리인민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군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군중문학예술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다.

지난 기간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이 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주인인 문학통신원대렬이 질량적으로 급격히 장성함으로써 우리 문학예술의 대중적지반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된것이다.

지난 기간 문학통신원대렬은 젊고 창작적전망이 유망한 새싹들로 갱신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군중속에서 단련되고 풍부한 생활체험을 쌓아가는 로동청년들로 미덥게 꾸러졌으며 많은 문

학통신원들이 작가대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해마다 《6월4일문학상》 수상자들의 대렬이 계속 늘어나고있다.

특히 13살의 어린 소녀가 서사시 《장군님 계시여 영원한 우리 설날》을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이 하나의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군중문학예술활동이 얼마나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작가들의 후비가 얼마나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지난 기간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는 또한 문학통신원들과 근로자들에 의하여 창작되는 문학예술작품들의 사상예술적수준이 매우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우리 문학통신원들과 문학소조원들에 의하여 창작되는 작품들은 소설, 시, 영화문학, 극문학, 텔레비존문학 등 그 형식이 다양하며 약동하는 현실속에서 본신헌명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면서 자기기 잘 아는 현실,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생활에 기초하고 절박하고도 참신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히고있는것으로 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으며 우리 군중문학작품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꽃방석》(신성희), 서정시 《내 맑은 눈동자에》(리영철), 시조 《어디서나 백두산에 오르리》(주옥양), 영화문학 《노을이 불란다》(임철수), 텔레비존극 《종달새》(손광수) 등을 비롯한 《6월4일문학상》을 수여받은 작품들과 현상응모에 당선된 다양한 주제,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은 참신성과 소박성, 진실성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다 우리 나라에서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하는 사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 주체문학의 화원이 더 풍성해진다는것을 보여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문학통신원들의 역할을 높이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군중문학예술발전에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독창적이고도 전면적인 과학적해명을 준것으로 하여 온 나라의 예술화를 실현하고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의 더욱 풍만하고 찬란한 개화발전을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강령적인지침으로 된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과 문학통신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헌에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사색과 탐구를 강화하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키우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창작해냄으로써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할것이다.

승리산 외1편

박동선

철의 도시 내 고향
송림땅에는 승리산이 있다

철의 도시를 다 굽어보도록
높지는 않아도
항일의 총성높던 전적지처럼
피어린 싸움의 격전장처럼
공장구내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있는 산아

세월의 눈비바람 불바람 다 맞으며
총포탄에 시달렸던 너는
전쟁의 포화뿔은 3일만에
만세의 함성속에 일떠섰거니

3년 지나긴 싸움끝에
웅근 벽돌 한장 안남았던 재무지우에서
수령님 모실 땅조차 찾을길 없던 그날
네 산정에 오르신 우리의 수령님

복구와 건설의 휘황한 설계도 펼치시며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 보이자고
크나큰 믿음으로 용맹을 주시던
산마루여
철의 심장속에 솟아오른 승리산이여

피눈물도 피로움도 참아야 했던
엄혹한 시련의 날에
제힘으로
제기술로

제것으로
건설도 전쟁처럼 이겨야 함을
절감한 우리

한줌의 삶은 강냉이로
고난많은 낮과 밤 지새우며
작은 평로자리엔 우람한 평로를 세웠고
초가집자리엔 덩지큰 살림집 지어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용해장의 사품치는 저 쇠물이
백년이 걸려도 쇠물을 못뽑는다던
미제의 머리우에
쇠물벼락을 퍼부었고
오늘도 검질긴 봉쇄로 우리를 괴롭혀도
내 쇠물의 큰 동을 터쳐
주체의 내 나라를 받드나니

내 오늘 긍지로 부푸는 산정에서
찬란한 래일에도 전진하는
대오의 앞자리에 당당히 서서
승리와 신심의 메부리로
너를 내 가슴속에 더 높이 세우노라

용해장의 붉고붉은 쇠물로
《고난의 행군》 최후승리의 기둥을 세우며
장군님 받드는 쇠물의 대풍
날마다 안아오는 내 마음
언제나 네 산마루에서 내릴줄 모르노라

용해장

용해장에 서면
한집안식구처럼 모두 만나네
백발의 교수도 녀의사와 배우도...
용해장 큰 지붕아래선
소개없이도 마음은 하나로 통한다네

장군님 마음 한끝을 두고가신
용해장이어서
일터는 서로 달라도
마음속에 언제나 안고사는 용해장

장군님 대건설을 결심하시면
일터의 한계를 넘어
쇠물을 저마다 생각하며
용해장으로 달려오는 사람들

로앞에서 쇠물은 끓이지 않아도
마음속엔 언제나 쇠물이 끓고있었구나
등을 떠미는 사람
부르는 사람 없어도
《고난의 행군》에서 설자리 아는 사람들

철탑기둥에 왕진가방 걸어놓고
 공장병원 너의사 청진기 짚어가며
 용해공들의 건강을 돌보는 그 마음이
 또 한차지 쇠물을 끓이고

교대를 넘겨준 젊은 친구들
 드넓은 용해장이 교실인듯
 로교수와 토론을 거듭한
 새 용해법으로 뽑아낼
 래일의 쇠물폭포는 그 얼마나 장쾌하라

용해장에 풍년새 날아든듯
 평양 명배우들의 노래속에
 사품치며 끓는 쇠물로
 용해장은 날마다 대풍들어라

용해공 우리들만이
 어찌 쇠물을 끓인다하랴
 강철의 불꽃튀는 참호속에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의 장군님 바라시면
 한몸 그대로 육탄이 되고 방패가 되어
 장군님을 강철로 옹위해가는
 우리는 장군님의 아들딸

《고난의 행군》 한대오속에서
 장군님을 강철로 받들어
 사회주의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여가는
 우리의 용해장은
 조국의 《만아들》이 사는 큰 집
 우리는 장군님의 한식솔이여라

탈곡장의 실참에

리성국

탈곡장의 실참
 오락회 흥겨워라
 풍년기쁨 안아온 자랑속에
 농장원치녀들과 군인총각들
 하나로 어울려 춤판을 벌렸구나

서로서로 손잡고 반기는 얼굴마다
 밝은 웃음 피어나니 하도 정겨워
 풍년학도 너울너울 제멋에 겨웠구나
 하늘중천 해님도 부러워
 은실금실 줄줄이 춤판에 뿌려주네

두리둥둥 복장단에 성수난 저 분대장
 폭우속을 내달려 가슴으로 물고기를 막던
 그날 그밤을 어이 잊으랴
 비옷을 씌워주던 분조장치녀의 마음
 언제나 가슴에 안고살아...

못잊으리, 이른아침 두령길 걸어
 모를 내고 김매던 병사들
 타드는 포기포기 물도 함께 주며

왕가물 이겨내던 그 수고로움
 농장원들 가슴에 새겨져...

달빛을 이고
 해빛을 이고
 장군님 뜻을 받든 한마음
 농장별 가꿔온 보람인가
 금과만경 파도치는 가을은 좋아

아름답게 꽃피는 군민의 정
 이삭마다 알알이 영글어
 하늘에 등실 벼날가리 솟았으니
 사회주의 내 나라 쌀로 지켜가는 그 행복
 어깨춤에 실렸구나

아, 탈곡장의 실참
 새힘을 키워가는 흥겨운 오락회
 끝없이 올려가는 노래속에
 찬란한 래일을 위해 사는 군민은 한마음
 이 땅에 영원한 풍년가을 안아오리라

예술적화폭속에 시대가 안겨옵니다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

신정애

작가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학의 거창한 세계를 이제야 어렴풋이 깨치기 시작한 문학애호가들중의 한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잡지 《조선문학》에 실린 선생님의 단편소설 《개선문》을 읽고나니 펜끝에 사색을 가다듬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주체문학론》의 글줄들이 깨우쳐주었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격동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주체의 조종간을 역세게 틀어잡고 희망찬 21세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력사가 전진하는 과정에는 일시적인 난관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문학은 마땅히 이 위대한 시대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학작품은 시대를 떠나 그 어떤 광채도 바랄수 없습니다.

문학계의 범주와도 같은 이 평범한 말을 새삼스럽게 곱씹어보는것은 최근 우리 소설문단에서 시대상이 명백치 않은 작품들을 더러 보았기때문입니다.

《고난의 행군》시기 우리 인민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현실물주재소설들이 량적으로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버이수령님께서 서거하신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따라 수령님의 유훈을 지켜 불굴의 투지로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높아진 사상정신적품모가 새롭게 안겨오지 않는 작품들도 없지 않습니다.

어떤 작품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라는 말을 소설의 앞부분에 서둘러 인용해버리고는 그것으로 시대상이 다 비껴진듯이 교루한 이야기를 펴나가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시대가 느껴집니다.

오늘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대전의 20성상 피어린 자욱으로 안아오신 해방의 대업을 상징하는 기념비만이 아닙니다.

개선하신 그 길로 수령님의 로고는 끝난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조국 건설의 거세찬 발걸음과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 준엄한 시련의 길, 전후복구건설의 우렁찬 노래소리 넘어 두차

레의 사회혁명의 진두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한몸으로 헤쳐오신 우리 수령님이 아니십니까.

뿐만아니라 개선문은 수령님께서 웃으시며 우리들과 영결하신곳, 환하신 미소속에 조국의 미래를 축복하시며 떠나신곳입니다.

하기에 여기서 수령님의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장군님의 로고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행복의 길을 투쟁과 위훈의 길로 이어가려는 한 새 시대 인간이 자라납니다.

소설은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시기를 전후하여 한 중학교졸업반소녀 림연희가 수령님의 현지도사적잇는 심심산골의 작골농장으로 자원해가는 이야기를 소박하고도 섬세한 소묘와도 같은 화폭으로 펼쳐보고있습니다.

문학작품에 시대가 반영되자면 그 작품에 등장하는 대상물, 소도구에 시대적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등장인물들 특히 주인공의 형상에 시대적 성격이 체현되어야 할것입니다.

시대상이란 곧 그 시대의 인간상이라고 해야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시기 얼마나 많은 연희들이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 장군님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드는 길에 자기 삶의 좌표를 정하고 장군님 계시여 그리도 사랑하는 수도 평양을 떠나 주저없이 떠나는것입니까!

또 여기 수도 평양에서도 당에서 아끼고 내세워주는 영예군인들을 위해 청춘의 사랑과 일생을 바치는 꽃다운 처녀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은가 하면 그들에게 혈육의 정을 부어주는 사회적미거들이 평범한 이야기로 전해지고...

그뿐입니까?

처녀시절을 다 바치며 버섯을 연구하고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원들이 다리를 놓아주고 교육사업에 보탬이 되라고 인민군군인들이 동식물 표본을 만들어주고...

이들은 다 장군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기 위한 한길을 가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설을 보니 우리 시대는 이러한 충효성의 꽃들을 수많은 키워냈고 우리 문학은 이 꽃들을 보다 훌륭하게 그려내는 하나의 미술화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설에서 미술가할아버지가 연희를 화폭에 담고저하는 그 화판처럼...

나어린 처녀 연희, 작가선생님도 처녀라 소년과 불러본 연희는 과연 어떤 처녀이겠습니까.

미술가할아버지 《나》가 락조가 비껴든 개선문의 아치문을 보며 어떤 개선문을 그릴것인가하는 상을 잡느라 모대기고있는데 문득 나타나는 소년. 이때부터 소년은 이 작품의 시점인물인 미술가할아버지와 50살의 연령격차를 둔 《기이한 우정》을 맺게 됩니다.

평양행기차에서 평양자락을 하던 소년.

자기가 살던 북쪽 어느 지방의 삼골막바지에서 떠온 목란꽃을 여기 개선문걸에 심어 가꾼다는 소년.

그는 어떻게 되어 평양에 올라왔으며 그 꽃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일까...

소설은 기본내용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사연을 1, 2부분에서 주고있습니다.

그 사연을 미술가할아버지에게 들려주는 소년의 이야기에서 길의 뜻을 새삼스러이 음미해보게 되는 생활이 펼쳐집니다.

농작물의 새 품종을 연구하느라 현지로 떠나는 아버지를 따라 이시간 연희는 골짜기 막바지의 외딴집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한장면의 묘사는 정말 생동합니다. 벼랑가에서 숲속에 묻혀버린 오솔길을 이윽도록 바라보며 나라길시작점을 생각하는 심리, 그것은 곧 그의 성격발전의 력사가 붉게 새겨지게 될 흰 명주천과 같다고 할가요...

어찌하여 어떤 사람들은 길이 시작되는곳에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동떨어지는것만 같은 길이 끝나는곳에서 살까요...

이런 의문을 품고있던 이 철부지소년은 인민학교에서 뒤책상에 앉은 홍길이가 《우리 나라 길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니?》하고 물었을 때 승리거리에서 시작된다고 했다가 홍길이가 형님시집에 만경대초가집 사립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써여있다고 몰아대면서 그것두 모르니까 아버지원수님 계시는 평양에서 못살구 여기루 왔지 하는 바람에 울고맙니다.

이때 연구가 끝나면 베개통만한 강냉이를 안고 아버지원수님을 찾아 평양으로 간다는 아버지의 말은 연희의 자그만 가슴에 오돌찬 신심을 안겨줍니다. 그때부터 연희는 아버지의 연구사업의 나어린 방조자로 되어 어언 7년을 하루같이 푸르싱싱한 강냉이숙에 희망도 함께 자래워웁니다.

그러나 성공의 길이 아직도 묘연함을 뼈저리게 의식한 아버지에게서 어느날 이 아버지가 한평생이 산골에서 헛고생하다가 생을 마친다 해도 원망하지 않겠느냐는 실망깊은 말을 들었을 때 연희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울음을 삼키며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부녀의 이런 고충은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뜻밖에도 이 산골마을을 찾아주심으로 하여 끝이

납니다.

주변협동농장을 현지도하시다가 여기에 강냉이 새 품종을 연구하는 연구사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다른 일을 다 미루시고 찾아오신 수령님께서 이런 동무를 만나는것이 제일 기쁘다시며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라고 힘을 주실 때 연희의 아버지 림준기는 얼마나 걱정예 목이 메였습니까.

아버지의 그날의 모습은 연희의 성격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삼골이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외진곳이 아님을 깨닫게 하며 연희와 홍길이네는 그때부터 수령님을 모셨던 영광의 발머리에 목란꽃나무를 떠올려 심고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후 3년만에 드디어 아버지의 연구는 성공하고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연희네는 그림고 그림던 평양으로 올라왔던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원수님께 자기들의 인사도 드러달라던 삼골마을 아이들과의 약속은 이제 더는 실현할 길이 없습니다.

소설의 세번째부분에서는 연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석공예사로 되었으나 자기가 가야 할 《길》의 참뜻을 새기며 아버지가 연구사업을 하던 삼골농장으로 진출하는 현재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림을 드디어 완성한 미술가할아버지가 이제는 《동업자》로 된 연희에게 보여주려고 전화를 걸었으나 연희는 이동수속을 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텔레비죤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사적이 깃든 초소들을 찾으시는 존귀하신 영상을 보으며 장군님께서 이어가시는 그 로고에서 비로소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생각하는 연희.

흙모와 칭송으로 노래만 부른것이 아니라 투쟁과 노력으로 그 뜻을 꽃피우는것이 수령님에 대한 진정한 흙모이고 값높은 칭송이며 충심으로 되는 효성임을 자각하고 지금까지 걸어온 행복의 길을 투쟁과 위훈의 길로 이어가려는 연희.

개선문에서 연희를 바라주며 미술가할아버지는 개선문의 둥그런 아치문을 바라봅니다.

아치문으로 바라보이는 만수대, 새 길을 가리키시는듯 수령님 서계시는 만수대.

드디어 미술가할아버지는 자기 그림의 종자를 잡습니다.

개선문아래 꽃피난 새 시대 인간의 화폭을 상상하며 새 세대 청춘들의 불타는 투쟁모습을 화폭에 담으려 삼골농장에 찾아갈것을 결심합니다.

새 시대 청년 연희, 연희가 보입니다.

아치문에 시대가 비쳤습니다.

오늘의 청소년들을 시대의 기수, 김정일시대의 믿음직한 역군들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하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에 시대정신이 깊은 정서속에 반영되는 데서 아마도 예술적수법의 성과를 간파할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선과 과거선을 엮바꾸어 보여준것은 과거 10년생활을 함축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7월의 나날을 현재로 하고있는 이 소설에서 10년생활의 과거를 동무들과의 길에 대한 론쟁과 위대한 수령님의 뜻밖의 감격적인 현지지도로 함축하여 보여준것은 우리 모두가 수령님의 품속에서 걸어온 행복의 길을 충성과 보답, 투쟁과 위훈의 길로 이어갈데 대한 사상을 보여주는데서 적중히 선택된 생활세부입니다.

또한 이 소설의 사상성은 소설전반에 흐르는 서정성으로 하여 안받침되고있습니다.

이 소설의 서정성은 1인칭소설로서 심리세계의 개방, 시점인물과 주인공의 두 심리, 감정선의 병행과 교차에 의하여 담보되고있습니다.

우리 시대 청년들의 인생길은 행복의 길로 끝날것이 아니라 투쟁과 위훈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본책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우리는 크나큰 감명을 받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더욱더 분발하여 나갈것입니다.

선생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크나큰 감격과 환희를 가슴에 새겨안고 그이의 령도따라 나아갈 보다 희망찬 새 세기를 화폭에 담는 창작의 길에서 더욱 뚜렷한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미숙한 펜을 이만 놓습니다.

주체86년 X월 X일

군민의 정 외1편

림종근

피를 나눈 혈육이어서
떨어져선 못사는 군대와 인민
찾아오고 찾아가며 두터워지고
서로 돕고 아끼며 깊어진 정
초소와 마을에 뜨겁게 끓이쳐
훈련장엔 만세소리, 농장벌엔 난알더미-
해마다 높아만지고

우리의 가슴속엔 그보다 더 높이
쌓이고 덧쌓이는 군민의 정!
준엄한 날엔 고지마다 더욱 만발해
크나큰 승리를 불러올 그 정! 그 힘!
절대로 꺾을수도, 가를수도 없지만
나눌수록 커지며 조국의 안녕을
철벽으로 감싸고있도다!

가을이면 열매들이 말해주리라

파일밭에 거름내기 누가 했을가
아니 글썽 어제밤에 누가 했을가
이건 분명 마을에 온 병사들 한 일
고맙다고 인사하니 모른대지요
아! 오늘은 모른다고 시침을 때도
가을이면 열매들이 말해주리라

파일밭에 군화자욱 새겨졌어도
아니 글썽 모른다고 시침을 때지요
흘린 땀은 열매로 주렁지려니

밭에 떨어진 수건이나 받으시라요
아! 오늘은 모른다고 시침을 때도
가을이면 열매들이 말해주리라

인민들을 사랑하는 병사들 마음
달과 별도 다 알고서 웃고있는데
모른다는 그 대답이 정이 더 넘쳐
뜨거운 그 마음에 풍년이 들리
아! 오늘은 모른다고 시침을 때도
가을이면 열매들이 말해주리라

성스러운 언덕에서

소란했던 인생의 길에 오린 생들을 풀고 태양의
품에 맡놓고 잠든 생들은 끝없이 행복하리

최치영

고귀한 의리의 품

이 나라의 파란많은 민족사도
영원할 **김일성**민족의 시대와
애국애족의 넘으로 뜨겁게 이어지며
고귀한 의리가 펼쳐진 애국렬사릉

한계단 또 한계단 오르니
우리 수령님 잊지 못할 추억속에
나라 위해 흘린 피 헛되지 않아
성스러운 기발아래
그이 품에 안겨 영생하는 애국렬사들

한장한장... 묘비마다
돌아오지 못했던 렬사들이
죽어서라도 묻히기를 소원했던 고국땅에서
그리도 기원했던 민족의 령수를 우러러
백발을 날리며 땅차고 일어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마중하는듯...

만시름놓고 잠든 애국의 령혼이여
말하라 칼날에 꽃힌 망국의 비분을 안고
터지는 심장들을 열혈로 뿌리며
이름모를 산야에 돌처럼 던져지던
아까운 목숨은 그 얼마였더나

한명의 동지가 것처럼 귀했던 시기
서로 다른 주의주장으로 해
백두산 기슭에서 헤어질 때

10대 어린신 우리 수령님께
가슴아픈 상실의 마음만 남긴 사람도...

아 하지만 우리 수령님
헤어진 길은 가슴아픈 길이였어도
피흘리는 이 땅은 안고 몸부림친 사람도
세월의 락엽에 묻혀 헛될가봐
애국애족의 뜨거운 숨결로 아끼시여
영생의 언덕에 세워준 그 고귀한 의리

한생을 나라찾는 길에 헤매였어도
제땅에 맡놓고 묻힐수 없었던 그대들
꿈속에도 못그렸던 오늘의 이 언덕
땅차고 일어나 잠시나마 본다면
뜨거운 눈물로 이 땅을 적시고 적시리

그 고귀한 의리앞에
찾아오면 그 누구나 머리숙여
살아온 한생을 조용히 총화해보며
곡절났았던 인생의 길도
잘못산 생도 여기서 매듭짓고

오 백발을 날려도
애국애족을 위한 길에
다시한번 깨끗이 고쳐살아
제땅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희망의 푸른 언덕
고귀한 의리로 뜨거운 태양의 품이여

푸른 잔디 몇평방

이국의 광야에 쓰러지면서도
그려보던 고향집 뒤동산 푸른 잔디
피흘려 찾은 조국땅우에
그대들은 조용히 잠들었구나

더듬어보자
그 푸른 잔디 내 땅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렬사들이

이 땅을 부둥켜안고 피흘렸고
원썬들은 그 한치땅도 빼앗으려
그 얼마나 잔악한 총검을 휘둘러댔던가

이 땅을 안고 한생을 몸부림쳤건만
죽어서도 단 몇평방 푸른 잔디
제땅에 맡놓고 누울수 없었던 그대들
그 누가 그 모습 내세울 시대를 열어

그대들을 애국렬사로 반들어올렸던가

가슴속 하고싶은 말 많아도
다만 푸른 잔디 몇평방
오늘도 조용히 말없이 누워있는
그 땅이 다 말해주어
찾아오는 아들딸 손자손녀 증손자...
온 7천만이 눈굽을 적신다 적신다

아 이 땅에 피는 흘렸어도
제발로는 누울수 없었던 푸른 잔디
돈과 재부로논 더더욱 오를수 없는 자리
누워있는 푸른 잔디 단 몇평방이여도
조국이 있어야 바친 넋이 푸르름을
그 무엇으로 다 헤아리라

성스러운 언덕

—오동진, 량세봉, 리관린...
소란했던 독립군의 말발굽소리
아득히 먼지처럼 사라졌어도
이름없던 사람들이
반일애국지사, 선생으로 서있다

—강규찬, 고진희...
30도 못다산
아쉽고 푸른 청춘
온 남녘의 산야에 다 뿌리며
원수의 철창과 단두대에서도
굴함없던 사람들이 남조선혁명가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있다

—정준택, 강영창, 리승기...
한발 비껴서면 돈과 재물
또 한발 비껴서면 권세와 부귀영화...
원수의 그 어떤 회유와 공갈 속에서도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따르며
어려운 시기 강제 한톤 벽돌 한장도 아껴
조국을 받든 사람들이 영웅으로 서있다

—최동오, 최덕신...
민족을 배반한 치욕으로 해
때늦게 지구의 먼 한끝을 에돌아와
아버지의 묘비에 독한 술을 부으며
속죄로 오열을 터뜨리던 사람도

아버지와 함께 선생과 동지로 서있다

어이 이들만이라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싸우는 조선의 맥박을 더하여주며
한편의 시처럼 짧게 살았어도 혁명시인으로
20대 꽃나이 세계탁구계를 뒤흔든 처녀도
영웅으로 영생하는 애국렬사들

오 갈래많은 인생의 길에
준엄하고 복잡했던 그 모든것들을
애국애족과 민족대단결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의 성스러운 기발아래 잠재우며
영생의 모습으로 내세운 애국렬사들

백두의 붉은기에
신념과 의리로 맹세 다지며
찬란한 람홍색기발에 물들인 넋
그 넋은 살아 혁명의 피줄기로
그 넋은 살아 만대에 빛나거니

아 실사 그가 누구이든
애국애족의 길에 흘린 피
결코 쓰러졌어도 무주고혼이 아님을
우리 장군님 붉은기로 지켜주시며
영생을 선포하는 성스러운 언덕이여

해빛

한생에 지닌 넋
해빛 그 품이 없었더라면
만리 이국의 광야에
한줌 재로 진토되고말았으리

허나 간고하고 어려웠어도
그대들 지닌 넋

그대들 흘린 피
그 품이 있어 그리도 붉은것
남아있어라
한생은 짧았어도
피와 넋으로 력사에 새긴 삶
그것은 해빛이 준 진리

오 은혜로운 그 해빛이 있어
인생이 따사롭고 푸르리라

태양을 받은 삶만이
피와 땀을 지녀 영생하더라

꽃은 무엇으로 붉은가

여기선 누구나
제명을 못다산
그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
애절한 곡성을 터치지 않는다
독한 술로 묘비를 적시지 않는다

여기선 누구나
이 나라에 바친 피값보다
받아안은 사랑과 의리
너무도 가슴뜨겁고 고마워
오르는 사람마다 심장은 쿵쿵...

장중한 군악에 발걸음 맞추며
머리를 숙이고 계단을 오른다
보답의 맹세로 무거운 꽃뭉치들을
렬사들의 령전에 삼가 드린다 드린다

단명을 살았어도
그 뉘는 혁명의 피줄기되어
찾아오는 수천만 아들딸들이
그대들을 못잊어 못잊어

하얀 대돌우에 드리는 꽃뭉치 꽃뭉치들

독한 술대신
애절한 곡성대신
천근만근 무거워진 꽃뭉치들을
렬사들의 령전에 삼가 드리며
이 나라의 행복한 후손들은
장군님따라 붉게 필 꽃으로 피어나거니

꽃은 무엇으로 붉은가
오늘의 락원을 위해 흘린 피
그대들의 못다된 뜻으로 붉은것이어서
우리 마음 예 와 더 붉게 피어
여기 령전에 드리는 맹세로 뜨겁거니

아 이런 날 하얀 대돌우
소리없이 쌓이는 저 꽃뭉치들과 함께
붉게붉게 피는 내 마음
끝없이 진한 붉은 꽃으로 피어
이 땅에 향기를 풍기리 풍기리

가사

아, 내 조국이여

리병군

구름넘어 아득히 멀고먼 나라
내 조국을 그릴 때면 눈시울 젖네
안겨살 땀 다 몰랐던 어머니사랑
이국에서 새겨보니 가슴을 치네
아, 어머니 내 조국이여
그대의 사랑을 잊고선 못살아

나를 안아 키워준 어머니사랑
대륙넘어 천만리에 따라선다네
이른새벽 해빛처럼 비쳐든 사랑

밤새도록 나의 꿈을 지켜준다네
아, 어머니 내 조국이여
그대의 사랑을 잊고선 못살아

그 사랑은 열대의 더위도 막고
그 사랑은 눈비바람 다 막아주네
어머니를 위한 마음 변함있으랴
더 많은 일 찾아하여 보답하리라
아, 어머니 내 조국이여
그대의 사랑을 잊고선 못살아

태양과 해바라기

김남용

하늘은 높고 푸르다.

서늘로운 가을바람을 타고 실려오는 구수한 낱알향기에 한껏 취하고싶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눈뿌리 모자라게 펼쳐진 앞벌은 온통 황금빛으로 일렁인다. 태를 묻은 정든 고장이라 하지만 풍요한 가을을 맞고보니 모든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산도 별도 황금빛으로 단장한 산천, 더우기는 산기슭을 따라 안침하게 들어앉은 문화주택들이 온통 해바라기꽃속에 장식된것이 이채롭다.

터발 한귀퉁이에 몇포기 심던 해바라기를 2~3년전부터 길가며 산기슭은 물론 비경지를 찾아가며 곳곳에 심어서 즐비하게 늘어선 우리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꽃속에 묻힌듯싶다.

마치 순박하고 근면한 내 고향사람들의 마음처럼 소박하면서도 풍만한 열매를 주는 해바라기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태양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서 밝게 웃다가도 해가 지면 무겁게 드리운 화판에서 알알이 씨앗을 영근다.

언제어디서나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는 그 생김새조차도 하늘의 태양을 닮아 이 땅우에 밝게 피었다. 쟁반같이 둥근 얼굴, 황금빛 해살마냥 노란꽃잎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간 해바라기! 진정 해바라기야말로 태양의 꽃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꽃이 해빛을 몹시 바란다고 하여 해바라기라고 불려왔다. 우리 조상들뿐만아니라 아세아와 구라파, 라틴미주 등 세계 크고작은 수많은 나라들에서 나라와 풍습, 언어와 피부색이 서로 달라도 해바라기를 명명하는 뜻만은 호상 상통되어있는것이다. 레하면 영어에서는 태양의 꽃이라고, 로어에서는 태양아래 피는 꽃이라고, 일본어에서는 태양을 따라 도는 꽃이라고, 라틴어에서도 태양의 꽃이라고 불리워지고있다.

어원에서만이 아니라 이 꽃은 나라와 민족의 생활과도 밀접한 련계가 맺어지고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해바라기를 사랑하던 나머지 이 꽃을 자기 나라의 국화로 숭상하는가 하면 어떤 민족은 이꽃을 태양이 보내준 꽃이라고 사랑하며 존중하고있다.

이처럼 지구상의 방방곡곡에서는 각이한 풍토와 서로 다른 절기에 맞게 해바라기를 키우며 풍습과 전통에 따라 각이하게 내세우고있지만 그 꽃이 따르는 태양은 저 하늘에 하나뿐이다.

태양!

태양은 이렇듯 위대한것이다.

태양이 빛나 이 땅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그것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해바라기다.

만물에 영원한 활력을 주는 태양이야말로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는 생명의 무궁한 원천이다.

수천년수만년... 인류가 온갖 혜택을 입으면서 숭상해오는 태양이지만 태양절을 즐기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는 아직 이 세상에 없다.

오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만이 주체년호를 가지고 태양절을 기념하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태양만이 아니라 수천년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신 복된 우리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크나큰 영광이며 자랑인것이다. 하기에 온 민족이, 7천만겨레가 이 자랑, 이 기쁨을 소리높이 자랑하고있는것이다.

주체의 년호와 태양절을 받아안은 온 나라의 전체 인민은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 휩싸였다. 아니, 분계선넘어 남녘의 인민들과 통일투사들도 기쁨에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복녘하늘을 우러른다.

아버이수령님은 비록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지만 주체년호, 태양절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을 굳히고있다.

주체년호와 태양절을 받아안은 남녘의 4.15동지회의 한 회원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모두가 꿈속에서도 바라고 또 바라던 최대의 소망이 성취되었다.

김일성주석처럼 나라의 룡성번영과 민중의 자유해방을 위한 성업에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민족과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신 위인중의 위인은 이 세상에 없다.

그분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다.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받들어모시고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는 길에 조국통일도 있고 민족만대의 행복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민중은 민족최대의 국상을 당한 7월의 그날로부터 지난 3년세월 자나깨나 주석을 생각하여 그이의 영생을 절절히 기원해왔다.

이번에 주체년호와 태양절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조국과 민족의 력사는 영원히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력사로 흐르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크나큰 경사인가!

주체년호와 태양절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더없는 자랑이고 영예이다.》

실로 얼마나 뜨거운 심장의 호소인가! 그의 말을 되새겨보는 나의 눈앞에는 바로 이 시각에도 준엄한 전구를 헤쳐가는 남녘의 전위투사들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른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통일념원을 받들고 위대한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실 감격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목숨도 청춘도 두려움없이 싸워가는 남녘의 투사들! 진정 자각된 인간의 집은 무궁무진한것이다.

태양절을 누리는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가득 안고사는 우리 인민의 힘을 막

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나는 알알이 여문 해바라기씨들을 끌라 정히 보관하였다. 래년 봄에는 더 많은 해바라기들을 키우리라는 일념으로...

날과 더불어 무성해지는 해바라기를 가꾸어가며 충효의 마음도 함께 키우는것이 우리 인민이다.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마냥 날과 더불어 이 땅에 끝없이 피어나는 충효의 꽃들이 온 강토를 아름답게 물들이고있다.

한송이 피어도 해빛 따르고 만송이 피어도 오직 해빛만을 한결같이 따르는 태양의 꽃 해바라기는 날에날마다 이 땅우에 더더욱 무성해질것이다.

《연선마을》

오재신

내 나라 정다운 산천이건만
어찌하여 이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저 나무 풀 한포기도 바라보아야 하는가

더없이 정다운 모습들이건만
왜 이리도 사무치는 생각에
다만 말없이
으스러지게 그 손들을 잡게 되는가

이 나라 겨레의 가슴에 서리고 뭉친
그 원한이
예 와서 분노로 굳어진
분렬된 조국의 그 긴 세월이
예 와서 쌓이고쌓인듯

아, 웅근 반세기
이 땅에 흐른 날과 달
분렬의 그 력사에
다른 그 무엇이 이토록
갈기갈기 가슴찢는 아픔으로
되였더란말인가.

부르기조차 괴로워라 그 이름
《분계연선마을》
어제도 그렇게 불렀고
오늘도 그렇게 불렀고

아아, 래일도 그렇게 불러야 한다면...

정녕 칭칭 휘감긴
저 독사의 몸뚱아리같은 분계선
원한의 콩크리트장벽에
이제 더 세월의 이끼가 덮이도록
보고만있을수 있느냐

참을수 없는 그 고통과 아픔을
분노로 불사르고
하나된 조국의 준엄높은 그 높은 처마를
남녘의 저 하늘에 이어주자
둘로 가를수 없는 민족의 넓이 펼쳐지게 하자

아버이수령님 안겨주신 통일대강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해빛으로 내려
남북삼천리에 무르녹을 때
분렬의 고통으로 순간순간을 이으며
몸부림치던 《연선마을》
그 이름 더는 없으리니

오, 그날 내 여기에 서서
북으로 백두
남으로 한나
삼천리를 굽어보리라
하나된 그 기쁨을 노래하리라

승리의 봄언덕을 향해가는 사람들

박원성

삼천역에서 내려 서북쪽으로 6키로미터 가느라면 세상에 유명한 달천온천에 닿게 된다.

온천터의 동북쪽은 해발고가 300미터인 구월산의 아사봉, 초대봉, 비산이 서로 키دون음이라도 하듯 솟아있다. 온천터앞으로는 재령강의 지류인 달천천이 흐르고있다.

이전에는 이 온천을 종달온천이라고 불렀다.

다리가 부러진 종달새가 이곳 온천에 내려왔다가 다리를 고치고 갔다는 전설을 간직하고있는 종달온천...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속에 이곳에는 현대적인 광천치료설비를 그뿐하게 갖춘 여러 료양소들이 생겨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그런데 얼마전부터는 삼천군 인민들이 농사도 우리가 다 맡겠다는 드높은 열의를 안고 농장벌에 달려나온 인민군군인들을 위하여 이곳에 《정양소》를 꾸려놓고있다.

로동자, 농민, 학생들과 가두녀성들이 《정양소》를 꾸리는데 자그마한 성의라도 바치려고 삼파 곡괭이를 들고 떨쳐나섰다.

사실 《정양소》는 그리 크지 않은 건물이어서 군내 일군들은 설계를 작성할 때부터 소문을 내지 말고 조용히 하리라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새였는지 기초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밀려들었다. 읍에서 달천온천까지 15리구간은 매일같이 사람들로 꽉 찼다. 하루일을 끝낸 사람들이었다. 군이 생겨 처음보는 희한한 행렬이었다. 그 누구의 강요나 부추김도 받지 않고 스스로가 건설의 주인이 되고 《정양소》의 주인이 되려는 일념으로 불태우며 사는 이들... 그들은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농사를 지은 현실의 목격자, 체험자로서 웅당한 도리를 다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오늘의 《1211고지》인 농업전선을 맡아 시련에 찬 《고난의 행군》을 뚫고나가고있는 인민군군인들.

삼천군 덕천리에 머물러 혁명적군인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이곳 농사일을 도운 인민군군인들의 투쟁모습은 정녕 잊을수 없다.

×

8월의 깊은 밤이었다. 어디선가 귀뚜잡게 울어대던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뜰해진지도 퍼그나 오랫동안. 벌끝에서 향방없이 불어오는 한가닥 바람이 벼잎사귀들을 조용히 흔들뿐 마을은 고요하다.

푸릿한 달빛이 부채살처럼 얹게 퍼져 들어오는 피창문밑에 누워있는 5작업반장 길영채는 마을을 스치는 미묘한 바람소리도 가려들만큼 정신이 점점 더 말뚱해졌다. 이 밤은 왜 이다지도 생각

이 많아지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는 누움새조차 불편해져 공연히 군기침을 하며 어깨박죽을 이쪽저쪽 엇갈아대고있다가 그만 예야 일어나 불을 켜고 앉고말았다.

엿저녁 관리위원장방에서 있는 반장들의 협의회 때 하던 관리위원장의 열기던 목소리가 가슴 밑굽을 파고들었던것이다.

《래일 군부대 지휘관들의 가족들이 기동예술선 동대를 못고 우리 농장에 온다는 연락이 왔소.

천리나 떨어진곳에서 말이요.》

정말 뜻밖의 소식이였다. 길영채는 관리위원회에서 돌아온 즉시로 분조장들을 모아놓고 군관가족들을 잘 맞아들일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었다.

하지만 어쩐지 빈구석을 남긴것 같아 그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문득 길영채의 눈앞에는 키가 성큼하고 어깨가 짝 퍼진 3중대장의 길동그런 얼굴이 그려지였다.

원래 길영채는 3중대가 작업반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저녁으로 파수발 한가운데 있는 파수분조 선전실을 내어 침실로 꾸리였었다.

꽃향기가 그윽하게 풍기는 파수발에서 잠재우고싶어하는것은 이곳 반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그리하여 군인들을 맞아들인 길영채는 중대장을 앞세우고 곧장 파수분조 선전실로 이끌였다.

군인들은 살구꽃이 만발하고 사과, 배나무들이 민트한 언덕을 둘러싸고있는 파수원을 둘러보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로 군인들은 파수발에서 멀리 떨어진 농산분조 마을에 병실을 따로 짓는것이였다. 목재와 기와는 농장에서 내려올 때 가지고 왔었다. 그들은 기초를 파고 한쪽으로는 흙을 이겨 불로크를 찍었다.

길영채는 중대장을 만나 섭섭한 소리를 하였다.

《아무리 덕천마을 사람들의 인정이 박하기로서니 제집에 온 귀한 손님들을 집을 짓게 하다니요. 우린 그걸 허락할수가 없습니다. 군인동무들은 몇달 일하고는 다시 초소로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까.》

중대장은 빙그레 웃었다.

《우린 군대가 아닙니까. 두툼한 이불이나 온돌방을 쓰고사는데 습관되면 자기도 모르게 군인다운 면모를 잃고말지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한채 짓고 가면 후날 살림집으로 리용할수 있지 않습니까.》

될수록 농장원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않고 도움만을 주려는 군인들의 진정에 넘친 말에 길영채

는 목이 메어올라 아무말도 못하고말았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5월 10일이였다. 랭상모판에는 모들이 실하게 자랐다. 삼사일 더 키우면 모를 낼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날밤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잠에서 깨난 길영채는 모판이 걱정되어 황망히 집을 나섰다. 그가 반달음을 놓으며 바람막이바자를 둘러친 모판 가까이에 이르니 모판안에서 모닥불이 타고르고있었다. 길영채는 모판관리공들이 제때에 찬바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한시를 놓았다.

그런데 모판안에 들어선 길영채는 깜짝 놀랐다.

모판안에는 의외에도 군인들이 웅성거리고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덮고 자는 담요를 들고나와 랭상모판을 덮고있는것이였다.

중대장은 이쪽저쪽 오가며 담요가 제대로 랭상모판을 덮고있는가를 일일이 살피고있었다. 그를 보는 길영채는 명치 한끝이 찢리운듯 자책감이 아프게 밀려들었고 그들의 소행에 머리가 숙여지는것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였다. 덕천벌에서는 모내기가 시작되였다. 기계와 손모를 동시에 밀고나가니 모가 딸렸다. 길영채는 부족되는 로력을 보충하기 위해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찾아갔다.

학생로력을 받아오자는 심산이였다. 하지만 부위원장은 길영채의 호소를 듣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2반과 7반은 로력이 부족하여 논두렁정리도 못끝내고있는 형편이라면서 학생로력은 그쪽으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길영채는 사정절반 충고절반 하면서 지꽃개 때를 썼으나 결국은 자기쪽에서 물러나고말았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작업반으로 내려왔다. 그날저녁 중대장이 길영채가 앉아있는 작업반선전실로 찾아왔다. 중대장은 길영채와 마주하고앉아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반장동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모를 말겠으니 냅다 내밀어봅시다.》

길영채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듯 중대장을 여겨보았다.

《군인들이 모뜨기에 나서면 그들이 말아하던 논두렁정리랑은 누가 하구요?》

길영채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중대장을 가볍게 나무람하였다. 중대장은 진지한 표정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은채 한층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일도 우리가 다 하면서 말입니다.》

《군대는 뭐 사람이 아닌가. 육체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네.》

길영채의 말에 중대장은 말없이 지켜 앉아있다가 자리를 피했다.

다음날 이른 새벽이였다. 군대들이 들어있는 병실에서 나팔소리가 짜랑짜랑 울렸다.

웃동을 벗어부친 군인들이 병실안에서 탄력있

게 뛰어나오며 대렬을 짓고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동구길쪽으로 달려가더니 4분조 모판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2시간정도 모를 뜨고서야 병실에 들어와 아침식사를 하였다.

길영채는 량심이 찢리어 건딜수 없었다. 다음날 그는 분조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호소했다.

《난 오늘부터 우리들의 일과를 군대식으로 하자는걸 제기하오. 여기에는 그 누구도 례외로 되여서는 안되겠소. 우리 초급일군들이 먼저 그렇게 해보잔 말이요. 기상나팔소리로부터 말이요.

집행정형총화는 매주 월요일에 하겠소.》

다음날부터 길영채를 비롯한 분조장들은 군인들을 따라 모판으로 나갔다.

그런데 다음날부터는 나팔소리가 울리지 않았다.

웬일인가 하여 병실쪽에 기웃해보았는데 의외에도 그쪽은 조용했다.

그 다음날에도 나팔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얼마후에야 길영채는 나팔소리가 울리지 않는 내막을 알게 되었다. 군인들은 나팔소리를 내면 농장원들의 단잠을 깨칠수 있다면서 조용히 일과를 집행했던것이다. 그들은 종전보다 한 시간 더 앞당겨 모판에 나가 모를 텠다.

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길영채는 다른 지원로력을 받지 않고도 모내기를 앞당겨 끝낼수 있게 되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길영채는 대수장 포개여놓은 담요를 한옆에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벽시계를 보니 새벽 4시다.

창문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있었다. 그대로 밖으로 나가 낮을 등자나 풀베기를 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창밖을 바리보며 날이 밝기만을 조금스레 기다리던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문득 그의 시선은 옆벽에 걸려있는 자그마한 액틀에 가서 멈추어졌다. 그 액틀안에는 중대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끼워져있었다.

하루에도 몇십번 눈길이 가닿는 사진이였다.

하건만 오늘은 그 사진이 너무나 방불히 중대장의 모습을 그려내였다. 중대장은 지난 6월말에 심한 중상을 입고 이곳을 떠났다. 덕천리에서는 농장원들이 지원나온 군인들과 함께 빠스와 자동차를 타고 구월산유원지 답사를 갔었다.

답사를 끝마친 그들이 돌아올 때였다. 농장원들이 탄 앞빠스가 산길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제동이 고장나서 벼랑쪽으로 지치기 시작하였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이였다. 중대장이 자동차에서 뛰어내리며 돌을 안고 바퀴밑으로 들어갔다. 농장원들은 구원되었으나 중대장은 군병원으로 실려갔고 다시 중앙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중대장이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덕천리는 물론 군내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갔다. 피가 요구되었을 때에는 저마다 팔을 걷고 수혈장문을

두드렸다. 길영채가 병원을 찾아갔던 어느날 중대장은 그의 손을 꼭 잡고 간곡하게 당부했다.

《저때문에 제일 바쁜 시기에 농장원들이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를 찾아올 시간이면 논김 한번이라도 더 매주십시오. 난 그것이 더 좋습니다.》

중대장은 군내 사람들의 각근한 정성과 성의를 마다하고 끝내 삼천군을 떠나고말았다. 그와 헤어지지 벌써 한달이 가까와온다.

그가 몹시 그리웠다. 다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혹시 상처가 더하지는 않는지...

길영채는 중대장의 모습을 그려보며 책상앞으로다가갔다. 책상우에는 두꺼운 마분지로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 자그마한 편지함이 놓여있었다.

여러곳에서 보내오군하던 편지들을 길영채가 보고 꽃아넣군하던 함이었다. 편지함에는 수십통의 편지가 꽂혀있었다.

길영채는 차곡차곡 간중그려놓은 편지함에서 편지봉투 하나를 더듬어쥐었다. 중대장이 보내온 편지였다. 보름전에 온것이어서 길영채는 물론 안해까지도 추억을 돌이켜보며 읽어본것이였지만 그는 다시금 중대장의 목소리를 듣고싶어 속지를 꺼내들었다.

《...반장동무, 침상에 누워있는 나를 용서해주십시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덕천리에 달려나가 본때있게 일을 하자고 했던것인데 시작만 때놓고 이렇게 뒤전에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농사를 부락합니다. 농장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이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이고 수고를 제일 많이 하는 일군들입니다. 우리 병사들은 농장원들의 그 수고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 중대군인들이 주체농법을 잘 모르는 조건에서 하나하나 깨우쳐주면서 이끌어주십시오.

올해는 어떻게하든지 군민이 한덩어리가 되어대풍을 마련해야 합니다. 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합니다. ...》

병원호실의 그 어디선가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려오는듯 편지의 글자들은 불꽃처럼 선명하게 타올랐다. 길영채는 그가 다니는 집으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이번에 그의 안해가 온다니 만나서 농장소식을 전해주리라 마음먹었다.

길영채는 편지를 접었다.

얼마후에 길영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매긴 옷을 입었다. 그는 허청칸에 들러 낫을 들고 길에나섰다. 그는 달천천과 잇닿은 서강천쪽에 올라섰다. 강바람에 풍겨오듯 청신한 새벽공기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수면우를 날르는 물축새의 정아한 울음소리를 들으며 길길이 자란 새초발을 둘러보았다. 뽕조롭하게 추켜든 잎초리에는 구슬같은 이슬이 함초롬히 맺혀 령롱한 빛을 뽐기고있었다.

낫날에 감긴 새끼를 푼 그는 손바닥을 휘휘 내저으며 이슬을 털고나서 허리를 구부리었다.

연연한 풀잎사귀를 왼손으로 휘감아쥐고 밭을 썩썩 소리나게 낫을 먹이자 새초가 가지런히 나가누웠다.

길영채는 올해 풀베기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느라고 하였다. 작년도처럼 풀원천이 없다고 하면서 주저앉지는 않았으나 풀거름을 많이 내지 않고 비료를 끌어들이는데 더 신경을 썼다.

그렇게 할 때만이 반장으로써 권위를 세우고 책임을 하는것이라고 여겼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데서 변혁이 일어난것은 아니다.

농장원들은 국가를 속이는 일이 아닌가고 하면서 수군거렸다. 그럴 때마다 길영채는 농사를 짓자면 비료가 기본이라면서 자기야말로 진정으로 나라의 쌀독을 놓고 근심하는 실농군인체하였다.

그렇던 그의 버릇을 떼여준것은 군인들이었다.

군인들은 무엇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거나 우를 쳐다보면서 해줄것을 바라지 않았다.

중대장이 이곳을 떠난후엔 정치지도원인 윤정호가 중대를 이끌었는데 그는 말은 별로 하지 않고 실천으로 군인들을 따라서게 하였다.

가물피해를 막으려고 서천강물을 덕천벌로 끌어들이기에 얼마나 힘겨운 전투를 벌렸던가.

길영채는 물이 모자라는 덕천벌에 물을 끌어들이는것을 소망했었다. 하지만 서천강의 높은 물을 넘기여 물을 끌어들이는것은 실로 엄청난 공사여서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윤정호가 어느날에 길영채를 찾아와 물길공사를 벌리자고 제기했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하면 된다는것이다.

물길공사의 첫삽을 박은 군인들은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양수장을 건설하고 물길을 뚫다.

휘틀을 짊 관자가 걸렸다. 전기가 모자라 제재기도 돌리지 못했다. 길영채는 난감해졌다. 이젠 중도에서 그만두게 되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러던 어느날 윤정호는 자동차로 제재기를 돌리자고 하면서 그에 맞는 전기설비들을 갖추기시작하였다. 그렇게 되여 공사는 중단없이 진행되였다. 물길공사가 완공되자 제일 기뻐한 사람들은 군인들이었다. 그런 까닭에 왕가물 피해가 흑심했지만 덕천리에서는 서천강물을 리용할수가 있어서 어느정도 피해를 덜 받았다.

이번 풀베기에도 그랬다. 길영채는 농장에 풀원천이 없는 조건에서 한주일간 분위기만 세워놓고 그만둘 생각을 하였었다. 길영채의 이런 속생각을 알게 된 윤정호는 아연해하며 대책적인 문제를 제기해왔다.

자기들이 구월산기슭에 가서 풀을 베놓겠다는 것이었다. 구월산기슭까지는 여기서 십오리가 되였다. 《가뜩이나 풀원천이 없는곳에서 우리까지 불비면 풀거름을 어디서 내겠습니까.》

우리가 래일 구월산으로 가겠으니 여기 덕천벌 풀은 농장원들이 맡으십시오.》

정치지도원의 말에 길영채는 펄쩍 뛰었다.

《아니, 그만두게. 그건 공연히 남의 농장일을 해주는격이네.》

《꿀을 먹자면 벌한테 쏘이기도 해야지요. 입만 벌리고있으면 꿀이 저질로 들어올리가 만무지요.》

그러는 윤정호에게 길영채는 자상히 설명해주었다. 구월산쪽으로는 아직 길도 나치지 않는데다가 작업반의 룬전기계들을 총동원했잖아 기름값도 찾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풀거름을 나르자고 아까운 연유를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였다. 그러나 윤정호는 조용히 웃으며 중대를 이끌고 구월산으로 들어갔던것이다. 길영채는 지금 꿀을 배면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윤정호가 가있는 구월산쪽으로 눈길을 돌리곤 하였다.

서천강을 따라 상류로 오르면 구월산기슭이 닿게 된다. 이때 얼마 멀지 않은 강기슭에서 웬 군관이 물을 걸어차며 내려오는것이 어렴풋이 바라보였다. 길영채는 은근한 호기심에 그쪽으로 눈길을 가져갔다.

《아니. 반장동무가 아십니까?》

마주오는 사람이 먼저 반색하며 동쪽으로 올라섰다. 뚝배에도 윤정호정치지도원이였다.

《그런데 이 새벽에 웬일이요?》

길영채는 군복바지가랑이가 화락하니 젖은 윤정호를 어리둥절해서 바라보았다.

《바람도 쏘일겸 물길을 걸어보았습니다.

반장동무, 이 물길로 풀단을 얼마든지 나를수 있겠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한 백오십키로가 실히 되겠지요?》

윤정호의 뒤에는 조롱박처럼 매달린 풀단들이 물우에 떠있었다. 그는 풀단들을 갈라 새끼줄에 매고 끌고왔던것이다.

《한단에 스무키로씩 여덟개나 아홉개씩은 넉넉히 매달고올수 있습니다. 한시간정도 걸으면 올수 있습니다.》

윤정호는 비탈진 쪽에 앉으며 즐겁게 웃었다.

《아니. 그럼 풀단을 운반하려고 스스로 힘든 걸음을 한단말이요?》

《지휘관인 내가 해봐야 전사들에게 명령할수 있거든요. <나를 따라 앞으로!> 하고 말이지요.》

《정치지도원동무-》

길영채는 물먹은 어조로 그를 부르며 두손을 짝 부둥켜쥐었다.

길영채는 그달음으로 구월산기슭으로 달려갔다.

풀단들이 여기저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윤정호는 군인들앞에서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동무들!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은 결코 자동차를 타고가듯 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어이 해내야 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는 풀단을 덕천벌에 날라들여 거름을 마련할수 있으며 다음해 농사를 잘 지을수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공지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로동으로 농장벌에 풍년작황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장의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는것이 아닙니까.

땅속에 스며드는 물은 잦아들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어서 곡식이 자라구 꽃이 피는것처럼 우리가 바치는 진정은 반드시 조국의 재부로 남을것입니다. 자, 나를 따라 덕천벌로 풀단을 나릅시다.》

그의 말에 호응하는 군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구월산골짜기로 메아리쳤다. 얼마후에 서천강으로는 풀단을 끄는 군인들의 행렬이 늘어서게 되었다.

길영채는 작업반원들을 풀단운반으로 펼쳐나서게 하였다. 군대와 인민이 서천강물에 뛰어들어 풀단을 운반한 보람은 남달리 컸다. 덕천벌과 잇닿은 서쪽강쪽에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풀더미들이 길게 무쳐지게 되었다.

길영채는 윤정호와 함께 풀단을 나르며 군대지휘관들의 모습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 지휘관들이 앞채를메고 달려나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한것으로 만들수 있다는것을 길영채는 알았다.

지난 시기 작업조직을 면밀하게 짜고들고 영농물자를 끌어들이는것으로써 작업반장의 책임을 다하는것으로 여기였던것이 부끄럽게 돌이켜졌다.

군관가족들을 태운 뺑스는 다음날 아침에 작업반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을 맞이하려고 달려간 길영채는 뺑스앞에 이르러서는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뺑스안에서 내리는 사람들속에 중대장의 환한 웃음이 어린 얼굴이 보였던것이다. 중대장은 삼륜차에 실려있었다.

《반장동무-》

중대장이 뺑스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소리쳤다.

길영채는 서둘러 달려가 중대장의 목을 꼭 껴안았다. 이윽고 작업반 처녀들이 중대장에게 깃듯이 인사를 하며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중대장은 물기가 그렇하니 고인 눈으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나서 삼륜차를 밀고있는 한 젊은 녀인을 자기 안해라고 소개하였다.

얼마후에 작업반선전실 앞마당에는 반원들과 군인들이 모여앉아 가족들이 준비한 기동예술소품을 관람하였다.

맨마지막에 중대장의 안해가 중대장을 밀차에 싣고 나왔다. 중대장은 사위를 둘러보며 허두를 땀다.

《저는 몇달만에 다시 정든 덕천리에 왔습니다.

자나깨나 침상에서도 잊지 못해하던 내 고향이였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그리고 집에 있으면서 가물피해로 저수지들의 수위가 낮아져 바닥이 보이고 풀잎과 나무잎들마저 말라버린 사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 왕가물속에서도 농사를 이악하게 짓고있는것을 볼 때 저의 가슴속에는 이것이

과연 우리 장군님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군민의 단결된 힘으로구나 하는 환성이 저절로 터져나왔습니다. 올해에는 기어이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해야 할 우리들이 아닙니까. 덕천리에 오면서 온 나라 들판에 설레이는 벼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5작업반 농장원들이 저를 명예농장원으로 등록하고 제몫까지 일해왔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제가 그 고마움을 무엇으로 다 갚겠습니까.》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츰 토막토막 끊기우더니 흐느낌속에 아주 잦아들고 말았다. 그의 안해가 나직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농사를 잘 지어 기쁨을 드리려는 저의 남편의 몫까지 대신해주는 농장원들과 병사들에게 우린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높이 들었다. 물기를 머금은 그들의 노래소리가 하늘가에 울려 퍼졌다.

그들의 노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어 주었다.

모두가 그들이 부르는 혁명가요를 따라 불렀다.

길영채는 생각이 깊어졌다.

덕천리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귀중한 몸을 서슴없이 바치고서도 무언가 모자라는것만 같아 저렇게도 죄스러워하는 중대장... 남편들인 군관들과 군인들을 잘 도와주고있는 농장원들의 정성이 고맙다고 눈물 머금으며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어주는 가족들... 그들모두의 아름다운 모습은 길영채의 가슴을 파고들면서 걱정과 험악하게 하였다. 적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와 자연의 혹심한 피해, 일시적인 식량난을 극복하며 군민이 힘을 합쳐 농장벌을 가꾸어온 올해.

길영채는 정녕 이 한해가 자기를 성장시켜준 《대학과정》으로 여겨졌고 농사를 단순히 씨를 박고 거름을 내어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실무적인

과정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고 내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보람찬 투쟁의 나날이었다는것을 더욱 뜨겁게 절감했다.

길영채는 평양하늘을 우러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군대와 인민이 한 전선에서 어깨걸고 생활하면서 인민은 군대를 따라 배우고 군대는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정신을 더 훌륭히 키우게 하시려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저는 오늘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군님덕분에 우리 농장의 공기는 달라지고 숨결도 걸음걸이도 생활방식도 완전히 군대식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웨치는 길영채의 눈굽은 불로 지지는듯 뜨겁게 달아올랐다.

맹세보다 실천이 앞서고 형식보다 내용을 귀중히 여기는 군인들의 작전방식, 총화방식, 평가방식을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갈 때 성과는 몇천 배로 크다는것도 길영채는 이번에만 알았다. 군인들모두가 한없이 돋보였다. 이런 훌륭한 인민군대가 있고 인민이 있는 한 우리 조국은 일시적인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의 봄언덕에 올라 붉은기를 높이 휘날릴것이다.

×

군인들이 덕천리를 떠날 날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농장원들은 군인들이 남긴 군인정신과 생활기풍, 도덕과 문화는 우리의 투쟁과 생활속에 영원히 남아 공기처럼 흐르게 될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있다. 농장원들은 군인들이 떠나기전에 무슨 색다른 음식을 한가지라도 더 해주려고 애썼고 꾸려보낼 산나물들과 물고기들을 말리워두기도 하였다. 떠나는 정, 보내는 정은 불보다 뜨거워진다.

그렇다. 우리 나라는 군민일치로 굳게 뭉친 나라이다. 이제 우리는 조국통일도 군민일치의 힘으로 이룩해갈것이다.

그 순간 그자리에

김석전

자신을 세워보라
뜻밖의 정황으로
내 만일 이름모를 적구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자신을 세워보라
삶이나 죽음이나
황금과 칼을 들고 운명을 희롱하는
원썬들과 마주서는 그자리에

조국을 위해서라면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수 있다고
평범한 날에 하던 말이
존엄한 날에 어떻게 울리는가를

가차없이 검증되는 판가리 그 계선에서
말해보라 심장이
그 순간 그자리에 나도 설수 있는가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자폭의 폭음으로 대답한 영웅들처럼
조국을 위해 백발을 없으면서도
혁명의 절개를 지킨 신념의 화신들처럼

오, 그 순간 그자리에
나도 몇몇이 설수 있다고 몇몇이 말할수 있도록
심장이, 언제나 채찍을 얹어달라
내 한생의 하루하루에!

반월가

김청수

음침한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있었다. 도교의 어지러운 공기와 뒤섞여 제 빛갈을 잃은 재빛눈이 푸른 옷을 발가벗기워 앙상한 뿔나무들을 희롱하며 내렸다. 음산한 겨울이었다. 벤치에 앉아 줄담배를 피우던 지순호는 무거운 눈길을 들어 사이고 다까모리의 동상을 바라보았다. 《정한론》을 제창하여 일본을 오늘처럼 《대국》으로 만들 수 있게 하였다하여 일본인들속에서 극구 찬양을 받고있는 저 사람도 이 동상에는 얼어붙었는지 번쩍이던 눈마저 빛을 잃었다. 《제법 숨엄하게 서있는 그 꼴이 보기 싫어 난 봄부터 뿔나무일사귀가 다 떨어질 때까지는 그 공원에 가지 않아.》 하던 리경진의 말이 생각키웠다.

요즘 순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었다. 반년 전에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던 아버지가 《국가보안법》에 걸려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이유는 아버지가 쓴 논문 《동명왕릉에 대한 역사적고찰》이 북의 주장과 동일하기때문이라 는 것이었다. 정부는 논문에서 1940년대 전반기 평양주둔 일본수비대가 군사훈련시 왕릉을 도굴한 사실을 언급한것은 국가간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엄중한것이라고 하면서 논문압수 소동까지 벌리었다.

아버지의 체포는 지순호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와세다대학 연구원을 다니고있던 순호는 돈이 떨어져 더는 일본에 있을수 없게 되었다. 순호는 고심끝에 연구원을 그만두고 서울로 돌아갈것을 결심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러비마저 없어 하는수 없이 시브야구에 있는 설옥이네 집을 찾아갔다.

설옥이네 집은 도교에서 보기 힘든 학각지붕을 한 《L》자형의 순수 조선식집이었다. 현대의 어루화 초담이라고 할수 있는 화려한 담벽돌레에는 무궁화 나무들이 자라고있었다. 문들도 부엌으로 들어가는 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미닫이였는데 창호지대신 투명통유리를 끼워넣어 환한 감을 주었다.

설옥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어놓고 무엇이 그리도 우스운지 가는 허리를 부여잡고 깔깔거리다가는 정숙해져서 노래를 불렀다.

...

나와 함께 눈사람을 만든 총각
지금은 그 어디서 속을 태울가

가년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서던 순호는 처녀의 순진한 모습을 보고 미소를 그렸다. 설옥은 순호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청초한 처녀의 얼굴은 눈 속에 핀 홍매화처럼 붉게 타고르고있었다.

경진은 자기 방에서 《조선유적유물도감》을 뒤적이고있었다. 순호의 불행을 이미 알고있는 리경진은 찾아온 사연을 덤덤히 들었다.

《그러니 서울로 가겠단말이지...》

《예, 지금 형편에선...》

경진은 아무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안에 몸을 웅크리고있는 순호는 소외감으로 하여 얼굴을 들수 없었다.

아! 돈! 돈이 뭐길래... 문득 후지메가 쓴 《가난에 대한 이야기》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사람은 빵만 가지고서는 살수 없지만 빵이 없어도 살수 없다.》 그때 순호는 크와쓰를 마시며 후지메의 말이 비슷하다고 속으로 긍정했었다....

《참 딱하군. 도와줄수 없는게...》

리경진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살처럼 순호의 귀전에 날아왔다. 수치감때문인지 얼굴이 숯불처럼 달아올랐다. 그는 음식준비가 다 되었다고 올상이 되어 웨치는 설옥의 말소리도 못듣고 맥없이 그 집을 나왔다.

그날 저녁 신주구에 있는 순호의 숙소로 설옥이가 찾아왔다. 처녀는 억이 막힌지 《아버지를 용서해주세요.》하며 울기만 하다가 그냥 돌아갔다. 이튿날 순호는 텔레비죤우에 얼마간의 돈이 있는것을 보았다. 설옥이가 놓고간것이 분명하였다.

그것이 바로 리경진이 지순호를 위해 베푼 최대의 동정이였다. 순호는 그 돈으로 연명해가며 직업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설옥이를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아침에 처녀는 우에노공원에서 만나자고 전화를 걸어왔던것이다.

《지군. 오래간만이군.》

옆을 보니 뜻밖에도 《남조선대사관》 문화참사 송철수가 서있었다. 요즘 유행인 회색면숨옷을 입은 송철수는 손에 쥔 신문으로 벤치의 눈을 툭툭 털더니 순호옆에 앉았다.

《<엘래스커>에서 잡부로 일한단지?》

《예.》

《참 안됐군.》

송철수는 눈을 가느스름히 뜨고 살진 턱을 쓸어만졌다. 송철수는 아버지의 제자였다. 언제 봐야 흥척스러운데다가 애비가 《유신》의 사생아여

서 아버지는 늘 송철수를 대궁보듯하였다. 아버지가 문문건으로 체포된후 송철수는 순호를 찾아와서 특이한 녀적코를 벌름거리며 언행을 주의해야 한다고 일장 혼시까지 하였었다.

《이것 보게. 올해 11월초 <중앙일보>석간일세.》

지순호는 송철수가 내미는 신문을 받았다.

《2면을 보게.》

《중앙일보》 2면에는 특호활자로 《20세기 몽페끄리스토펜.》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가 실려있었다.

《...일본 도쿄도 시브야구에 20세기 몽페끄리스토펜이 있는바...》

순호는 신문을 더 읽지 않고 도로 송철수에게 내밀었다.

《왜 읽지 않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고 순호는 차갑게 대꾸했다.

《상관이 없다니... 나는 자네가 리경진의 외동딸 리설옥이와 무척 가까운걸로 알고있는데.》

《가깝지요. 하지만 나는 참사선생앞에서 계속에 낫내기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럴수도 있지.》 송참사는 벤취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협낭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러나 돈앞에서 점잔을 뺄 필요는 없어. 벌써 300여년전에 일본불교의 거장인 도무사이경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것은 돈이라고 했네... 이보라구. 돈이 권력이야. 내가 알고있건대 리경진은 2천점이 넘는 력사유물들을 수집하였네. 그것이 몇십억팔라가 될지 아니면 몇백억팔라가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네. 만약 자네가 그 집 식구가 된다면 정부도 자네 부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걸세.》

송철수는 조롱하듯 후-하고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나는 리기적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본적이 없는데요》 《나는 결혼에 대해서 말할뿐이네. 사랑이 결혼이라는 열매를 맺자면 반드시 리기라는 차단소를 걸쳐야 하네. 리상적인 사랑은 있어도 리상적인 결혼은 있을수 없어. 내 말을 잘 생각해보라구.》

송철수는 바지에 묻은 눈을 털며 가버렸다.

채빛눈이 훑날렸다. 보라바람이 불어와 머리가 흩어졌다.

순호는 눈을 감았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온다. 흐느끼듯 떠는 처녀의 노래... 눈바다, 흑가이드의 눈바다우를 누벼가는 노래를 순호는 《우라시마 다로》려관의 침대우에서 들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그루 토끼 한마리
뚝대도 아니 달고 샷대도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라로

노래는 달빛을 타고 바람소리를 타고 들어와 이국의 눈나라에 있는 순호의 가슴을 마구 형클어놓았다. 순호는 참을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강쇠바람이 삼지창처럼 날아들어왔으나 순호는 창가에 서서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문득 울려나오는 조선말...

《아버지, 왜 서쪽나라로만 갈까요?》

《해님이 있으니까 가지.》

순호는 그들이 건너편방에 있는 동포부녀들을 알았다. 《눈꽃선녀》, 처녀를 처음 보았을 때 순호는 이렇게 생각했었다. 함박꽃같은 하얀 모자가 신비경이 흐르는 머리우에서 움직일 때마다 달랑 달랑 춤을 추었고 백설로 지은것 같은 털솜옷은 흑단목처럼 반짝이는 눈과 도화빛 두볼, 온갖 고결함이 다 깃든듯싶은 선이 끝은 코와 천진성과 랑만성을 쉬임없이 토하는 빨간 입을 황홀하게 부각시켜주고있었다. 팔과 얼굴모색이 조금도 비슷한데가 없는 아버지는 고집불통같은 인상을 주었다.

연구논문때문에 흑가이드로 왔던 지순호는 고려시기유물을 수집점이나 가지고있다는 일본인로인을 이들을 해매서야 겨우 찾을수 있었다. 팔손을 넘긴 로인은 하루전에 조선인부녀가 와서 사갔다면서 늦었다고 허를 찼다.

《그들이 <우라시마 다로>에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가보이.》

순호는 《눈꽃선녀》를 상기했다.

(그럼 그들이?...)

순호는 그길로 《우라시마 다로》려관의 부녀가 류숙하고있는 방으로 갔다.

초인종을 조심히 누르니 잠시후에 처녀가 문을 열었다. 처녀의 긴 속눈썹에는 구슬알들이 맺혀있었다. 《난데스까?(무슨 일이세요?)》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흐린듯하던 처녀의 눈이 반짝이는 순간 구슬방울들이 뺨에 떨어져내렸다. 잘못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어 순호는 잠시 무춤거렸다.

《전 와세다대학 연구생인데요. 실은 아버님을 좀 만나뵈오려고...》

처녀는 얼굴을 싸쥐었다. 가느다란 손가락사이로 눈물이 새어나왔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슴이 후둑 뛰었다.

《글쎄 아버지呀...》

상서롭지 못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간파한 지순호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설옥의 아버지인 리경진은 흑가이드의 사나운 날씨에 독감을 만나 누워있었다.

《약을 잡셨는데두 열이 내리지 않아요.》

《의사에게 알렸습니까?》

처녀는 머리를 가로지렀다.

《그럼 빨리 알립니다.》

방을 나온 순호는 급히 접수실로 내려갔다. 접수가 비어있어 한참만에야 급사를 찾아 주변병원 전화번호를 알아낸 그는 전화를 걸어 《우라시마다로》 3층 5호실로 왕진을 요청했다. 다시 5호실로 들어간 순호는 와뜰 놀랐다. 웬 두명의 건장한 사나이들이 참새처럼 바들바들 떠는 처녀의 앞에 버티고 서있었던것이다.

(야꾸자!)하는 생각이 그의 뇌리를 쳤다.

문소리를 듣고 한놈이 돌아섰다. 무지막지한 인상에 징그러운 웃음까지 띄워 소름이 돋았다. 번쩍! 하는 순간에 비수가 날아왔다. 순호는 엉겁결에 목을 움츠렸다. 비수는 두툼한 가죽을 찢은 문에 박혔다. 그 순간 용기가 생긴 순호는 놈이 날아오는것을 보고 옆으로 비켜서며 사타구니를 걷어찼다. 옥! 하고 놈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수그를때 두손으로 머리칼을 움켜잡아서는 무릎으로 놈의 머리를 힘껏 쳤다. 동료가 쓰러지자 방안에 있던 《야꾸자》는 비수를 뽑아들고 전실로 나왔다. 둘사이에는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다. 우당탕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오고 경찰이 왔다. 순호는 경찰이 놈들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것을 보고 의식을 잃었다. 칼에 찔려 여러 군데에 중상을 입었던것이다. 설옥은 마침서관으로 온 의사가 응급처치를 하자마자 두사람을 부축하여 공방으로 나가 후가이드를 떠났다. 야꾸자의 보복이 두려웠던것이다. 순호는 시브야구에 있는 설옥의 집에서 한달가량 치료를 받았다. 그후부터는 리경진이 유물을 수집하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었으며 이 나날에 설옥이와도 무척 가까워졌다. 그는 설옥을 사랑하였으나 고백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것은 자기를 친오빠처럼 대하는 처녀의 티없이 깨끗하고 순진한 마음에 주눅이 들었기때문이었다. 그런데 저 가을땀같은 송철수의 입에서 사랑이요, 결혼이요 하는 소리가 나오니 구역질이 났다. 순호는 요즘 신쥬구에 있는 《앨래스커》료정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리경진이 왜 돈주기를 거절했겠는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왔다. 돈 몇십만엔이 아까와 거절할 경진이가 아니었다. 지순호는 경진의 사업을 도와주며 그의 인간됨을 속속들이 꿰뚫을수 있었다. 성실성과 인간성이 바로 경진의 제일 훌륭한 장점이라고 순호는 단정했었다. 하다면 무엇때문에?... 서울에 가는것을 바라지 않는것은 분명하다. 그것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물론 경진은 《총련》제도 《민단》제도 아니었지만 《민단》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었다. 그는 경주태생이였고 이남에는 그의 친척들이 많았던것이다. 그런데도 서울로 가는것을 반대하는것을 보면 다른 사정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혹시 설옥이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순호는 익숙되지

않은 담배를 피우곤했다. 공상을 인간생활을 라태와 공명으로 유혹하는 위험한 허상으로 증오하는 순호였던것이다.

(오직 현실적인것만이 필요하다. 그 현실은 《앨래스커》료정 잡부!)라고 생각하며 그는 담배꽂초를 눈속에 던졌다. 그는 떨어진 담배꽂초앞에 목이 긴 심황색방한화와 백설로 지은듯싶은 털솜옷 자락이 있는것을 보았다.

(《눈꽃선녀》...)

머리우에서 설옥이가 조용히 웃고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따스한 안정이 습배인 목소리다. 얼어들던 가슴이 훈훈해졌다. 순호는 설옥을 마주보며 병긋 웃었다.

《아니.》

《무척 힘드시지요?》

《습관을 붙이면 일없겠지. 고달픔은 하바닥인생의 배설물이니까.》

두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그래 무엇때문에 불렀소?》

《보구싶어서요.》

순호는 설옥을 보았다. 처녀의 얼굴은 노을빛으로 타버져올랐다. 설옥은 수집계 몸을 약간 비틀며 순호의 팔을 잡아끼었다. 이런 경우 불문물이 작용한다는것을 순호는 가까스로 생각하였다.

사실 설옥은 고민속에서 날을 보냈다. 그 고민으로 하여 결국 자리에 눕기까지 하였지만 그것이 사랑의 파생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다. 다만 집안의 은인이냐 다름없는 지순호에 대한 아버지의 처사가 불미스러워 울었던것이다.

어제저녁이었다. 어머니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한상 가득 차려놓고는 딸을 억지로 침상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설옥은 지순호에 대한 편민의 정이 북받쳐올라 종시 수저를 들지 못했다.

《애야, 너 왜 그러니? 순호때문에 그러지?》

딸은 눈물이 그렇게서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 아버지가 순호에게 돈을 주지 않아서 불만이나?》

《...그래요. 글썽 돈 몇푼이 아까와서... 흐흑. 아버지... 돈이 있구 사람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있구 돈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두...》

《애야, 순호는 서울로 영영 가려고 한다. 그런데 넌 순호를 그 길로 보냈으면 좋겠니?》

어머니의 물음에 설옥의 고운 눈이 화등잔처럼 커졌다.

《어디 말해봐라.》

설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다니?! 우리를 두고 나를 두고 영영 가려했단말인가. 안돼. 가면 안돼. 그럼 난 무슨 희망으로 아침을 맞이하겠는가...)

설옥의 얼굴은 핫핫 달아올랐다. 처녀는 지순호를 열렬히 사랑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던것이다.

《엄마!》

설옥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계집애들 생각이란 그릇의 랭수처럼 얕다니까.》 어머니는 혀를 끌끌 찼다. 《그래 아버지가 순호더러 도교에 남아 우리 딸과 사시오 해야 옳겠느냐... 너도 네 할바를 스스로 깨달아 해야지. 아무리 자식이라두 일일이 다 말해줄수는 없는거란다.》

《어머니, 그럼 어떡하면 좋을까요?》

설옥은 눈물이 어린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태일 아버지가 기후에서 돌아오신다. 순호를 집으로 데리고 오너라.》

어머니는 한숨을 지으며 딸의 탐스런 머리를 쓸어만져주었다. ...

《순호썬 서울로 영영 가시려고 했대지요?》

처녀는 고개를 다소곳이 숙이고 물었다.

《그렇소.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정말 없었는가요?》

처녀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렸다.

《...》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여간 서운해하시지 않아요. 순호썬 우리 아버지의 노여움을 풀어드리셔야 해요.》

《풀어드리지요. 그다음엔 <얼래스커>료정 잡부만세를 부르지요.》

처녀는 걸음을 멈췄다. 처녀의 팔에서 순호의 팔이 스르르 풀렸다. 사위는 이상하다 할 정도로 조용하였다. 설옥은 천천히 머리를 돌려 순호를 올려다보았다. 해쓱하게 질린 뺨으로 눈물이 주욱 흘러내렸다. 순호는 손으로 처녀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나를 용서하오. 난 사실 ... 믿기 어려웠겠소.》

설옥은 눈을 감으며 순호의 가슴에 머리를 살며시 기대었다.

《난 ... 당신없인 못살것 같아요.》

두 런던이 시브야구의 집에 당도했을 때에는 이미 기후에 갔던 리경진이 돌아온뒤였다.

그들을 맞이하는 경진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지순호의 인사에 어설픈 미소만 띄웠다. 설옥이 어머니가 차를 들여오자 경진은 덤덤히 차를 마셨다. 설옥은 안절부절하는 순호를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었다.

《아버지, 기후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음?!... 음, 고구려시기 유물이 마흔세점이나 있더구나.》 리경진은 끝치가 아픈지 왼손으로 관자노리를 어루만졌다. 《돈을 너무 약차하게 내라는구나. 1억엔을 내라는구나.》

그소리에 모두들 놀랐다. 엄청난 액수에 놀란 지순호는 입을 반쯤 벌리고 얼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었다.

저녁식사가 끝나자 순호는 경진의 뒤를 따라 그의 방으로 갔다.

《요즘 일이 어떤가?》

경진은 순호에게 자리를 권하며 물었다.

《좀 고단하긴 해도 참을수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서울로 갈 생각인가?》

순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사실 전 아버님께 중요한 말씀을 여쭙려고 찾아왔습니다.》

《뭔가? 어서 말하게.》

경진은 담배를 피워물며 순호를 바라보았다.

《전...전 설옥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

순호는 힘겹게 말하고는 머리를 떨구었다. 리경진은 소파에서 잠시 일어서더니 잠시 아무말없이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었다.

《도교에서 력사를 연구하겠단 그 말이겠지?》

《...》

《나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게. 지금은 그런 생각할 경황이 못돼네.》

전실에서 차잔 깨지는 소리가 났다. 지순호는 입술이 피지도록 깨물었다.

신주구의 숙소로 돌아온 순호는 밤깊도록 잠들 수가 없었다.

고구려유물때문에 고뇌에 잠겨있던 리경진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질줄 몰랐다. 수십년을 조국의 력사유물들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온 리경진이다. 언제인가 샛뽀로에 유물수집을 위해 함께 갔을 때 경진은 유물을 찾기 위해 나선 경위를 이야기해준적이 있었다.

...경진은 원래 출판업을 경영했었다. 그는 빠리에 있는 한 친구에게서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3만여매짜리 우리 나라 고전소설 《명주기봉》이 있다는 말을 듣고 빠리로 갔다. 《명주기봉》을 풀이본으로 출판하면 큰 돈벌이를 할수 있을것이라고 타산했던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측에서는 한번 보는데만도 10만프랑을 낼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경진을 극도로 격분케 했다. 빠리에 있는 우리 나라 도서들은 로트제독이 인솔하는 프랑스크동합대가 지난 세기 말에 우리 나라를 침공했을때 강화도에 있던 장서들을 약탈해간것들이었다. 런던, 레닌그라드(오늘의 신흥-뻬페르부르크), 워싱턴에 가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제일 극심한것은 일본이였다. 조선초대총독이었던 데라우찌란놈은 개인조선박물관까지 가지고있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경진은 기어코 조선의 역사유물들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는 여기에 자기의 재산을 바쳤다. 안해는 빠짱꼬를 경영하여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순호는 리경진의 말을 들으며 몹시 감동되었었다. 리경진은 그후부터 유물수집에 자기의 심혼과 정력을 다 쏟아부어 2천점이 넘는 역사유물들을 수집하였다. 그것이 소문이 크게 나 일본과 이남의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까지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지난해 말에 일본문부성 고위관리가 직접 리경진을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는 리경진에게 정부의 이름으로 유물전시회를 도쿄에서 열것을 건의하였다. 그때 리경진은 아무 대답없이 그를 돌려보냈다.

《전시회를 열면 굉장한 파문이 일어나고 적지 않은 수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하고 순호가 물어보았을 때 경진은 심중한 얼굴로 《이사람 순호, 유물을 찾는 과정은 나를 찾고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네. 알겠나? 조선민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었던말일세.》라고 말했었다.

순호는 그의 말을 이해할수 없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리경진이 찾은 유물을 어떻게 처리하려는가는 그의 안해와 설옥이도 모르고 있다. 어쨌든 유물을 수집하려는 리경진의 욕망은 끝이없다. 지금 경진은 1억엔이라는 돈을 위해 고심하고있다. 그래서 순호는 잠을 자지 못하고 제나름의 고민을 하고있는것이다. 설옥이 아버지가 유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을것을 틀림없다. 그런 그에게 료정의 잡부가 나타나 딸을 달라고 했으니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겠는가. 유물수집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 사위감을 얻으려고 하겠지...

(그것은 이해할수 있는 일이야. 원망할 까닭은 없어.) 하고 생각하며 순호는 잠자리에 들었다.

며칠후 낮에 순호는 《일래스커》료정에서 차를 마시고있는 설옥을 보게 되었다. 순호가 다가가자 설옥은 눈인사를 하며 자리를 권했다.

《설옥씨가 웬일이요? 설마 내 꼴을 보자고 찾아온건 아니겠지?》

설옥은 파리해진 두볼에 알릴락말락한 웃음을 띠었다.

《풍담이래두 그런 말씀은 마세요.》

《무슨 일이 생겼소?》

순호는 의자를 가까이에서 끌어갔다.

《너무 속이 타서 찾아왔어요. ... 아버지가 1억엔을 위해 어머니가 운영하고있던 업체까지 다 팔았어요.》

《그것때문에 속이 탄단말이요? 하하하.》순호는 처녀의 순진성을 보는것이 사뭇 즐거운지 오래간만에 호탕하게 웃었다.

《야참, 울어도 시원치 않겠는데 거기선 웃으세요?》

설옥은 울상이 되어 발을 굴렀다.

《설옥씨, 설옥씨 몽테백작의 에데아가씨에 못지않은 재부를 가지고있단말이요. 말하자면 거부지. 그런데 그까짓 빠짱꼬업체가 없어졌다고 우는 소리를 하니 어찌 웃음이 나오지 않겠소.》

《순호씨, 저도 우리 집에 있는 유물들의 가치는 알아요.》 설옥은 정색해서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물이에요. 그것이 화폐로 전환되자면 경매에 붙이거나 아니면 전시회를 열어야 해요. 문제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데 있어요.》

순호는 머리를 끄덕이며 설옥이의 말을 수긍했다.

《그건 옳소.》

《그래 순호씨의 도움을 청하려고 왔어요. 순호씨, 아버지를 좀 만나주세요. 문부성의 건의대로 전시회를 열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말씀해주세요.》

《알겠소.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오?》

《바람을 좀 쏘이겠다고 아라가와강변에 나가셨어요.》

《그럼 같이 갑시다.》

3월에 들어섰으나 도쿄의 날씨는 아직 차가웠다. 연회색코트를 입고 강변을 거닐던 리경진은 딸이 지순호와 함께 다가오는것을 보고 반색을 지었다.

《너희들도 바람쏘이러 나왔느냐? 잘 나왔다. ... 도쿄의 봄이 스산하긴 해도 저 떠가는 얼음장을 보니 마음이 상쾌해진다.》

리경진은 기분이 좋은듯싶었다.

《저 아버님.》 지순호는 주저하다가 힘들게 말 꼭지를 뺐다. 《빠짱꼬업체를 팔았다면서요?》

《음 팔았네. 대신 고무러시기유물을 전부 받아왔네.》 하고 경진은 흡족해서 말했다.

《이젠 가세를 생각해주셔야 하질 않겠습니까?》

리경진은 굳어진 얼굴을 돌려 아라가와강을 바라보고있는 딸을 힐끔 보았다.

(못난이같으니...)

《여기 정부에서도 적극 협력해주겠다는데 어서 전시회라도 열도록 합시다.》

《음?!... 안돼!》 하고 경진은 지순호의 청을 냉정하게 잘랐다. 《똑똑한줄 알았더니만... 안되겠네. 나에겐 유물들과 설옥이가 재부야. 그러니 입자같은 사람에게겐 결단코 줄수 없네. 애야, 가자.》

경진은 딸이 움직일념을 안하자 노한 눈길로 쏘아보다가 다시 순호에게로 돌아섰다. 《이 아라가와강으론 지금도 조선사람의 피가 흐르고있어.》

리경진은 코트자락을 날리며 씨엉씨엉 가버렸다.

한방망이 얻어맞아 뺨해진 지순호는 얼음장이 뚱뚱 떠가는 아라가와강을 한참동안 바라보았다. 간포대지진때 가메도경찰서놈들이 수백명의 조선 사람들을 수장시킨 원한의 강이었다. ... 그러니 리경진은 이 일본에서는 전시회를 열지 않을 결심이다. 하다면 집안은?... 나에겐 딸을 결단코 줄수없다고 했지. 결단코!...

《순호씨, 성나셨어요?》

설옥의 물음에 순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그만...》

처녀는 어깨를 낮추었다.

《옳소. 아버지의 고명한 뜻을 따라야 하오. 이제 돈많은 사위감을 찾으시겠지.》

《예?... 이제 뭐라고 했어요?》 설옥은 커진 눈을 똑바로 뜨고 순호를 보았다. 《...함부로 모욕하지 마세요. 흐흫.》

처녀는 흐느낌을 터치며 아버지가 간쪽으로 달려갔다.

지순호는 무거운 한숨을 토하고 반대쪽으로 돌아섰다.

소로길을 지나 인도로에 들어섰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송철수가 까만 《메르세데스》 운전대를 잡은채로 얼굴을 차창밖으로 내밀고 어디로 가는 길인가고 물었다.

《<엘래스커>로요.》

《그럼 타게.》

지순호는 《메르세데스》에 올라앉았다.

《아라가와강엘 갔었나?》

《경치가 좋은 강이지.》

《...》

송철수는 휘파람을 불며 후사경으로 순호의 얼굴표정을 살피고나서 말을 꺼냈다.

《리경진인 자주 만나나?》

《그럭저럭...》

송철수는 뒤로 담배팩을 내밀었다.

《한대 피우게.》

지순호는 속이 불불는지라 사양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요즘 리경진인 뭘하고있나?》

《유물을 사들이고있지요.》

순호는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빠징 꼬까지 날렸다면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거부가 될거야. 되었다고도 할수 있지. ... 그래 자네의 그 리상적인 사랑은 어떻게 되었나?》

《조롱하지 마시오.》

지순호가 쓰아불이자 송철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직도 <차단소>를 통과하지 못했는가보군. 그렇다고 사랑관을 설교할 생각은 없네. 난 자네를 위해 말할뿐이네.》

《진정으로 나를 위한다면 더 말씀말아주시오.》

《허허 이거 안되겠군. 순호, 자네 <한국>인이야 <한국정부> 대표와 말하고있다는걸 명심하는게 좋아. 자네 어떤 일이 있어도 리경진의 딸과 결혼하여야 하며 그들과 함께 서울로 귀국해야 하네.》

《차를 세워주시오.》

순호는 놈의 역설을 더는 들을수가 없어 소리쳤다.

《세워주지. 요즘 리경진의 동향이 좋지 않아.》

자네한테 부친과 친척들의 운명이 달려있어.》

하고 위협조로 뇌까리며 송철수는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린 지순호는 허둥거리며 걸어갔다. 송철수의 말을 들으며 순호는 자신이 올바른 인생의 좌표가 없이 살아왔으며 또 살고있음을 통절히 깨닫게 되었다. 리경진이 하던 말들이 새라 새로운 의미를 띠며 되살아났다. 《...유물을 찾는 과정은 나를 찾고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었네. 알겠나? 통일된 조선민족의 일원이 되는 과정이었단말일세.》 그는 일본에 사는 동포들이 세 극한에서 살고있음을 문득 느꼈다. 그런데 이 지순호만은 좌표가 없이 생활의 함수속의 원점에서 방황하고있는것이다. 언제인가 리경진이 들려주던 그의 어린시절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것은 조국이 해방되기이태전 《덴쥔세프(천정철)》 날에 있는 일이었다.

... 《덴쥔세프》는 황태자의 생일날이었다. 미드웨이해전과 산호해해전의 패배로 태평양전쟁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민심이 불안하게 뒤흔들리자 《대본영》은 《덴쥔세프》를 성대히 기념하라는 명령을 떨어주었다.

경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여 《기미가요와지요니...》를 부른 다음 칼을 찬 교장이 앞에 나서서 천황의 칙서를 읽었다. 그리고는 경주거리에 나가 가창행진까지 하였다.

이날 《국어》 시간에 작문짓기가 있었다. 《국어》 교원은 《아이깁》이라는 별명이 붙은자였다. 《아이깁》은 《사랑하는 개》란 말이다. 학생들에게 조폭하기 이룰데 없는 그가 교장앞에서는 굽신거리며 《교쥔우센세이》, 《교쥔우-센세이》하고 개여울리는것이 눈꼴이 싸 학생들이 그런 별명을 달아주었다. 마른 명태짜같은 《아이깁》은 색욕이 파먹었는지 얼굴이 훌쭉한데다가 주독이 오른것처럼 시뻘겋는데 주먹코에는 마마자국같은것이 모래알을 뿌린것처럼 박혀있었다.

《아이깁》은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라는 작문제목을 주었다.

(우리 나라...)

오래동안 생각을 거듭하던 경진은 공책에 조선 지도를 그리고 그옆에 다음과 같은 시구절을 적어넣었다.

엄마없는 어린 새 눈오는 날에
발가벗은 나무에 혼자 앉아서
작은 고개 숙이고 눈물흘리며
엄마엄마 보고파 슬피 읊니다.

백옥같은 흰눈은 자꾸 내려와
어린 새의 작은 몸 적셔주고요
바람바람 찬바람 물려와서는
엄마없는 어린 새 때려줍니다

이것을 본 《아이깽》은 성이 독같이 올라 칼집으로 경진의 머리를 내리쳤다. 어린 경진은 피를 흘리며 까무러치고말았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진 뒤였다. 손바닥에 묻은 피를 보는 소년의 머리속에는 어린 시절에 즐겨 읊던 시 한구절이 떠올랐다.

꽃은 졌어도
자라는 나라
아되는 새소리
듣기만 좋다
그늘도 푸르니
우거진 풀에
이슬이 맺혀도
구슬로 본다

《육체는 있어도 넋을 잃어야 했고 고향은 있어도 조국이 없던 세월이었지. ... 일본은 결코 우리에게서 사십일년만 빼앗은것이 아니네. 반만년민족사를 송두리채 잃으려고 했지.》 하고 리경진은 이야기를 끝냈었다. ...

일본에 대한 피맺힌 원한을 품고있는 리경진이가 도쿄에서 조선유물전시회를 연다는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 아닌가.

리경진은 누구보다도 조국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야 자기가 필생의 목표로 삼은 조선력사유물수집보존사업을 성공할수 있기때문이었다.

하지만 남조선의 사대매국노들의 민족문화유산말살정책에 침을 뱉고 돌아선지 오래다. 남조선위정자들에게서 애국애족이란 있을수도 없는것이였다.

지순호는 경진의 이런 속깊은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언행을 경솔하게 하여 노여움을 샀던것이다.

그는 딸을 결단코 줄수 없다면 리경진의 말이 지극히 당연함을 자인하였다.

(아! 내 왜 이제야 깨달았는가...)

가슴을 쳐도 늦었다. 리경진도 설옥이도 그의 곁에서 떠나가버린것이다.

후회속에서 날과 날을 보내던 지순호는 봄기운이 완연한 어느날 오후 료정에서 리경진의 전화를 받게 되었다. 경진은 저녁에 집으로 와줄수

없겠는가고 물었다. 너무 뜻밖이여서 어리뻑뻑해있던 순호는 《예, 꼭 가겠습니다.》 하고 기쁨에 넘쳐 웨쳤다.

예전처럼 설옥이가 그를 맞아주었다. 정숙하면서도 맥없는듯한 처녀의 모습은 순호를 새로운 불안에 휩싸이게 하였다. 리경진은 아라가와강변에서의 일은 잊은듯 순호를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하였다. 《식사라도 함께 하자구 불렀네. 들어가자구.》

방에는 화려한 음식상이 차려있었다. 순호를 옆자리에 앉힌 경진은 송구해하는 그를 눈썹쳐주며 잔에 술을 부었다. 너자들의 잔에는 붉은 포도주를 부었다.

《자. 들자구.》

술을 몇잔 더 든 경진은 느닷없이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던 나날의 일들을 회상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성만 부르짖는다고 하지만 그 선전과는 달리 공화국에서는 민족성을 생명으로 하고있었네. 지난 6.25전쟁때 김일성주석님께서 군인들을 파견하시여 <조선봉건왕조실록>을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셨다는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 동명왕릉을 비롯해서 공화국 그 어디서나 력사유적유물들이 국보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있고 민족문화가 찬연히 꽃피나고있었네. 요즘 김정일령도자님께서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사랑의 사상을 내놓으신걸 놓고서도 알수 있지만 진정한 공산주의자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일세. 그때 나는 더욱 큰힘을 얻고 력사유물수집에 나섰네. 조국이 없는 사람의 돈이란건 쇠끼지만두 못하다는게 유산가로서의 내 인생지론일세. ... 나에게 훌륭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있는데 뭐 유물전시회를 도쿄에서 열라구?!... 유물전시회를 도쿄에서 한다면 그건 조국과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될걸세.》

《아버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순호는 머리를 숙이며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깨달았으면 됐네. ... 격분스러운것은 저 이남의 당국자들이야. 해방전 우리의 력사를 고의적으로 외곡수정한 이마니시류같은자를 찬양하고있는것만봐도 잘 알수 있지. 조선의 력사를 찾고저 그토록 애면글면한 자네 아버지를 감옥에 넣은게 바로 저 매국역적들이야. 이남은 단군족의 력사를 말살하는곳이지 결코 찾을수 있는곳이 아닐세.》

순호는 경진의 말을 심중히 들었다. 경진은 서울로 가려고 했던 이 지순호를 깨우쳐주고있는것이다.

《이사람 순호, 자네 우리 가문의 은인이지. 자네와 헤어지긴 괴롭지만 우린 결심했네.》 경진의 목소리는 흐느끼듯 떨리고있었다. 《우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네.》

《예?!...》

순호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천천히 둘러보니 설옥의 해쓱하게 질린 볼에도 설옥이 어머니의 후더운 인정이 스민 얼굴에도 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참된 민족의 참된 녀이 꽃피는 공화국으로 가네. 이것이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네.》

(그럼 나는?!...)

순호는 두눈을 감았다.

왜서인지 식탁에 있는 빨간 포도주잔이 눈앞에 얼른거린다. 햇솜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푸른 하늘, 신목이 짙은 야산 사과나무밭으로 한 어린이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뒹뒹하며 간다.

《엄마, 사과를 왜 빨강나?》

《해빛을 받아 빨강단다.》

《헤헤 가짓부리. 빨간물을 들었어.》

잊을수 없는 고향. ... 《짱!》 폭음소리... 비명소리. 엄마를 잃은 어린이가 울고있다. 닭사냥을 하는 미군들, 황폐화된 고향, 군사기지라고 쓴 말뚝에서 까마귀가 울고있다. ...

《고향은 있어도 녀를 잃은 조국! 아 이것이 이남의 현실이란말인가. ...》

《발언 중지!》

웅변대회장에서 경찰에 끌려나가는 젊은 대학생...

비내리는 부두가. 반백의 아버지가 아들을 바래우고있다.

《야야 우리는 잃어버린 력사, 매국과 침략의 흑막속에 가리워진 력사를 찾아야 한다.》

《알겠어요, 아버지.》

《총련계나 이북이라고 해서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족의 피는 포도주보다 진하단다.》 ...

(아버지! 전 아버지를 사랑해요.)

《내 나라의 력사를 찾는것이야말로 아버지에 대한 참사랑이다.》

아, 이것은 마포의 철창속에서 울려나오는 피의 부르짖음의 메아리인가...

《저도 공화국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는 울음소리가 숨막힐듯한 정적을 깨뜨렸다. 설옥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쏟았다.

《난... 난 너희들을... 조국에서 축복해주고싶었다.》

리경진은 목메인 소리로 중얼거렸다.

보름후 그들은 조국으로 가는 귀국선에 올랐다.

달밤. 물결소리... 배는 서쪽으로 가고있었다. 검푸른 하늘에서는 쪽배같은 반월이 쉬임없이 따라오고있었다.

경진의 일가는 갑판에 서서 옥을 다듬어 배를 만든듯싶은 반말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선수쪽에서 학생방문단의 녀학생들이 부르는 《반월가》가 들려왔다.

은하수를 건너서 구름나라로
구름나라 지나서 어디로 가나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것
새별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아버지, 기쁘세요?》

설옥이가 웃음을 머금고 속삭이듯 물었다.

《기쁘구말구. 조국을 잃구 울면서 떠나왔던 내가 오늘은 민족의 5천년을 안구 돌아가는구나.》

바다는 세차게 격랑일었다. ...

몇년후 주체사상탑이 바라보이는 김일성광장앞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리경진동포가 조국에 기증한 력사유물전시회가 대성황리에 열리였다. 전시회가 개최되면서 리경진동포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가 수여되였다.

가사

내 고향이 아름다울 때

리린

해빛넘친 산기슭에 나무 심네 기쁨 심네
애어린 잣나무도 억년뿌리 내리게
에루화 데루화—

내 사는 내 고향 천만년 아름다울 때
여기 사는 우리 삶도 천만년 아름답다네

강줄기 곧게 퍼며 돌을 쌓네 기쁨 쌓네
큰물에도 가꾼 땅 흘러서 가지 않게
에루화 데루화—

내 사는 내 고향 천만년 아름다울 때
여기 사는 우리 삶도 천만년 아름답다네

내 마음 네 마음 바치여가세나
나무 하나 돌 하나도 고향의 얼굴 되게
에루화 데루화—

내 사는 내 고향 천만년 아름다울 때
여기 사는 우리 삶도 천만년 아름답다네

낫

임창학

이른새벽, 아직은 어둠의 장막이 걷히기도전에 나의 어머니앞에는 서른개가 넘는 낫가락들이 놓여졌다. 《고난의 행군》을 승리로 결속하자고 온 한해 우리가 농장벌에 묻어온 땀과 지성의 열매를 거두어들일 낫들이었다. 강질이 좋아 누구나 마음에 들어하는 황철낫으로부터 후더분한 녀인의 눈섭을 스케치해놓은듯싶은 평복낫은 물론 온 마을의 낫가락들이 여기 우리 집에 다 모여온듯싶다.

오늘처럼 벼가을을 시작하는 첫날은 집집마다 별식들을 해먹고 이른새벽부터 동리 좌상들을 찾아다니며 분주함을 피우곤한다. 한뼉 농사로 늙어오는 실농군들에게서 낫날을 세워가지고 들에 나가면 해종일 가도 무디지 않는다는것이 우리고장에서는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졌기때문이다. 그런 좌상늙은이의 자격은 이 아침 나의 어머니에게도 안겨진것이다.

《어머니, 어서 시작하세요.》

마을사람들의 얼굴을 한사람, 한사람 일별해보는듯 낫가락들을 하나하나 만족스럽게 들여다보던 어머니는 조용히 솟돌앞에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저고리 소매를 걷어올리고 나를 의미있게 바라보며 말하는것이였다.

《네것도 꺼내오렴.》

나는 서둘러 부엌에 들어가 작년부터 내가 사용해오는 어머니의 낫가락을 꺼내다가 앞에 놓았다. 그런 다음 어머니앞에 마주 앉아 어릴 때처럼 손을 오무라뜨리고 물을 퍼담아 솟돌에 끼여주곤했다.

석—석—석—

솟돌에 낫날이 오르내릴적마다 걸쭉한 돌가루물이 흘러내린다.

낫! 어머니의 한생과 련결되어있고 이 나라 농민들의 운명이 얹혀있는 낫! 솟돌에 버려지는 저 낫날처럼 실농군의 자세를 나에게 버려준 나의 어머니! 지금도 어머니에 대해 생각할 때면 언젠가 세포비서아바이가 나에게 들려주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젊은 시절에 대한 회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곤한다.

1

홍안의 젊은 시절 아버지가 어머니를 처음 만나게 된것은 나라가 해방된지 3년만에 애국미를 바치려 읍으로 가던 길에서였다고 한다.

...

그날을 그해의 첫눈이 평평 쏟아지고있었다. 햇숨같은 눈송이를 함뿍 맞으며 읍으로 뻗어간 해변 산골길로 달구지를 몰아가던 나의 아버지 립선도는 세미골 고개마루에서 소를 멈춰세웠다. 솟눈길 한복판에 한쪽 바퀴가 빠져내린 달구지가 주저앉아있었던것이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달구지옆에는 외태머리처녀가 쪼그리고앉아 울상을 하고있었다. 성큼성큼 처녀앞으로 다가서던 아버지는 저도 모르게 흠칫 놀랐다. 눈판에 한가로이 주저앉아 새김질을 하던 시누런 황소가 별떡 일어서며 제법 빨질을 하는것이였다.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이였다.

《예끼! 이놈의 소...》

아버지가 두발을 구르며 소리치자 놀란것은 소가 아니라 처녀였다.

《어마나...》

아버지는 눈우에 나딩구는 달구지바퀴와 눈을 털며 일어서는 외태머리처녀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아스럽게 물었다.

《달구지주인은 어데 갔소?》

《제가...》

《응? 동무가?...》

《저, 아버지가 아파서 제가 대신... 애국미를 바치려 읍에 가냈는데...》

떠들거리는 처녀의 울먹울먹한 목소리에는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부탁이 숨배여있었다. 두사람은 달구지의 짐들을 조심조심 맞들어 부리우기 시작했다. 아련해보이던 처녀가 어찌나 눈썰미가 빠른지 예상외로 손이 착착 맞아돌아갔다. 일손을 맞잡은 처녀가 허리를 굽힐 때마다 봉긋한 앞가슴에 드리워지곤하는 치렁치렁한 외태머리는 눈이 녹아내려 더욱 검어보였고 참기름을 바른듯 윤기가 찰찰 돌았다. 어찌나 탐스러운지 담썩 만져보고싶은 생각까지 들었다. 잠간새에 짐을 부리우고 바퀴를 굴러다가 제자리에 맞추고보니 바퀴축 끼우개가 보이지 않았다. 눈속에 파묻히지 않았나해서 무릎이 젖는줄도 모르고 주변을 훑었으나 허사였다. 울상이 되어버린 처녀를 바라보던 아버지는 자기 달구지로 다가가 낫가락을 들고왔다.

《됐소. 읍은 아이를 찾는다더니...》

《어쩔려구...》

어리둥절해진 처녀는 놀라움에 차서 아버지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낫날을 바퀴살에 끼우고 자루를 비틀었다. 한참 신고를 한 뒤끝에

자루목이 터지며 낫날이 쑥 빠져나왔다. 아버지는 만족한 기색으로 뽑아낸 낫날을 달구지바퀴 축 구멍에 맞추었다.

《어마나! 그럼...》

《일없소. 우선 가던 길이야 끝까지 가고 봐야지...》

《정말 고마워요.》

처녀는 총각을 외면한채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인사말을 하고는 제먼저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는 자기의 달구지를 한옆으로 비켜세웠다.

《저, 먼저...》

처녀의 달구지옆을 지나며 총각은 공연히 몸가짐이 거북스러워져 애꿎은 소에게 채찍을 안겼다.

《이랴!》

돌아오는 길에 옷마늘로 올라가는 갈림길목에서 아버지는 처녀에게 슬며시 이름을 물어보았다. 두눈을 살쾅이 내려간 처녀는 코고무신을 신은 버선발로 눈장난만 칠뿐 대답을 피하려고 했다. 낫날을 찾으러 가련다고 짐짓 위엄스럽게 말해서야 처녀는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이름대신 자기 집을 대주었다.

《저... 향나무가 서있는...》

《아! 샘골 향나무집!》

아버지도 그 집을 알고있었다. 해마다 애국미를 제일 선참으로 바치군한다는 열성농민네 집을 왜모르랴. 모르고있었던 것은 그 집에 이런 탐스런 처녀가 있었다는것뿐이었다.

그날밤 자리에 누워 뜬눈으로 뒤척거리며 처녀의 외태머리를 그려보던 아버지는 날이 밝자 삼촌과 함께 샘골로 향했다.

《내 조카래서가 아니라 정말루 우리 동네 기둥감같은 젊은이외다. 우리 마을의 첫 당원이거든요.》

당원이라는 말 한마디면 모든게 다 해결되기가 하는듯 삼촌은 구수한 마라초를 큼직하게 말아붙이며 나앉았다. 처녀의 아버지는 어뜩새벽에 나타난 류다른 손님들을 앉혀놓고 긴 말을 하지 않았다.

《난 찬성이우다. 그 젊은이 처녀 나꾸는 솜씨가 농군답거든. 낫날에 슬쩍 걸어서. 허허...》

그리고는 김이 문문 피어오르는 소여물을 퍼담아들고 부엌을 나서는 딸을 불러앉혔다.

《순녀야, 자고로 우리 향나무집은 농사군을 으뜸으로 아는 집이니라. 난 이 젊은이가 마음에 든다.》

양지쪽에서 냉이씨가 뽕죽뽕죽 고개를 내미는 무렵, 아버지와 그 처녀는 한가정을 이루었다. 그처녀가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 그때 어머니가 해가지고온 폐장감속에는 갓 버린 큼직한 낫도 들어있었는데 신랑네 집에서는 소박한 세간불이

들보다 그 낫가락을 이손저손 돌려가며 저마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행복한 생활은 전쟁의 포화로 흐름을 멈추었다. 아직 새각시티를 벗지 못한 어머니는 마을사람들이 안보이게 멀리 동구길까지 전선으로 떠나는 남편을 따라나갔다. 자꾸만 따라나오는 어머니를 억지다짐으로 돌려세우고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다.

《순녀, 내 없어두 땅을 묵이지 마오. 하늘이 무너진대도 농사군은 농쟁기에 녹이 쓸게 해선 안돼오.》

하지만 신혼생활의 꽃수레가 덜컹 멈추어섰는데 어찌 일이 손에 잡히랴. 가장 평범한것조차 사랑스럽게만 보이던 새각시의 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고향풍경마저 빛을 잃고 쓸쓸하게만 안겨왔다. 어머니는 사립문을 닫아매고 방안에 들어앉아 신기루같던 지나간 나날들의 사소한 세부들까지 기억속에서 끄집어내여서는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며 떠나간 남편을 그리워했다. 그러다가 한번은 대문기둥에 꽂혀있는 낮에 빨경게 돌아난 반점들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녹이 쓸고있었던것이다. 농쟁기에 녹이 쓸다니... 전선으로 떠나며 하던 남편의 마지막말이 뇌리에 공명되며 가슴을 울렸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치마폭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벌에 나갔다. 평화로운 시절 저녁노을이 아름답게 비친 서쪽하늘을 배경으로 영각소리 울리는 누렁소를 앞세우고 남편들과 나란히 자기들의 보금자리로 돌아오군하던 녀인들이 연약하기만 하던 어깨우에 위장망을 걸치고 억센 모습으로 보탑을 잡고 나선것이 준엄했던 그 당시 이 나라의 농촌풍경이었다.

어느날 전선에 나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편지였던가. 다른 집녀인들이 전선에 나간 남편에게서 온 편지를 받아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부럽게 바라보며 언제면 자기에게도 편지가 올가 하고 바재이던 어머니였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도 소식이 없으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해서 가슴을 조이며 덜통한 남편을 속으로 원망하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가 온것이다.

어머니는 산기슭 밭머리의 참나무밑에 앉아 세번이나 편지를 곱씹어 읽었다.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두눈은 행복으로 하여 환히 빛났다.

《...

순녀.

전투의 설참에 우리 전우들은 자기 부모와 안해와 애인들에게 편지를 쓰고있소. 생사를 판가름하는 싸움을 앞두고 나도 고향에 편지를 보내는 행복을 맛보고싶구만.

그간 소식이 없다고 날 많이 욕했겠지. 내 성
미가 원래 덜통해서 그러니 용서하오.

난 건강한 몸으로 잘 싸우고있소. 그러니 내
걱정은 마오.

...

순너. 후방을 땅을 부탁하오. 후방에서 농사가
잘되었다는 소식을 당신의 회답으로 알겠소...》

소식이 없을 때는 매정하다고 욕도 속으로 많
이하였으나 정작 편지를 받으니 너무도 기쁘고
행복하여 어머니는 눈물이 다 나왔다.

그날밤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회답편지를 쓰려
고 앉은뱅이책상우에 백로지를 펴놓고 마주앉았
다. 책상우에는 연필을 꺾느라 가져다놓은 낫가
락이 가물거리는 등잔불빛에 번들거리며 위엄있
게 놓여있었다.

무엇을 쓸것인가. 정작 쓰자고 하니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

연필뒤등을 깨물며 낫을 바라보느라니 행복하
던 그 시절 남편과 함께 글을 배우던 일이 삼삼
이 떠올랐다.

등잔심지를 돈구어놓은 책상앞에 어머니가 앉
아 연필을 서툴게 잡고 한자한자 써나가느라면
바위처럼 듚직한 아버지가 등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들여다보다가는 거울진 손으로 어머니의 자
그마한 손을 움켜쥐고 틀린곳을 하나하나 고쳐주
곤했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때도 책
상우에는 연필을 꺾느라 들여다놓은 낫가락이 놓
여있곤했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낫을 바라보느라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더더욱 못견디게 가슴을 파고들었
고 여전히 낫날이 무디지 않았다는것만은 알려주
고싶었다.

동창이 환히 밝아올무렵, 그리다가는 지우고
그우에 다시 그린 자리가 뚜렷한 백로지우에는
억센 손아귀에 틀어쥔 낫 한가락이 그려져있었
다.

어머니가 난생 처음 종이우에 그려본 그림, 그
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픈것이였으나
저기에는 땅을 가꾸는 사람이 피로써 땅을 지켜
사는 사람에게 보내는 맹세가 깃들어있었고 이
땅에 가꾸는 사람이 피로써 땅을 지켜가는 사람
에게 보내는 맹세가 깃들어있었고 이 땅에 주인
이 있다는 자각된 의지가 엄숙히 새겨져있었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어느날 저녁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그때 낫을 그려보낸 회답편지를 온
대대가 다 돌려보며 그림에 담겨진 농사군의 소
박한 진정을 읽었다고 말할 때 어머니는 낫을 그
릴 때의 마음을 남편이 알아주었다는 행복감으로
하여 이불속에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렸다.

행복하던 나날이었다. 전쟁으로 몇었던 생활을
봉창하려는듯 깨가 쏟아지는 행복의 무아경속에

세월이 흘렀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협동조합이
생기고...

그러나 지나친 행복은 일찍 서리를 맞는법인가.
제 한몸 돌볼 생각않고 농사일을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던 아버지는 전쟁때의 부상자리가 도져
종시 자리에 눕고말았다. 쇠로 빚은것 같던 아버
지가 하루아침에 누워버리자 어머니는 지금껏 쌓
아올렸던 행복의 탑이 줄지에 무너져내리며 가슴
을 두드리는것 같아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다. 남
편을 다시 일으켜세울수만 있다면...

하지만 간절히 바란다고 하여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다.

어느날 아버지는 세포비서를 찾아오라고 했다.

《무슨 일인지 나에게 말해요.》

알고있는 아버지의 결을 떠나기 싫어하며 어머
니가 말했다.

《아니, 세포비서를 찾아오오.》

《제가 하겠다는데두요.》

뜻밖에 아버지는 어성을 높였다.

《이건 당신이 참견할 일이 아니오.》

어머니는 놀랐다. 지금껏 남편에게 제일 가까
운 사람은 자기라고 생각했던 어머니에게는 아버
지의 말이 너무도 가혹하게 들렸던것이다.

섭섭한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한채 어머니는 세
포비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방안에 들어
가지도 못하고 부엌에서 서성거리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왔다.

《할 일을 다 못하고 너무 일찍 가는걸 용서해
주우다. 비서동무, 이건 내 당원증과 이달 당비
요.》

어머니는 소리내여 울지도 못하고 부뚜막에 쪼
그리고앉아 터져나오는 오열을 씹어삼켰다. 이런
기막힌 일도 있는가. 손톱으로 부뚜막을 허비며
몸부림치는데 문득 방 안에서 어머니를 부르는 소
리가 들렸다. 눈곱도 채 닦지 못하고 들어서니
아버지는 단정한 자세로 세포비서와 마주 앉아있
었다. 칙통한 낫빛으로 말없이 앉아있는 세포비
서의 손에는 아버지의 선혈이 물든듯한 빨간 당
증이 들려있었다. 딱 한번 본적이 있는 남편의
당원증이다. 언젠가 이불속에서도 보물처럼 허리에
두르고있는 당원증주머니를 만져보며 한번만 보여
달라고 응석을 부리자 아버지는 안된다면서도 그
것을 펼쳐보여주었었다.

《이건 내 목숨과도 같은거요. 당신도 앞으로
당원이 되오.》

《어마나, 제가요?!》

그날밤에 어머니는 피씩 웃어버렸었다. 언젠하
면 몸에서 떨어져본적 없고 정말로 목숨과도 같
던 당원증이 지금은 세포비서의 손에 쥐여져있고
빈 당원증주머니만이 아버지의 무릎우에 놓여있었
다.

《이 주머니는 당신이 전사하오. 그걸 오래 비워두지 말았으면 하오. 그게 비어있으면 우리 마을에 당원의 자리 하나가 비게 되는게 아니겠소. 나는 당신이 그자리에 서주길 바라오. 당에선 우리농민들을 믿구 당마크에 낫을 새겨넣었는데 당신두, 그러구 자식들두 그 낫에 녹이 쓸지 않게, 낫날이 무디지 않게 살아주오...》

2

아버지는 그렇게 갔다. 그때 내 나이는 6살이였고 누이동생은 3살잡이었다고 한다. 언제인가 세포비서아바이가 아버지의 제상에 놓았던 떡과 지짐따위를 길거리에 들고나가 같은 또래 애들의 손에 쥐여주며 뛰어다니는 철부지가 그 시절의 나라고했을 때 나는 너무도 억이 막혀 비서아바이의 가슴에 와락 얼굴을 묻었다.

아! 어머니. 피덩이같은 어린 두 자식을 치마포에 싸안고 눈물을 짹짹 흘리던 그때의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정말이지 마음의 기둥이 통채로 무너진듯 눈앞이 캄캄해진 어머니는 며칠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누가 돌보는 사람조차 없어 태엽이 말짱 풀린 벽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것은 세포비서아바이가 우리 집에 온 날이었다. 태엽을 감아주고 난 아바이는 말없이 대문기둥에 꽂혀있던 낫을 솥돌에 갈기 시작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낫가락을 퇴마루에 올려놓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아바이는 머리가 형클어진채로 당연히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말했었다.

《이젠 그만 일어나시우. 슬픔은 일로 잊어야 하우다. 현근이 아버지가 남기고 간 말을 잊어선 안되지요.》

그날밤 아버지의 빈 당원주머니를 무릎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내려다보며 밤을 지새운 어머니는 얼레빗을 꺼내들고 오래동안 머리를 빗었다.

동틀무렵, 부뚜막에 아침밥을 쟁겨놓고 대문을 나서시는 어머니의 손에는 전날 세포비서아바이가 갈아준 낫이 들려있었다. 그날부터 밤늦게까지 어머니는 아버지가 채우다만 퇴적장에 풀단을 베여다쌓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물지계가 얼마나 컸던지 동쪽너머에서 물지계를 지고 퇴적장으로 올 때면 마치 작은 산이 움직여오는듯싶이 한다는 장정들도 혀를 내두르곤했다고 한다.

한번은 어머니의 지게다리가 부러졌었다. 아버지가 없은뒤부터 우리 집일을 도맡아해주는 삼촌이 마침 와있다가 지계를 제껴 고쳐주었다.

《형수님, 풀단을 좀 자그만치씩 지고 다니시우. 오죽하면 지게다리가 다 부러지겠소》

어머니는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미소를 지어보이고는 대문을 나셨다. 그렇게 나간 어머니가 한나절도 못되어 또 들어오는것이였다.

《삼촌, 또 부러졌어요. 좀 든든하게 해주세요.》

지게가 부러진것이 마치 삼촌의 일숨씨가 서둘기때문이거나 한듯 어머니는 핀잔조로 말하며 부러진 지계를 내보였다. 닭장을 손질해주느라 푹 딱거리던 삼촌은 억이 막히는지 병신다리지게를 내려다 보다가 그것을 와락 들어 허청칸쪽에 집어던졌다.

《난 그이상 든든하게 고칠줄은 모르우다. 그 일욕심에 쇠지겐들 견디겠소. 지계가 저 모양인데 제몸 녹아나는 생각도 해야 할게 아니요.》

우들거리는 삼촌앞에 말없이 서있던 어머니는 내던져진 지계를 가져다가 제손으로 고치려들었다. 웬일인지 어머니는 삼촌에게 성도 내지 않았다.

《삼촌마음을 제가 왜 모르겠나요. 정말 힘이 들어 주저앉구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던 말이 생각나곤하지요. 나나 현근이가 당에서 버려준 낫을 지켜야 하던... 난 한평생 그 한마디만 잊지 않고 살고싶어요.》

어머니는 웃고름으로 눈굽을 찍어냈다. 한동안 담배연기를 펄펄 날리며 무거운 자세로 앉아있던 삼촌은 불쑥 일어나 어머니의 손에서 지계를 알아들었다. 그리고는 창고구석에서 내 팔목만큼 굵은 노가지나무를 꺼내다가 지게다리기장만큼 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고쳐준 지계를 만져보며 어머니는 크나큰 소원이라도 성취된듯 밝게 웃어보이고는 또다시 대문을 나섰고 삼촌은 생각깊은 눈매로 어머니의 뒤모습을 바라우며 오래도록 서있었다.

나는 삼촌이 고깝게만 생각되였다. 지계를 고쳐주었으니 어머니는 또 일에만 재미를 붙이고 우리 남매 생각은 꼬물만치도 하지 않을게 아닌가.

하루종일 장난에 빠져 돌아치다가 초저녁에 지쳐 쓰러지면 언제 어머니가 들어왔나 나가는지 우리 남매는 알지도 못했다. 이따금 새벽녘에 깨어나보면 머리맡에는 오동나무잎에 담겨진 이스라치나 빨간 딸기 한줌이 우리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있었으니 그것이 어머니가 우리 남매에게 주는 애뜻한 사랑의 전부였었다. 그 딸기 한줌을 남겨놓고 어머니가 일어나 뒤이면 정신없이 군잠에 폴아떨어진 1학년생 누이동생과 나만이 행뎡그레한 방안에 남곤했다. 아버지없는 우리 집에 어른들의 사람이 그리웠던것은 더 말할나위도 없었다. 죽기보다 싫은것은 저녁늦게야 돌아오곤하는 어머니를 기다리다못해 쌀독을 열어 밥을 해

야 하는것이었고 아침이면 잠에서 깨어나지도 못하는 누이동생을 일러가며 밥을 먹이고 설겅이를 해야 하는것이였다. 학급동무들이 날보고 《너자애》라고 놀려킨때에는 정말이지 눈물이 다 나오곤했다. 내 고심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네에서는 집안일을 잘하는 착한 아이로 나에 대한 소문이 자자했다.

온몸에서 싱그러운 풀냄새를 풍기며 밤늦게 돌아온 어느날 어머니는 자지 않고있던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대견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용쿠나. 너두 이제 다 컸는가보다. 아버지가 없으니 네가 일찍 철이 드는게로구나.》

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때 이른 속단이였다. 내가 그때 정말로 철이 들었었다면 그후에 있는 일로 어머니를 노엽히지 않았을것이다.

그때 나에게 제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것은 어머니가 장농속에 깊이 간수해두었다가 이따금 꺼내보곤하는 아버지의 빈 당원증주머니였다. 덮개가 있는 까만 가죽주머니에 빨간 명주실을 꼬아 줄을 단것이였다. 전투가방처럼 허리에 메고 다닐 수 있는 그 주머니를 노리던 어느날 나는 신성불가침으로 되어있는 어머니의 장농을 대담하게 열 어제끼고 그것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그 주머니안에 아버지가 전선에서 달고왔다는 훈장들이며 못과 단추같은 잡동사니들까지 블록하게 끌어넣고 마을애들앞에 척 나타냈다.

《보라. 너희집엔 이런 가방이 없지. 우리 엄마 거야》

《애개개, 무슨 가방이 그렇게 꼬꼬마하니. 우리 아버지 담배쌈지보다도 작구나.》

《그건 뭘하는거냐. 나 주렴아, 군사놀이할 때 간호원가방하자.》

옆집의 새침때기 옥분이가 체비뽕지만한 머리를 달싹거리며 내옆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돼. 우리 어머니한테 욕먹어.》

《어머니가? 응. 마침 너희 어머니가 온다.》

《영? 어데?》

상냥한 얼굴로 다가오던 어머니는 내 가슴에 드리운 빨간 명주실끈을 알아본 순간 대번에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가늘게 떨리는듯한 어머니의 손바닥이 내앞에 와서 멎었다.

《벗어라!》

감히 거역할수 없는, 여태 한번도 들어본적 없는 어머니의 음성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며 주머니를 벗어 내밀었다.

《집에 가자!》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문안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세차게 오르내리는 가슴에 나를 꼭 그러안았다.

《이녀석아! 이건 아버지의...》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울려다보았다. 눈물이 가랑가랑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왜서인지 나도 설음이 복받쳐올라 그만 왕-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부터 어머니의 장농에는 언제나 누런빛의 봉어자물쇠가 입을 꼭 다물고 보물주머니를 지키게 되었다. 가뜩이나 말수더구가 적은 어머니는 그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는 더더욱 말이 적어졌고 나를 대하는 품이 전보다 달라진것 같았다.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꼭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난 그저 감각으로 그것을 느꼈을뿐이였다.

어느날 새벽 오줌누러 깨여났던 나는 아직 벌이 총총한데 벌써부터 동자질을 하고있는 어머니가 보고싶어 부엌으로 들어갔다. 잉결불이 이글거리는 아궁앞에서는 어머니의 로동화가 김을 문문 피워올리며 말라가고있었다. 어제밤 이슬에 젖었는지 아니면 벌써 이 새벽에 나갔다가왔는지 어머니의 치마자락에서도 김이 오르고있었다. 나는 아궁앞에 쪼그리고앉아 어른스럽게 신발을 받쳐들고 끌고루 말리우기 시작했다.

《어머닌 이슬이 그렇게도 좋나?》

《그럼 좋지 않구.》

《그건 왜? 발이 시리겠는데두...》

《밤에 이슬이 많이 내려야 벼알이 총알처럼 더 잘 여물구 또 농사군은 이슬에 신발을 적서봐야 진짜 땅냄새를 맡을수 있게 된단다. 너도 벌에나와 이슬에 신발을 적서보렴. 너 이제 나하고 벌에 나가보지 않겠니? 멋있단다.》

어머니의 은근한 말에 난 피씩 웃어버렸다.

(피! 멋있긴. 늘쌍 보는 땅인데.)

하면서도 나는 어머니의 말을 반대하지 않았다.

동견하늘이 환해지고 집집의 굴뚝에서 밥짓는 연기가 조용히 피어오를 때 나와 어머니는 대문을 나섰다. 어머니의 치마자락이 앞서나가며 이슬을 털어주느라 했던만 논두렁길에 들어서기 바쁘게 하얀 운동화는 대번에 폭 젖어들었다. 발밑이 끈적거리며 온몸이 오싹해났으나 집에 도로 가고싶은 생각은 없었다. 어머니를 따라 벌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갈수록 나는 이른아침 들판의 신비경에 점점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고요한 들판의 여기저기서 이름모를 풀벌레들이 저마끔 청을 돌구며 아침인사라도 하는듯 씨르륵거린다. 어머니가 나타나서야 잠을 깬 메뚜기들도 산지사방에서 반갑다고 뛰어오르며 벼이삭우에 살짝살짝 올라앉아 그네를 타는데 그럴 때면 수정처럼 맑은 이슬방울이 휘뿌러지며 아침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거린다. 나에게는 마치 온 들판이 어머니가 지휘하는데 따라 움직이는듯싶었고 어머니는 이 들판에서 생명을 가진 모든것의 총대장인듯싶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들에서 일하는걸 그렇게도 재미있어하시느걸가.

《어떠냐?》

어머니는 미소어린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물었다.

《좋아요.》

나는 열결에 대답했다. 대답은 해놓았으나 사실 어떻게 좋은지는 적어말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왜 새벽이슬이 듬뿍 내린 논두렁길에 세우고싶어했는지는 더욱 알수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좋기만 했다. 누이동생이 없는데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 무척 주렸던 나는 해종일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있고싶었다. 그날 내 손목을 꼭 쥐고 방축길을 걸어들어오며 만시름을 잊은듯 환하게 웃고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눈앞에 삼삼하다.

어느덧 아버지의 소원대로 어머니가 당원이 되는 그런 날이 왔다. 하늘의 축복인양 온 강산에 흰눈이 소복이 내려쌓인 정월 어느날 어머니는 당원증을 받으러 군당에 갔다. 중학교졸업을 눈앞에 두었던 나는 어머니를 마중하기 위해 동생과 함께 동구밖을 멀리 벗어나 읍으로 가는 고개마루에까지 올라갔다. 그 고개마루는 처녀시절 어머니가 아버지를 처음 만나던곳이라고 한다. 하얀 눈송이를 소담하게 뒤집어쓴 우중충한 산발들과 주위의 소나무들은 흰 눈과 선명한 색채를 띠고 한눈에 안겨왔다.

산등성이에 거의 올라서서야 우리 남매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도 고개마루에 방금 당도했는지 하얀 입김을 장수처럼 펄펄 날리며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목에 두른 흰 양털 목도리때문인지 어머니는 여느때보다 더 젊고 곱게 보였다. 아니, 당원이 된 기쁨과 환희가 어머니의 얼굴을 더 밝게 했으리라.

《어머니!》

우리 오누이는 두팔을 활짝 벌리고 웃고있는 어머니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서로서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돌아가던 우리 세사람은 그대로 백설의 포단우에 나가넘어졌다. 어머니는 가운데, 나와 동생은 그 량옆에 부채살처럼 반듯이 누워 하늘을 향해 밝은 웃음을 보였다.

우리 어머니도 당원이 되었다!

그때까지는 나도 당원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을 다는 몰랐지만 하여튼 우리 어머니같이 새벽이슬을 좋아하는 사람만이 당원이 될수 있다는것과 그것이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것이며 따라서 어머니의 행복은 곧 우리 가정의 행복으로, 자랑으로 된다는것만은 모르지 않았다. 잠시 후에 몸을 일으키고보니 우리가 누웠던 눈판우엔 신통히 당마크비슷한 자욱이 찍혀져있었다. 우리 세사람은 그 모양을 신기하게 들여다보며 오래동안 말없이 서있었다.

어머니는 나란히 서있는 우리 오누이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다.

《애들아! 우리 언제나 당마크에 새겨진 낫을 지켜 살자. 이젠 돌아가신 너의 아버지가 림종의 시각에 나에게 남긴 말이다. 너희들도 이젠 아버지의 말 뜻을 알 때가 됐다.》

머리우의 태양은 은빛세계우에 엄숙한 자세로 서있는 우리들에게 찬란한 빛발을 뿌려주고있었다

3

어머니가 당원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부터는 우리 집에 단란한 생활이 시작되리라 믿었었다. 어머니도 이제는 당원이 되었으니 집에서 우리 남매와 함께 남들처럼 생활을 즐겨도 되리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누이동생이 다 자라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는데서는 해방되었지만 어쨌든 그후에도 우리 남매는 어머니와 함께 밥상에 마주앉아 웃어보는 날이 드물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나는 농장원이 되었다. 남들은 대학으로, 군대로 떠나가지만 나는 왜서인지 낫을 든 농장원이 되고싶었던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소원이기도 했다.

농장에 배치받은 날 저녁에 어머니는 지금껏 자기가 써오던 낫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낫살이 초생달처럼 곱게 휘고 자루가 반들반들하게 보기만해도 손싸보였다. 그 낫을 무슨 큰보물이나 넘겨주는것처럼 내 손에 들려주며 어머니는 말했다.

《언제 한번 무디여본적 없는 낫이다. 아버지가 주는것으로 알고 받아라.》

《알겠어요.》

선뜻 받아드는 낫가락과 내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는 어머니의 눈빛은 왜서인지 맑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했다. 어머니는 지금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나를 못미더워하는것이다.

(어머니, 걱정마세요! 나두 이제 낫을 사랑하게 될거예요.)

작업반에서는 나를 3분조에 배치해주었다. 어머니의 분조에 가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참 다행이었다. 자기를 어른처럼 생각하고있던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일한다는게 어쩐지 쑥스럽게 생각되었던것이다.

나는 내 손으로 낫을 세운 낫가락을 들고 벌어나갔다. 분조장이 벼수확기를 타라는것도 마다하고 다락논으로 올라갔다. 농장원이 된 첫날부터 힘들다는 벼가울을 실컷 해보고싶었던것이다.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이 맑은 가을바람에 흐느적이며 나를 기다리고있었다. 가슴이 뻐근하게 차오

르는 흥분을 녹갯히며 나는 두발을 넓게 디디고 벼그루에 첫 낫날을 대었다.

스르륵, 스르륵...

나는 벼 한단을 묶어 들고 일어서서 장한 일을 하고 칭찬을 바라는 어린애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함께 배치받은 동창생 옥분이라도 저쪽 논배미에서 벼단을 들고 나를 향해 밝게 웃어보인다. 아, 제손으로 가을한 첫 벼단을 안고 웃음짓는 이땅의 새세대들... 시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천이랑 만이랑 끝도 없이
한가득 부풀어오르는 황금의 들은
그대로 환한
웃음빛이구나

하지만 벼가을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아 나의 입에서는 랑만에 넘친 시가 아니라 고달픈 한숨과 짜증이 은연중에 새어나왔다. 아침마다 내손으로 품들여 갈근했지만 무슨 낫이 그리도 잘 무디는지 한나절도 쓰기 힘들었다. 게다가 처음엔 단단하던 낫날까지 자꾸만 건들거리면서 한층 더 부아를 돋구어주었다. 돌맹이 하나 없는 허허벌판에서 낫자루를 박으려면 한참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날도 하루 작업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낫자루가 또 빠져버렸다.

(에라, 래일 마저 하자.)

나는 맥이 난김에 주저앉고말았다. 마음 한구석에 꺼림직했지만 분조장이 다가오며 첫술에 배부르겠는가고 위로해주는 바람에 나는 집으로 들어오고말았다.

여느때보다 일찍 들어온 어머니가 부엌문앞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수고했구나.》

《에이 참, 낫자루가 말썽을 부리는 통에 조금 남겼어요.》

《그 포전이야 오늘까지 끝내게 되어있잖니?》

《까짓거, 래일 마저 하지요 뭐》

어머니는 무슨 말인가를 할듯말듯 하더니 그냥 돌아섰다. 날이 빠져버린 낫자루를 퇴마루에 집어던지고 방안에 들어간 나는 밥상을 물리기 바쁘게 따뜻한 아래목에 허리를 쭉 펴고 뭍아떨어졌다.

얼마나 잤는지... 밤중에 일어나보니 어머니 자리가 비어있었다. 부엌에서 인기척이 들리는걸 보아 아직도 뭔가 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사이문을 열어제겼다. 어머니는 아궁앞에 앉아 낫을 갈고있었다. 내 낫이었다. 어제 저녁 자루가 빠진 채로 퇴마루에 올려놓았던 낫은 자루가 맞춰져있었다.

《그건 내 낫이 아니예요?》

《그래. 네가 아직 낫을 쓸줄 모르는구나. 좋은 것도 망탕 쓰면 인차 못쓰게 된단다. 이걸 단순히 농쟁기로만 생각해서야 안되지...》

한참만에야 어머니는 낫날에 손가락을 대보며 날이 섰는가를 가늠해보더니 나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좀 잤으면 옷을 입고 나오너라.》

《왜요?》

《벌에 나가자. 앞으로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들어오는 버릇을 고쳐라. 천리길도 한걸음에 시작된다지만 그 첫걸음이 중요한거란다.》

나는 아무 대꾸도 못했다. 그러니 어머니는 어제 저녁 내 말을 들으며 얼마나 억이 막혔으랴. 밤새 잠 한잠 못자고 이 아들의 낫을 고쳐주며 나에게 농장원의 첫걸음을 어떻게 배워줄것인가를, 내 마음속에 억년 무딜줄 모르는 낫날을 어떻게 세워줄것인가를 생각했을것이다.

어머니와 함께 보름달이 환한 벌에서 어제 저녁 남겨둔 벼를 말끔히 가을하면서 나는 어머니처럼 진짜 농사꾼이 되게 결코 헛치 않음을 두려움속에 ஏ감하였다.

그 두려움이 아마도 나에게 실농군의 체모를 점점 갖추게 해주었는지...

몇해후 나는 내가 일하던 분조의 분조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날저녁 어머니는 방금 처낸 말큰한 찰떡그릇을 가져다놓으며 대견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나이 이제 스물세살에 작업반의 기둥이 됐구나. 열아홉정보의 땅을 책임진 분조장이면 어깨가 무겁느니라. 처신을 주의하구 어른들을 존중하면서 일을 잘해야 한다.》

그 다심한 어머니가 언제나 내 뒤에 서있는 탓에 분조장으로 선거된지 3년만에 우리 분조는 농장적으로 최고수확을 낸 분조로 되었다.

마을사람들도 진정으로 나를 축복해주었고 어른으로 대접해주었다.

《3분조장! 한대 태우라구.》, 《실농군의 집에서 실농군이 나오겠지. 아무렴.》

어느날 세포비서아바이가 설참에 당규약책을 주머니에 넣어주며 공부를 하라고 할 때 나는 정말이지 하늘에라도 올라간듯한 기분이였다. 당원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무슨 일에서나 성수가 났고 자신심이 생겼다. 모든 일에서 남들의 앞장에 서려는 승벽심이 더 강해졌고 분조의 체모와 관련된 일에서는 몇갑절로 원심을 썼다.

나는 분조창고를 하나 큼직하게 지을 계획을 세우고 작업반에 제기했다. 이 몇해사이에 작업반은 물론 분조세간살이는 또 얼마나 불어났는가 나의 제의는 패히 승낙되었다. 제길손이 있는 젊은 사람이 분조장을 하니 일하는 잡도리가 다르다고 분조원들도 무척 좋아하는것이였다.

그런데 불로크찍는 작업조에 배치된 동무들속에서 발을 파도 일없겠는가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허나 나는 그것을 단호히 일축해버렸다. 날이 점점 차지는데 뒤편너머에까지 가서 진흙을 파올 형편이 못되었던것이다.

《가짓거, 파면 얼마나 파겠대구.》

불로크를 다 찍고 땅을 고루어놓으면 그만인 아닌가. 설사 그 자리가 곡식이 자라는데 지장은 좀있겠지만 거름도 더 내고 이삭비료나 듬뿍이 주면 될텐데... 나는 옷등을 제끼고 나섰다. 하지만 그 일이 어머니의 노여움까지 사게 될줄이야.

《너 정신있니? 발을 파헤치면 어찌자구. 도대체 농사군갈지 않구나.》

어머니는 분조원들이 지켜보는것도 아랑곳않고 격분에 몸을 떨며 나를 꾸짖었다.

나는 어머니의 욕설이 옳은줄 알면서도 분조원들앞에서 체면이 손상되는것이 창피스러워 철부지시절처럼 울뚝뚝을 부렸다. 아니 그것은 철부지의 울뚝뚝이 아니라 리성을 잃었을 때의 망언이었다.

《됐어요! 땅이야 내가 책임지지 않을라고요. 아무데나 뺄치면서...》

《뭘!》

어머니의 주름깊은 얼굴에선 순식간에 피기가 사라졌다. 숨쉬는것조차 잊고 어머니는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았다. 하늘같이 민던 자식에게서 배반당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허튼 길로 들어서는 자식을 돌려세울 힘이 없는 늙은이의 안타까움과 원망이 어머니의 얼굴에서 흐르고있었다. 한동안 망연한 자세로 상처자리처럼 파헤쳐진 발머리와 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던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돌아섰다. 비척거리며 걸어가는 어머니의 뒤통수는 어느때보다 더 허리가 굽어보였고 금시 쓰러질듯 기력이 쇠잔해보였다.

그때에야 비로소 나는 어머니가 몹시 늙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릿해짐을 느꼈다. 나는 못볼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을 외면해버렸다. 결국 발머리를 파는 작업은 분조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반대하는 통에 중단되고말았다.

그날저녁 나는 이래저래 심기가 편치 않아 동무네 집에 가서 평양친척이 가져왔다는 맥주를 취하도록 들이마셨다. 더구나 어머니를 노엽히고 맑은 정신으로 집에 들어갈 자신이 없었던것이다.

은 마을이 깊은 잠에 들었는데 등성이에 자리잡은 우리 집 창가에서만 돌아오지 않은 이 아들을 기다려 불빛이 흘러나오고있었다. 휘청거리는 몸을 겨우 유지하며 나는 우정 요란스레 대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래목에 새우처럼 꼬부리고 누워있던 어머니가 머리수건을 바로 쓰며 나를 올려다보는데 나는 취중에도 어머니의 눈이 별경

게 상기되었음을 알아보았다. 누이동생마저 대학에 가고있는 빈 집에서 어머니는 낮에 있는 일을 두고 혼자서 우신것이다.

조용히 일어난 어머니가 밥상을 챙기느라 부엌에서 달그럭거리는 소리를 듣느라니 가슴이 후두득거려 견딜수 없었다. 자식에게 모욕을 당하고도 가마안에 파곤한 밥그릇을 들여놓고 밤늦도록 그 불초한 아들을 기다려준 나의 어머니. 내가 이런 어머니를 욕보였던말인가. 나는 어머니를 마주볼수 없어 밥을 먹었다는 말을 허아래소리로 웅얼거리고는 얼른 옷방 침대에 올라가 누워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눈을 떠보니 벌써 새벽이었다. 령수생각이 나서 문을 열어보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다. 잠자리를 거두고 마당에 나서던 나는 뜻밖의 정경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어머니가 집앞의 터밭흙을 파서 무쳐놓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

나는 한달음에 달려가 어머니앞을 막아섰다.

《비켜라! 이저라두 그 발머리에 저내야겠다.

제 흙보다는 못하겠지만...》

《어머니! 제가 그만...》

나는 그만에야 눈물이 왈칵 쏟아져 어머니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하염없이 떨어지는 눈물을 검붉은 대지는 조용히 받아들었다.

어머니는 쇠진한 기력을 모아 흙지게를 지고 자식이 상처를 낸 그 발머리로 힘겹게 걸어나가고있었다. 허둥지둥 뒤따라갔을 때는 이미 짐을 쏟아놓은 어머니가 삽질을 하고있었다. 나는 무작정 어머니의 손에서 삽을 앗아들었다. 터슬터슬한 어머니의 손이 나의 손잔등을 어루쓸어만졌다. 어머니가 나에게 하고싶은 이야긴들 얼마나 많았으랴.

난 그날새벽 어머니가 하지 않은 말까지 다 들어보려고 애썼다. 나는 어머니의 참모습을 그날에야 어렵듯이 이해한듯싶었다.

당원인 어머니를 이해하고싶은 마음이 아마도 나에게 농사군의 바른 자세를 가지게 해주었는지 그 다음해 가을 우리 분조는 군적으로 최고수확을 낸 다수확분조로 되었고 나는 그로록 바라마지 않던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내가 당원증을 받던 날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었다.

《난 우리 농촌에 대를 이어 낫을 지켜갈 사람이 또 한사람 늘었구나 하구 생각하니 정말 기쁘구나.》

크지 않은 회의실에서 나의 입당을 찬성하여 세포당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손을 쳐들 때 나의 마음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어머니!》하는 부르짖음이 터져나왔다.

철없던 그 시절, 머리맡에 놓여진 한줌 딸기가 어머니 사랑의 전부인줄 알았던 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는것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베풀수 있는 사랑의 최고표현인줄만 알았던 나에게 낫의 주인이된 자각, 농민의 당원의 크나큰 세계를 알게 해준 나의 어머니! 아! 자식은 언제 가야 가장 크고 아름다운 어머니의 마음의 세계를 다 리해할수 있을것인가...

×

서른개가 넘는 낫가락들이 어머니의 손에서 시퍼렇게 날이 버려졌다. 토방우에 주련히 놓여진 낫날들이 금시 떠오르는 아침해빛을 받아 유난히 빛을 뿌린다. 어머니는 걷어올렸던 저고리 소매를 내리우며 낫가락들을 바구니에 정히 담는다. 그리고는 오늘 나와 함께 벼가을 하고싶다면서 낫가락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한발 먼저 대문을 나섰다.

들크무레한 가을향기가 온 들판에 차고넘쳤다. 어머니는 나오자바람으로 맨 선찬 논밭에 들어섰다. 분조원들도 저마다 제 낫가락을 찾아들고 돌격선에 나선 병사마냥 포전머리에 산개했다.

첫날부터 승벽이 살아난 분조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뒤질세라 벼가을을 다그친다.

스르륵, 스르륵...

벼베는 소리가 온 들판에 넘쳐난다. 어느때는 늠름해보이던 어머니가 논판에 들어서니 마치 무대우에 나선 무용배우처럼 그 룰동이 유연하기 그지없다. 두발을 적당히 벌리고 한 본새로 낫질을 하는 어머니의 손에서 눈깜짝할 사이에 벼단이 척척 만들어지곤 할 때마다 모두의 입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튀어나오군한다. 어머니는 지금 그 룰동적인 자세로 내앞에 서있고 내뒤에서는 옥분이가 따르고있다.

소꿉시절부터 한동네에서 자란 옥분이는 이젠 나이찬 처녀로 성장하여 포전길을 나와 함께 걷

군한다. 어릴적 아버지의 당원증주머니를 훔쳐가지고 나온 나에게 간호원가방하자면서 주머니를 달라고 손을 내밀던 제비꽂지머리태의 그 처녀가 얼마전 보름달이 헤엄치는 보도랑가에서 자기가 만든 당원증주머니를 불쑥 내미는것이였다. 빨간색실로 당마크까지 새긴 자그마한 가죽주머니였다.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기대를 포함하여 많은것이 담겨진 그 주머니를 무겁게 받아안은 날 저녁 나는 옥분이가 너무도 사랑스러워 난생처음 처녀를 포옹하여보았다.

옥분이는 아까부터 내 허벅다리를 쿡쿡 찌르며 어머니를 따라 앞서보라고 부추긴다.

《내가 단을 묶어줄테니 그냥 베나가기만 해요. 어머니를 한번만 앞서보라는데...》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려 히죽 웃어보이고는 여전히 같은 속도로 낫질을 한다. 똑심으로는 어머니를 따라잡을수 있겠지만 나는 어머니를 앞서고싶지 않았다. 아니, 어머니를 앞설수 없었다. 어머니옆에 나란히 서기조차 부끄러웠다. 난 지금껏 어머니의 뒤를 겨우 따라왔을뿐이다. 어머니는 한생을 저 하늘을 날으는 기러기떼의 길잡이처럼 언제나 나의 앞장에 서서 살아오시지 않았는가. 어머니의 한생과 함께 이 나라 농촌의 새 력사, 낫의 진정한 력사가 시작되지 않았는가.

낫! 낫이란 무엇인가

계으르면 무디여지고 잃으면 노예가 되는 그것, 그 계급의 무기는 우리 당에 의해서 당창건기념탑의 한부분으로 사회주의 푸른 하늘아래 마치고 붓과 함께 거연히 세워져있다. 《고난의 행군》을 하고있는 오늘도 그 계급의 무기는 대지를 지켜선 자각된 주인들이 억세게 틀어쥐고있기에 이 땅에는 언제나 풍년과도가 물결치게 될것이다.

가사

고난의 행군길에 노래가 있었네

리명근

눈보라가 앞을 막고 총탄은 비발쳐도
고난의 행군길엔 노래가 울리었네
투사들 부르던 신념에 찬 혁명의 노래
오늘도 우리 부르며 승리를 펼쳐가네

열백번을 쓰러져도 노래로 일떠섰고
사령부 붉은기도 노래로 지켜냈네

투사들 부르던 신념에 찬 혁명의 노래
오늘도 우리 부르며 승리를 펼쳐가네

장군님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우에
영원한 길동무로 노래는 함께 있네
투사들 부르던 신념에 찬 혁명의 노래
오늘도 우리 부르며 승리를 펼쳐가네

분리의 아픔을 두고

최명남

산과 들에서 풍성한 열매가 무르익어가던 어느 날, 우리 가구직장제재칸은 여느때없이 흥성거렸다.

나와 같은 작업반에서 일하고있는 한 동갑친구가 직장통계원처녀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지금 한참 켜고있는 원목들은 바로 그들의 새 살림에 필요한 가구들을 짜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었다.

차르릉거리며 기세 좋게 돌아가는 제재기소리, 상쾌하고 알싸한 송진냄새, 한줌 쥐여보고싶도록 부근부근한 톱밥무지, 가로세로 엇갈려 덧쌓여지는 각자며 널판자들...

문양고운 속살이 드러난 목재들을 옮겨놓으며 작업반원들이 흥에 겨운 일손들을 놀리고있던 때였다. 《쟡, 짜장-》 갑자기 작업장에 귀청을 쩡는 아츠럽고 예리한, 무엇이 다 부서져나가는듯 요란한 소리가 울렸다.

나는 어망결에 반사적으로 몸을 흠칫하였다.

(사고로구나!)

섬찍한 생각이 번개치듯 머리속을 스쳐지났다.

잠시 한순간이 지나자 굳어졌던 몸을 풀며 의아한 눈길을 돌리던 반원들은 서로 입을 꾹 벌리고말았다.

통나무를 켜들어가던 큰 원형톱날이 형제도 없이 부서져나갔던 것이다.

《이게 어떻게 된거야?!》

반원들은 이구동성 떠들며 주위를 에워쌌다.

참 알수 없는 일이었다. 이전엔 한번도 있어본 적이 없던 일이라 모두가 원인을 찾느라 야단법석이었다. 그러나 전동기도 여전하였고 피해 역시 다른 이상이 없었다.

이때 누군가 제재판우에서 커다란 통나무를 내려떨구었다.

그는 도끼를 들고 다가가더니 톱날이 나가다 부서진 그 자리에 대고 힘껏 내리박았다.

몇번 치지 않아 나무는 쨍 소리를 내며 찢겨져나갔다. 갈라져나간 나무앞으로 모여들어 들여다보던 반원들은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건?!...》 저기에는 크기가 손바닥만한 쇠불이가 깊숙이 들어박혀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되어 그 쇠불이가 다른데도 아닌 나무속안에 들어있게 되었는지 정말 《요지경》같은 노릇이었다.

둘러선 사람들은 이해할수 없다는듯 저마끔 고개를 기웃거리며 떠들어댔다.

쇠불이가 박힌 그 자리에는 웅이라도 진것처럼 나무결이 판판히 굳어져있었는데 그우로 줄지어 간 년륜을 새긴 무늬들이 그것을 에워싸고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 굼긴 상처에 세포점막들이 서로서로 응결막을 형성하고있듯이...

그러니 나무의 결모양을 보고야 어찌 그 깊은 속안에 저런 《홍물》이 들어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인들 할수 있었으랴.

《이건 전쟁때 박힌 폭탄파편이요.》

빈장아바이가 원목을 끌어내는 《쪼끼》로 조심스레 그것을 파내들며 나직이 뇌이는 말이였다.

《예? 파편이요?!》 놀라운 눈빛들이 일시에 아바이에게로 쏠렸다.

아바이는 대답대신 길게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통나무무지로 다가가 걸터앉더니 담배를 붙여두는 것이였다.

모두가 심각해진 표정으로 쇠불이를 손에 손으로 넘겨가며 들여다보았다.

웁쌌다. 그것은 분명 폭탄파편이였다. 언젠가 학교시절 동무들과 함께 농촌지원에 나가 땅을 팔때 꼭 이와 같은 《쇠불이》들이 팽이날에 불꽃을 튀기며 묻어나오던것을 본 일이 있었다.

이제는 하도 오랜 세월이 지나 불그레하게 녹이 쓸긴 했어도 날카로운 모서리 한끝에 이르기까지 가릴처절했던 전화의 포연내가 그대로 숨배있는듯했다.

이 땅에 날과 달이 흐르고 해가 바뀌어 전쟁의 포화가 멎은지도 어언간 40여년.

새삼스럽다고 하기에 너무도 큰 고통과 아픔이 그 갈피마다에 새겨져있는 근 반세기에 걸치는 민족분단의 력사가 흘러갔다.

《으-음.》 신음하듯 내쉬는 한숨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빈장아바이가 멀리 남쪽하늘가를 바라보며 담배연기를 내뿜고있었다.

아바이를 보느라니 가슴이 저려왔다.

아바이는 분명 전쟁때 헤어졌다는 누이동생 생각을 하고있을것이다.

경기도 련천이 고향인 아바이는 일찌기 왜놈들에게 부모를 잃고 오누이로 살아오다가 전쟁시기 마을을 해방한 인민군대에 입대하였는데 그후 정전직후부터 오늘까지 하나밖에 없는 누이동생의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언제인가 락엽이 지던 마가울 어느날 아바이는 꼭 지금과 같은 저런 표정으로 토방에 걸터앉아

처마끝에 매달린 철지난 제비둥지를 보며 한숨을 짓고있었다.

그때 서글픈 미소를 입가에 지으며 그가 하던 말이 지금도 귀가에 쟁쟁하다.

《그래도 저 새들은 봄이 되면 다시 날아오건만...》

그런데 오늘 40여년간 나무속에 웅이져 박힌 저 원한의 폭탄파편이 갈라진 혈육이 그리워 꿈속에서도 애타게 찾고 부르며 살아온 아바이의 아픈곳을 또다시 허비여놓았던것이다.

어찌 아바이뿐이라, 남쪽의 거치른 하늘밑에 부모와 형제, 자식들과 친척들을 두고 온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 땅우에 생을 둔 온 겨레들에게 있어서 분렬의 아픔은 파편조각을 품고 자라온 저 이깎나무처럼 근 반세기동안이나 가슴속깊이 쌓여 웅이로 맺혀있는것이다.

《에익!》 누군가 통나무를 내리쳤다.

그러자 크고작은 한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아, 우리 생활의 행복한 웃음과 기쁨속에 어찌 하여 아직도 저런 한숨들이 묻혀있는것인가.

반세기가 되어오도록 쌓이고 맺힌 분렬의 아픔이 이제 더이상 지속되어야 한단말인가.

아니, 더는 통일이라는 말이 그 무슨 《의무》처럼, 세대를 넘겨가며 외워야 할 단어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더이상 분렬의 고통이 우리의 웃음을 흐리우고 우리의 행복에 그늘을 던지며 통일은 우리소원이라고 구호로, 노래로 부르게 할수는 없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것이,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까지도 우리의 어깨를 잡아흔들며 웨치는듯싶다.

통일, 너는 더이상 한시도 미룰수도 양보할수도 없는 우리의 숙원이다.

가장 큰 민족의 숙원을 풀어주시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각까지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을 받들고 온 겨레가 하나로 굳게 뭉쳐 일떠서야 한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헌장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높이 받들고 통일의 지름길을 하루빨리 열어나가야 한다.

통일, 통일어로 흘러가는 시대의 흐름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없다.

나는 뚫어오르는 걱정을 안고 고개를 들어 멀리 남녘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고려

고호길

나는 아들의 이름을
《려》라고 지었다
제주 고씨인 성과 함께
고려라고 부른다

나날이 부풀어
더더욱 커지는 념원에 사무쳐
기어이 이룩할 일념으로 뛰고 달린 세월
내 아들도 다 자랐으니
사려깊은 이웃들
고려집이라 부른 세월도
이제는 몇몇해던가

고려!
고려집!
애젊은 한 인간의 이름으로는
한채의 크지 않은 집 현판으로는
그 뜻이 너무나 크고 깊구나

그 이름으로 불리우며
한세대가 다 자라났건만

통일이여!
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희망일수만 없나니
어버이수령님 한생을 바쳐오신 그 위업
고귀한 유훈임에
이제 더는 미룰수 없나니

오, 지금이야말로
7천만 겨레가 한가정 고려인되고
지금이야말로 한채의 집이 아닌
삼천리강토가 한나라 고려국되어
누리에 떨칠 때 되고 남지 않았느냐

아, 통일!
조국통일 3대헌장
그 기치아래 7천만이 뭉치면
무너지리 분렬의 장벽도
통일된 내 나라는 강성번영하리
고려민주련방공화국!
그 이름과 더불어

고향의 축복 외1편

리동후

풍요한 이 가을
솔바람 서늘러운 수리산기슭으로
아침부터 서둘러 오르누나
조상의 분묘 찾아 온 마을 어른 아이
벌초도 깨끗이 지성을 고이누나

멀리 헤어져 살아도
태를 묻은 고장이라
그 어이 잊었으랴 추억의 이날만은
차를 타고 령을 넘어
친척 친구들 감회깊이 모여드누나

반가워라
소꿉시절 나의 동갑내기들
나라에 바쳐온 값높은 표적인가
귀밑머리 희숙한 모습으로 서로 만나니
추억깊은 회포를 언제면 다 나누랴

나서자란 우정은 오늘도 다름없어
철철 넘치는 막걸리동이에
등등－쭈뼛까지 띄워놓고
마시며 부으며 나누는 진정속엔
두고두고 못잊는 빨찌산소년시절

준엄한 전화의 그 나날
원썬놈들 급기야 마을에 기여들 때
사품치는 몰살파라 교각을 타고올라
발파심지에 불을 달던 길남이

다급히 우리 향해 웨치던 그 목소리
－빨리 물속으로 피하라!

파르릉－ 폭음소리와 함께 다리는 하늘충천
바로 그밤이었다
수리산기슭에 시체를 안아올려
피눈물 뿌리며 흐느끼던...
꽃나이지절 남먼저 보낸 아쉬움에 지새우던...

－길남아, 잠을 깨라 우리가 찾아왔다!

정녕 무심히 바라볼수 없구나
마을을 지켜 숨진 유격대 당원들과
소년빨찌산 그대 이름도 함께
붉은 피 어려있는 고향산천이여서
애국의 넋이 살아숨쉬는 조국이여서

동년배들아
길지 않은 여생에 바칠것 무엇이냐
우리 한껏 이 땅을 기쁨지워
풍년나락으로 나라를 섬기는
이보다 보람높은 삶이 어디에 있으랴

원하노니, 죽어서도 제고장에 묻혀
흙이 되고 거름이 되여
산에 들에 오탁백과 무르익을 때
선렬의 넋을 이은 우리도 받아안으리
고향이, 조국이 안겨주는 영원한 축복을!

산에 정들어

멀리서 찾아왔구려, 기자동무!
언제한번 신문에 이름조차 난적없는
산중에도 외진 끝안 고미탄막바지
산벼랑 험한 령을 수고로이 넘었구려

내 집 토방 멍석우에 편히 앉아
독초 한대 피우면서 피곤을 푸시구려
저 보소, 앞남산에 염소떼 양떼 무리
풍성한 이고장의 새로운 풍치라오

생각하면 내 인생도 복을 받았지
도시에서 시집온 우리 집 며늘아기
아니 글썽 떡판같은 아들을 낳았겠다
이제는 산에 정들어 방목공이 되었다오

기자동무, 들어보소 달콤한 꽃강냉이
저녁상에 오르는 우유맛도 좋지만
구수한 토장국에 푹고추 얼근함은
북방의 고유한 진미가 아니겠소

사시장철 산매골에 소형발전기 동음은
문명의 노래로 집집에 넘치고
일터엔 기계소리 일손마다 흥겨우니
무릉도원 여기 떠나 어이 살겠소

기자동무, 이 시골바우 진정만을 꼭 써주시구려
사람들 극성스레 산촌을 가꾼 지성보다
곡창문 활짝 열어준 로동당이
황금열쇠 우리 손에 쥐여준 덕분이랴구!

성삼문

성삼문은 15세기의 재능있는 학자이다. 자는 근보, 호는 매죽헌 또는 남옥, 시호는 충문이라고 한다.

성삼문은 1418년 경상도 창녕에서 태어났다. 그가 출생할 때 공중에서 세번을 거듭하여 《출생하였는가》고 묻는 소리가 있었으므로 이름을 삼문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글공부에서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낸 성삼문은 1438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집현전 학사로 된 성삼문은 정린지,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최항, 리개, 리선로 등과 함께 1444년에 우리 나라의 고유한 민족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참가하였으며 1446년에는 새로 만든 우리 글자에 대한 과학리론적해설서인 《훈민정음》(해례)의 편찬에도 참가하였다.

성삼문은 우리 말뿐아니라 중국말과 한자음운학에도 정통하였으며 뛰어난 시적재능으로 이름을 날렸다.

성삼문이 사신으로 중국에 갔을 때였다.

그의 재능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사람이 그를 찾아와 백로를 그린 그림에 쓸 시를 지어줄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았다.

성삼문은 그자리에서 시 한수를 지어주었다.

눈같은 옷을 입고
발까지 구슬갈에
갈대사이 우뚝 서서
물고기 엿보는가

그러자 그 사람은 그제서야 그림을 펼쳤는데 그것은 먹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흰 백로를 먹으로 그린 그림으로서 성삼문의 재능을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

성삼문은 한순간 당황했으나 즉시 그자리에서 시 한수를 지어 대구를 채웠다.

무심히 날아날아
산음고를 지나다가
왕희지 버루짖는
그 못속에 빠졌구나

왕희지는 4세기 중국의 이름있는 서예가이다. 그가 산음현의 한 못가에서 글씨쓰는 연습을 하여 그 못의 물이 새까맣졌다는 일화가 있다. 성

삼문은 그 일화를 리용하여 검은 백로에 대한 시를 지었던것이다.

성삼문의 재능을 시험해보려고 했던 사람은 그의 민첩한 재주에 탄복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성삼문은 1447년에 실시된 증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며 벼슬은 승지에 이르렀다.

1450년 조선봉건왕조 4대왕이었던 세종이 죽고 그의 맏아들인 문종이 왕위에 올랐다. 그런데 원래 병약한 체질이었던 문종은 얼마 못가서 중병을 앓게 되었다.

자기의 명이 얼마 안남았다는것을 깨달은 문종은 어린 세자가 걱정되어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최항, 하위지, 류성원 등 집현전의 젊은 학사들에게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세자를 잘 도와 줄것을 부탁하였다.

1452년 문종이 죽고 그의 아들인 로산군(단종)이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단종에게는 여러명의 삼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어린 조카의 왕자리를 노리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수양대군(세종의 둘째아들이며 단종의 맏삼촌)은 무관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면서 왕자리를 빼앗기 위한 준비를 다그쳐나갔다.

수양대군은 자기가 그러모았던 무관들을 동원하여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유능한 관료였던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세종과 문종에게 충실한 신하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으며 친동생인 안평대군을 강화도에 귀양보냈다가 죽이였다. 그리고 왕족으로서는 될수 없는 령의정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외병마도통사의 관직까지 겸임함으로써 정치, 군사적 실권을 틀어쥐였다.

이렇게 되자 정린지, 신숙주를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문종에게서 받은 생전의 부탁도 꺾버리고 수양대군에게 가붙었으며 앞장에 서서 단종을 왕자리에서 몰아내려 하였다.

1955년 수양대군은 끝내 단종을 몰아내고 왕자리를 차지하였다.

왕자리를 수양대군에게 넘기는 날 레방승지였던 성삼문은 옥새를 붙안고 통곡하며 속으로 기어이 수양대군을 복수하리라 다짐하였다.

성삼문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하려는 박팽년을 만류하여 그와 함께 동료들과 손을 잡고 수양대군을 내쫓고 단종을 다시 올려앉힐 계책을 비밀리에 꾸며나갔다.

그 일에는 무관으로는 성삼문의 아버지인 성승과 유응부, 박쟁 등이 가담하고 문관으로는 박

팽년, 리개, 하위지, 류성원, 김질 등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1456년 명나라사신을 위한 연회때에 성승과 유응부 등이 의장용 큰 칼인 운검을 들고 왕의 곁에 서게 된것을 기회로 삼아 왕과 세자, 그지지자들을 죽이고 거사를 단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연회를 앞두고 운검을 세우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유응부는 그대로 거사를 단행하자고 나섰으나 성삼문은 기회가 좋지 않으니 후날 다시 날을 보아 거사하자고 만류하였다.

그런데 이 일이 김질의 밀고로 드러나게 되었다. 김질은 일이 틀어진것을 보자 제 목숨을 건질 심산으로 장인 정창손과 함께 수양대군앞에 나가 역적고변을 하였다.

깜짝 놀라 펄쩍 뿜 수양대군은 형들을 벌려놓고 성삼문을 비롯한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성삼문은 형장에 끌려나가서도 수양대군을 《나으리》라 부르며 꾸짖고 자기 절개를 굽히지 않았다.

수양대군이 삼문에게 네가 내 록을 타먹지 않았느냐고 하자 당신이 준 록은 집에 그대로 다 싸두었으니 도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후날 그의 집을 뒤져보니 정말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른 때

로부터 받은 록이 그대로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삼문은 불에 달군 쇠로 살을 지지우는 참혹한 형벌을 당하였으나 끝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았으며 곁에 서있는 신숙주를 의리가 없는 놈이라고 꾸짖었다.

성삼문은 수양대군의 회유기만과 위협앞에서도 단종을 지지하는 자기 립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자기의 굳은 절개를 다음과 같은 시에 담았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락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견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성삼문은 박팽년, 하위지, 리개, 류성원, 유응부 등과 함께 처형당하였다. 이 6명을 《사6신》이라고 부른다.

성삼문은 우리 나라의 이름난 학자로서, 자기 임금에 대한 《충의》를 끝까지 지킨 충신으로서 력사에 이름을 남기였다.

성삼문이 지킨 《충의》, 그것은 봉건적충군사상에 기초한 《충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삼문은 자기의 굳은 절개를 끝까지 꺾이지 않은 충신으로서 력사에 남아있다.